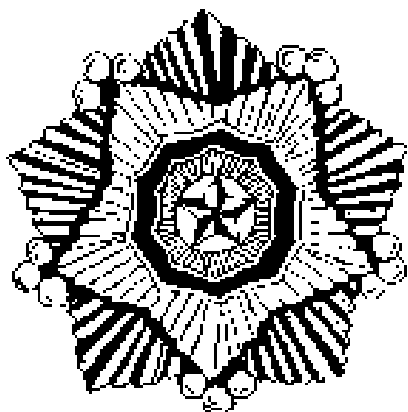


4

주체 96 (200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6 (2007)년 제4호

(루계 제 714 호)

◇◇◇◇◇◇◇◇◇◇

차 례

◇◇◇◇◇◇◇◇◇◇

수령형상론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개척하신 독창적인 주체의 형상론 ...	3
사랑의 길 따라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영생하시다	5
성 지	6
수령님의 길	7
만경대의 인정	8
하늘이 낸 명장	9
《오작교》	10
《오늘이 태양절이 아닙니까》	22
봄빛 넘치는 대지에서	22
수령님과 관리위원장	23
위대한 동지	23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태양이라 노래함은... ..	24
장군님은 우리 집에도 찾아오셨네	29
가사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었네》가 나오기까지	30
우리는 태양민족이다	31
그 숭고한 뜻을 받드시고	35
내 사랑 저 하늘	36
주체문학의 대강	48
백송리에서	48
명령	49

담배이야기	49
추억의 몇토막	49
백송리의 하루는 한세기보다 길다	50
오, 4.25!	51
최고사령관기를 우러러 《받들어총!》	51
위대한 군인	52
나의 병사시절이 흘렀다	53
영웅의 노래 높이 부르며	54
백두의 해돋이	54
회령고향집 트랙에서	55
인사를 드리노라	55
병사를 사랑하라	56
답	57
우리 나라 중세 《취전》 계열의 의인소설에 대하여	66
목장의 봄	68
목장의 풀판	68
비암땅은 멀어도	68
비암천 굽이굽이	69
아 원산목장	69
시대가 주는 이름	70
생활이 비낀 시적인 종자의 탐구	72
성구, 속담 (조심성)	78
땅은 말이 없다	79
거름	79
아이들의 말	79
《통장훈》을 부르자	79
성벽을 쌓자	80
《난 자네를 전혀 모르겠는데》	80

수령형상론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신 독창적인 주체의 형상론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문학발전력사는 레외없이 성격창조의 역사, 전형의 부단한 교체의 역사였던 것만큼 매 역사적시기마다 어떤 시대전형을 창조하는가 하는것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선행고전가들도 사실주의의 특징을 전형적환경에서 전형적성격의 창조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19세기말에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의 출연도 바로 자본의 철쇄를 깃부시고 근로인민이 주인된 사회,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떨쳐나선 투사-혁명가의 전형창조로 특징된다.

력사와 더불어 발생발전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 문학에서도 사회주의적리상을 체현한 혁명적인 인간전형의 창조를 기본형상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문학에서도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문제를 어떤 위치에서 어떤 형상원리에 기초하여 해결할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거의나 논의되지 못하고있었다. 다만 개별적작가들의 신념에 따라 수령형상이 소극적인 범위에서 분산적으로 창작되는 정도였으며 수령형상론은 문예리론체계에서 의연히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바로 이 시대력사적인 과제는 출중한 정치실력과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 뛰어난 예술적자질을 겸비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해결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제문화건설의 핵으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문학은 확고히 수령의 형상창조를 주선으로 하여 힘있게 건설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형상론의 리론적전제로, 그 기초로 되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본질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리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벌써 그이께서는 수령에 대한 선행고전가들의 견해의 제한성을 종합분석하시고 독창적인 사색과 탐구로 그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선행고전가들은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밝히였으며 특히 수령을 개인으로 본데로부터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밝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론리정연하게 분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수령을 단순히 개인으로 보는것은 매우

그릇된 견해라고 하시면서 수령은 혁명의 뇌수이며 당과 인민대중의 리익의 최고체현자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전혀 새로운 주체적인 견해가 확립되게 되었으며 수령형상론을 과학적도대우에 올려세울수 있는 리론적전제가 마련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신데 기초하시어 수령의 위대성형상의 기본내용이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수령, 고매한 인간적품모의 체현자로서의 수령을 깊이있고 폭넓게 형상하는것임을 명백히 해명하여주시였다. 이 가르치심 역시 많은 경우 덕성주체에 치우치던 작가, 문필가들에게 수령형상창조와 그의 리론전제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아갈 근본열쇠를 쥐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붓을 드시고 10대에 이르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다함없는 경모심을 담아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하시였다.

이과정에 수령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작품들의 형상생리를 창작실천속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는 한편 새로운 형상원리들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게 되시였다.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시기에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충성의 노래》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창작하시어 주체적인 수령송가의 고전적본모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선군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오늘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면서 천만군민을 수령흠모의 숭고한 정신세계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쌓으신 수령형상창조의 고귀하고 풍부한 경험 그리고 독창적인 사색과 탐구로 무르익히신 형상원리와 형상원칙에 기초하시어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시던 초창기부터 수령형상창조사업을 문학의 핵으로, 주선으로 틀어쥐시고 수령형상작품이 주체의 인간학의 정수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시였다.

당사업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돌보셔야 하는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이께서는 부피두터운 장편소설을 비롯한 서사시, 서정시, 가사 그리고 영화문학작품에 이르기까지 일일

이 보아주시며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었고 때로는 수정가필도 하시는 다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류문학사가 일찌기 그 류례를 알지 못하는 수령형상총서작품창작을 발기하신 다음 4.15문학창작단을 꾸려주시고 그에 의거하여 총서《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혁명적대작들을 창작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심으로써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수십권의 총서작품들이 련속 창작되어 주체문학의 화원을 특색있게 장식하였다.

소설과 함께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수천편을 헤아리는 수령송가들, 영화문학《조선의 별》,《민족의 태양》,《밀림이 설레인다》 등 사상에술적으로 품위있는 작품들이 다양한 형태에 걸쳐 활발히 창작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은 주체문학건설에서 핵으로 되고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십성상에 걸쳐 쌓아올린 성과와 경험의 분석일반화, 독창적인 사색과 탐구로 마침내 불후의 고전적로작《**주체문학론**》에서 수령형상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완성하시여 세상에 내놓으시었다.

수령형상론에서는 수령형상의 본질과 지위, 수령형상창조의 필연성,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요구와 구체적인 형상원리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시대와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최고전형인 수령은 구체적인 인물로 그리면서도 개인으로 형상하지 말아야 하며 수령형상작품에는 일반작품과 구별되는 미학적특성이 있는데로부터 고유한 생리가 있다는것 그리고 그 형상생리를 이루는 구체적인 창작원리들이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밝힌것은 수령형상론의 완성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근본고리들이다.

수령형상론은 주체의 형상론을 완성하는데서도 커다란 기여로 된다. 다시말하여 백수십년을 헤아리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이 공백으로 남겨놓았던 수령형상론이 전일적인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주체문학리론은 형상론의 핵을 완비한 가장 발전된 리론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수령을 형상하는데서는 문학의 일반적인 창작원리를 지키면서 수령형상의 고유한 생리를 살려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고전적정식화는 사실주의문학이 전통적으로 교수하고 발전시켜온 전형화와 진실성의 원칙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견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주체의 수령형상론은 수령을 전형속에서 고찰하면서도 우리가 흔히 인식하여온 일반전형이 아니라《최고전형》으로 내세우며 따라서 수령형상론 역시 일반전형론의 제원리에 의거하면서도 수령형상이 고유한 생리를 가지는것으로 하여 독자적인 형상론에 속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혀주었다.

이리하여 주체사실주의에서는 로동계급의 수령을 구체적인 인물이면서도 개인의 형상이 아니며 따라서 일반주인공의 형상 혹은 력사에 이름있는 걸출한 인물이나 영웅의 형상과도 전혀 다른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유일중심으로, 력사발전과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특출한 위인으로 형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체의 수령형상론이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인간학으로서의 일반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의 고유한 형상생리를 특색있게 살릴수 있게 한 독창적인 리론이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하여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개척하여 주신 수령형상론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형상한 혁명문학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당의 문필전사들인 우리 문학리론가들과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형상문학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며 수령형상창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높은 수준을 개척하여 나아가는 전위가 되여야 할것이다.

천재규

가사

사랑의 길 따라

정영상

오실 때는 향기속을 걸어오시라
동구길에 우리 마음 꽃으로 피웠건만
장군님은 오시였네 산기슭 이슬길로
양어장 꾸릴 자리 보아주셨네

가실 때는 피약별을 그어가시라
언덕길에 우리 마음 그늘로 펼쳤건만

장군님은 가시였네 산골짜 자갈길로
발전소 세울 자리 잡아주셨네

잊지 못할 사랑의 그 자욱 따라
온 나라 마을마다 행복이 찾아왔네
장군님 걸으시는 끝없는 사랑의 길
우리 걷는 락원의 길이 되었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인민의 사랑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것은 나의 일생을 관통하고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나는 인민의 사랑을 받는데서 최대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있다. 인생의 첫째가는 진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가. 이 진미를 아는 사람만이 인민의 참된 아들이 되고 충복이 될수 있다.》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괴를 많이 흘리고 찬바람을 많이 맞고 끼니를 많이 굶어본 인민이 또 어데 있겠는가 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집들을 더 많이 짓고 좋은 천을 더 많이 짜내고 좋은 학교들과 휴양소들과 병원들을 더 많이 건설하자. 그리고 이국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을 더 많이 데려오자. 이것이 나를 축전에서 구원해주고 사지에서 건져준 인민을 위해 내가 할 한생의 일이 아니겠는가.》

영생하시다

정동찬

세기와 더불어
인민과 더불어 사는
위대하고 무궁한 생애의 력사
그 기슭의 봄언덕에
나는 서있다

인간의 향기와 사랑이 어떤것인지
인간의 믿음과 신념이 어떤것인지
다 말해주는 고귀한 생의 력사
그 첫째지가 열리던 만경대여

어느해 저물녘이더냐
만경봉 금잔디우에 앉으신 그이
대동강 멀리 황혼속에 멀어져가는
참담한 세월의 마지막돛을 바래우신것은

단호히 인민에게로
세월의 돛을 돌려세우신 그이
인민을 품어안으신 큰 심장속에서
항거의 붉은 돛이 펼쳐져 올랐거니

겨레의 희망이였고
력사의 표대가 되어
그 돛은 압록의 푸른 물결을 거슬러
백두밀림의 바다우에 내려쳐갔더라

나라를 잃은 그 세월엔
그이는 그대로 조국이였으니
쫓디쫓으신 나이적부터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여
별의별 고생을 다 겪으신분

펼쳐올리신 그 붉은 돛꼭아래
어제날 수난자들을 다 불러들이시여
손과 손에 튼튼한 노대처럼
운명개척의 총대를 쥐여주셨고

누리는 락도
민족해방의 피바다 불바다속에서 찾으시며
만경대기슭에서 높이 올린 돛을
인민과 함께 역세계 이끌어오셨다

바라는 복도
별이 지저대는 전호와 발머리에서 찾으시며
꽃과 향기와 열매를 익히는 세월을
인민에게 안겨주신 수령님이시기에

세월조차
그이의 머리우에
그이의 거룩하신 생애에
흰서리를 없기 삼가했더라

아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띄워놓고 세월이 말하건대
보내고 맞은 세월의 한해한해는
그이의 헌신의 세월이었다고

그 한해한해를
인류의 진보와 자주의 세기로 창창히 열어
곧바로 이어놓으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하신 생애였다고

세기와 더불어
1912년의 기슭을 떠나
혁명의 성스러운 년대들을 넘어
새 세기의 빛나는 령마루에 오른
주체사상의 붉은 돛과 더불어
인민의 태양 **김일성** 동지 !
그이는 영생하신다

성 지

리명근

승업함의 최절정에
너는 솟아있더라 만경대
아름다움의 최절정에
너는 펼쳐졌더라 만경대

만경대
조용히 그 이름 불러도
생각은 천만가닥 나래를 치고
마음은 따뜻한 봄빛에 젖고

만경대
천번을 만번을 불러도
눈앞에 태양의 빛이 짝 차
오직 하나의 의미
오직 하나의 모습으로
내앞에 다가서는 신비의 땅이여

세세년년 긴긴세월
기다려 주인을 기다려
꽃을 피우고 다시 피우며
향기를 채우고 다시 채우며
역사가 아껴온 땅
세월이 지켜온 땅

1912년~2007년
이 세월을 뜨겁게 부여안고

이렇게 여기 서니
밤도 낮도 하나로 어울려
태양의 세상에 들어선듯
환희로 끓는 가슴에
온통 차오르는 해빛, 봄빛

탄생이란 그 말우에
태양이 놓여있고
태양이란 그 말속에
이 나라가 숨쉬고
민족이 살아있거니

오, 만경대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하신 땅
사회주의조선의 하늘이 열리고
이 나라 미래가 축복받은 땅

조선이 안아올리고
세계가 받아안은
위대한 태양의 성지
만경대 !
만경대 !
영원불멸의 성지여 !

수령님의 길

김정삼

한평생 우리 수령님 걸으신 길
누가 걸어본 길이였다면
누구나 갈수 있는 길이였다면
거룩한 그 자욱 소중히 쓰다듬는
이 마음 이리도 뜨거울수 있으라

짚신 두켤레를 러장삼아
열어붙은 압록강을 건느신 그날부터
시련의 광풍을 한몸에 받으시며
수령님 헤쳐오신 혁명의 초행길들

그 길우에
바람사나운 이역만리
목침베고 지새우신
긴긴 겨울밤은 얼마였고
탄환이 귀 스치던 바위츠렁
가슴 무너지는듯 하던
로야령의 설령들은 또 얼마였던가

너무도 젊으신 나이에
모진 피로움 다 겪으신 수령님
피멍진 겨례를 먼저 생각하시며
잠 못 이루시던 밀영의 우등불가...

오, 첩첩 혈전의 준령 넘어
개선의 큰길로 조국을 안고오신 수령님
허나 뺨파리치고 환호성 터치며
온 나라가 더덩실 춤추던 해방년의 그날에도
우리 수령님앞에
꽃이 웃는 휴식길 짧게나마 있었던가

쇠가루 날리는 강선의 구내길에서
허리 못 편 조국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수령님 무거이 맞으셨던 그 찬눈
인민의 마음속에 오늘도 내리고

손수건으로 흐르는 땀 닦으시며
수령님 걸으시던 현지도의 그 발걸음소리
풍요한 저 농장벌에
지금도 울리거니

만민의 흠모를 받으시는 어버이이시건만
자신을 위한 다른 길 원치 않으신분
인민을 꽃방석에 앉히는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간직하신분

그래서 우리 수령님 한생엔
힘한 길 그리도 많았던가
진눈까비 내리는 진창길
풀이슬 어린 오솔길
찬서리 내리는 눈두렁길...

아, 백두의 흰눈을 어깨에 맞으시며
수령님 쉽없이 걸어오신 혁명의 길
풍파세찬 로고의 그 길은
수천갈래 많았어도

그 길은 오, 그 길은
이 세상 온갖 고생 다 겪으시며
인민의 심장속으로 우리 수령님
영원한 사랑을 안고오신 오직 한길
위대한 한평생을 다 바쳐
인민의 세월을 엮어오신 오직 한길

그래서 4월이 오면
이 가슴에 더욱 젖는 그리움
인민의 심장속으로 걸어오시는
우리 수령님 영생의 발걸음소리 들으며
목메여 내 웨치노라
-수령님 아, 우리 수령님!

만경대의 인정

김재원

정과 애로 사는것이 사람이어서
집이여, 만경대초가집이여
품은 정과 애
그리도 크고 뜨거웠던가

벼짚이영 이은 수수한 농가
삼가 트랙에 들어서니
살림은 이리 가난했어도
온 동네 온 강토에
일가분들 안겨준 정과 애
천근이라 만근이라, 헤아려 얼마라

조용히 토방을 어루쓰니
여기 걸터앉아 짚신초신을 삼아도
꽃천 색천 조박으로 곱게곱게 수를 놓아
사랑하는 손주님과 꼭같이
동리아이들에게 신겨 즐거움을 준
할아버지 할머니 진정 별같이 어려오고

눈길 들어 방안을 살피보니
꺼져가는 생명들에
고르로운 맥박 뛰게 하시려
의술을 인술로 닦으시며
《지원》의 뜻 후세에 남긴
김형직선생님 겨레에 대한 사랑 해빛같이 안겨오고

지금도 뚫고있는듯
목메여 부역의 무죄가마 바라봐도
이른새벽 늦은 저녁
눈비에 젖어 들어서는 애국지사들 위해
끓는 죽가마에 물 한그릇 더 부으시던
강반석어머님 그 인정 달같이 떠올라

집이여

인간의 정과 애로 우주에 솟은
만경대초가집이여
우리 수령님 마음속에 키우신
위대한 광복의 뜻도
그 정과 애로 움트고 자란것 아니던가

겨레에 대한 그 정과 애로
만경대일가분들 정든 사립문 나서시였어라
착취압박 없는 산과 들, 바다에서
온 겨레 정과 애에 넘쳐
화목한 한집안으로 살 그날을 위해
춘하추동... 긴긴세월...

화전의 하늘가에 나뭇긴
《E. C》의 붉은 기발도
수령님 그 정과 애로 노을같이 나뭇겼고
혈전만리 사선만리 헤쳐넘은
빨찌산대오도 그 태양열로
칩칩 백두의 장설도 녹여
이 땅에 해방의 봄 안아왔어라

아 정과 애가 통하여 뜻이 통하고
뜻이 통하여 일심으로 뭉쳐진 강철의 대오
오늘은 우리 장군님 정과 애
동지애의 숨결로 총대마다에 흘러
선군혁명 천만리에 승전고 높이 울리나니

승리하리라 인간의 정은
승리하리라 인간의 사랑은
만경대초가에서 움터 꽃피난
조선의 정과 애
대를 이어 자자손손
백전백승하리라!

하늘이 낸 명장

주체25(1936)년에 무송일대의 반일부대 지휘관, 병사들속에서는 **《김일성** 장군은 하늘이 낸 명장이시다! 조선인민혁명군과 한 약속을 어기면 천벌을 받는다!》는 탄복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그렇게 된데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당시 무송일대에는 왕가대장의 위만경찰 **《토벌대》**가 있었다. **《토벌대》**대장을 **《왕가대장》** 혹은 **《왕대장》**이라고 하는데는 성이 왕가라는 뜻도 있지만 **《토벌》** 계의 왕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있었다. 왜나라놈들의 충실한 주구인 이 왕가대장의 **《토벌》**때문에 무송일대의 반일부대는 많은 희생을 내면서 기를 펴지 못하고있었다.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무송일대에 진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당시를 회고하시면서 조국을 살리고 겨레를 살리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투쟁목적이였고 사명이였다, 우리의 총검은 오로지 우리 조국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압살하며 우리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원수들을 징벌하는데만 바쳐졌다, 그러므로 우리 군대의 정의로운 검은 살려줄 가치를 가진자에게는 그들을 보호하는 자애로운 보검이 되어준 반면에 살려줄 가치가 없는 악질적인 반항자들에게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의 검으로 되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송일대의 형편을 료해하시고 왕가대장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시였다.

편지는 우리의 주되는 적은 일본군대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의 요구에 동의한다면 치지 않겠다, 요구조건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있었다.

며칠후 왕가대장으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의 요구조건을 다 받아들인다는 회답이 왔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왕가대장의 위만경찰 **《토벌대》** 사이에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일종의 비밀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요구조건에 반일부대를 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있었으므로 무송일대의 반일부대는 숨을 돌리고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런데 잠잠해있던 왕가대장은 약속을 어기면서 반일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다시 시작하였

다.

무송현내에 수많은 일제관동군 **《토벌》**력량이 증강되어오자 이자는 전에없이 오만해졌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마지막경고를 받고도 왕가는 반일부대의 한 숙영지를 습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인내성있는 기대와 성의에 왕가가 총질로 대답하는데 대해서는 용서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왕가대장을 징벌하라는 파업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일부 성원들에게 주시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전해주신대로 한 경찰분서를 습격하고 왕가의 **《토벌대》**를 유인하여 유리한 지점에서 섬멸적타격을 안기였다. 왕가는 량손에 권총을 하나씩 잡고 연방 사격을 하면서 발악하다가 명줄이 끊어지고말았다.

운명의 마지막시각에 왕가가 어떤 교훈을 찾았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정의로운것에 대한 배신이 어떤 종말을 가져오는가를 그가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때는 이미 늦은것이였다.

왕가가 녹아났다는 소문을 듣자 반일부대지휘관들과 병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자기들은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왕가때문에 움작 못하고 얻어맞으며 산속에 갇혀있었는데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편지 한장으로 그자에게 요구조건을 내리먹이셨을뿐아니라 그 약속을 어기자 30명정도 날썬 싸움군들을 파견하여 단호한 징벌을 내리게 하셨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김일성 장군은 하늘이 낸 명장이시라는 말이 과연 틀림없소!》

《왕가가 왜놈들을 믿고 하늘높은줄 모르고 날뛰다가 하늘이 내린 벌을 받았지.》

《왕가가 난다긴다 했지만 섬나라 쪽발이들을 믿고 김일성장군님 부대와 엇섰다가는 천벌을 받는다는걸 몰랐으니 제가 죽을 무덤을 제가 봤지.》

이러한 탄복과 위인칭송의 목소리는 백두산전설로 꽃피었고 왕가의 운명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은 력사의 흐름에 실려 전해지며 정의를 배신한자들에게 울려주는 경종으로 되고있다.



박해란

1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 이곳 후방병원을 찾으신것은 생사여부를 모르던 한 청년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되신때문이었다.

얼마전 그이께서는 전쟁4계단행정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군군인들을 표창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총참모부에 수훈자명단을 작성할 과업을 주시었다. 그리하여 어제 아침 총참모부에서 수훈자명단이 올라왔다.

수령님께서는 그 문건속에서 뜻밖에도 박철이라는 이름을 보시었다.

박철이, 지난해 여름 김화지구땅크습격전에서 위훈을 세우고 돌아오지 못했던 그 대대장이 옳긴 옳은가. 문건에 기록된 그의 공로내용은 박철 대대장이 바로 수령님께서 애써 찾으시던 청년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첫 순간 그이의 뇌리에 떠오른것은 동실한 얼굴에 항상 불우물을 짓던 오영혜의 얼굴이었다.

최고사령부 친위중대에서 생활하던 영혜가 레닌그라드로 류학을 떠나기에 앞서 박철이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받고 얼마나 울었던가. 먼 이국에서 아직도 상실의 아픔을 가시지 못한채 지내고 있을 영혜를 생각하시며 그이께서는 전선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여기 수림속의 병원을 찾으시었다.

겨울의 짧은 해가 귀를집병동들의 피창가를 따

뜻이 어루만질무렵 그이께서는 통나무로 벽을 쌓은 원장방의 수수한 나무의자에 앉아계시었다.

난로에서는 장작이 고르롭게 타고있었다. 이따금 불씨가 튀는 소리가 방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그 소리를 가늠하지 못하신채 원장방으로 들어서는 청년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상봉의 기쁨을 나누시려 눈길을 헤쳐 찾아오셨건만 그이앞에 나타난 사람은 눈에 봉대를 감은 앞뚫 보는 청년이었다. 수령님께서는 그가 흥분하면 건강에 해로울가봐 자신이 누구라는것은 밝히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그는 자기앞에 계시는분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가시는 강철의령장 **김일성** 동지이시라는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이께 자기가 살아남게 된 경위를 자초지종 말씀드렸다. 그가 살아난것은 기적중의 기적이였다.

김화지구에 등지를 튼 적땅크기지를 습격할데 대한 명령을 받고 그들이 반땅크수류탄뭉음을 안고 적진으로 육박해들여간것은 지난해 초여름 어느날 밤이었다. 그때 맨앞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박철은 련발하는 폭음과 함께 타박상을 입고 날려오는 흙무지에 묻히었다.

폭음이 멎은 후 습격조원들이 부상당한 자기 대대장을 찾아 온밤 불바다속을 헤맸다는것도 알지 못한채 그는 흙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

었다.

겨우 의식을 차린 그가 손끝이 모지라지도록 흠을 헤집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남반부의 한 빨치산부대가 그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머리에 받은 타박상으로 하여 두눈이 이미 실명되었을 때였다.

박철은 자기가 더는 빛을 볼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마음의 안정을 잃었다.

이제는 원쑤놈들과 싸울수 없단 말인가. 불쑥 푸른 빛이 그리워졌다.

점심참에 영혜를 만나러 대동교를 향해 뛰어갈 때 찬란한 빛을 뿌려주던 정오의 그 해빛, 그 해빛에 반짝이던 대동강의 푸른 물결, 마음속에 푸른 꿈은 또 얼마나 컸던가. 영혜와 함께 소중히 키워가던 꿈이었다.

(영혜, 난 영혜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더는 볼수 없게 되었소....)

육체적고통보다 마음속 고통이 그를 더 괴롭게 하였다. 하지만 손에서 총을 놓을수 없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이국땅에서 고아의 설움을 당해야 했던 지난날의 피눈물나는 운명을 또다시 강요당할수는 없었다.

박철은 빨치산부대의 도움으로 적후에 남아있던 부상병대오와 함께 끝내 북으로 들어왔다. 그가 후방병원에 후송되어온 날 피창밖에서는 첫눈이 푸실푸실 내리고있었다. 병동의 환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눈을 맞으며 웃고 떠들 때 그는 야전수술대우에 누워있었다....

이따금 난로에서는 불찌튀는 소리가 방안의 고요를 깨치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죽음을 이겨내고 기어이 살아돌아온 박철에 대한 대견함과 사랑으로 가슴이 후더워오름을 느끼시였다.

박철이, 용감하고 의지 굳센 대대장, 영혜가 이 대대장이 살아있다는것을 안다면 얼마나 기뻐하랴.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난 박철은 손을 더듬어 지팡이를 찾아쥐였다. 그리고는 절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원장동지, 제 비록 앞을 보지 못한다 해도 아직 팔다리가 남아있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저는 전선에서 쓰러진 전우들의 뒤통까지 합쳐 얼마든지 미군놈들을 죽일수 있습니다.

원장동지, 제 눈을 고치기 힘들다면 절 퇴원시켜 주십시오. 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열정에 북받쳐 호소하는 박철을 이윽히 바라보시였다. 사랑과 증오로 이글이글 타는 그의 눈빛을 볼수 없는것이 가슴아프시였다.

(불덩어리같은 사람!)

몸집이 체소하고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한 50대 초반의 원장은 할 말을 찾지 못한듯 안경을 추스르며 그저 머리를 흔들뿐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박철에게 신심을 잃지 말고 치료를 잘 받으라고, 그것도 전투라고 고무해주시였다.

박철이 자리를 뜬 다음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귀전에는 앞을 못 보면서도 전선에 나가 싸우게 퇴원시켜달라던 그의 간절한 청이 수백수천의 목소리에 섞이여 봄우뢰마냥 심중에 메아리쳐왔다.

그래, 지금 이 나라의 훌륭한 아들딸들이 전선에서 얼마나 고귀한 자기의 생명들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는가.

그이께서는 불이 이글거리는 난로에서 눈을 떼시고 원장을 바라보시였다.

《원장선생, 그 대대장에게 영혜라는 동생과도 같은 처녀가 있습니다. 일찌기 항일전의 나날에 랑부모를 다 잃고 그 대대장만을 오빠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아오던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자니 불구가 된 사실을 전할수가 없구만.

원장선생은 안과를 전문하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

원장은 무릎우에 두손을 공손히 포개인채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했던 문제를 그이께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 할 의료상의 문제를 놓고 원장은 이 시각 그이께서 바라시는 대답을 올릴수 없는것이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는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자세를 취했다.

《최고사령관동지,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안과를 전공하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타박상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파괴된 환자들을 수술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사실 수술경험을 가진 의사라고 해도 지금과 같은 전시조건에서는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환자의 눈을 소생시킬 방도가 없다는거군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원장의 대답에 실망을 느끼며 조용히 외우시었다. 난로에서 장작개비 타는 소리가 그이의 심중에 날아들어 아프게 찢었다.

방도라... 그이께서는 창가에 다가서시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피 뿔어넘치는 아까운 육체들을 파괴하고있는가. 우리는 하루빨리 이 전쟁을 끝장내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이께서는 원장쪽으로 돌아서시었다.

《원장선생. 어느 나라에 보내면 그 청년의 눈을 고칠수 있겠습니까?》

《?...》

원장은 목이 짝 메여올라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르며 서있었다. 마음속에는 그 무한한 사랑의 세계에 자기의 지혜와 재능이 따르지 못하는 죄송감만이 가득 차올라 흥벽을 두드리고있었다. 죽음을 이겨낸 대대장, 두눈의 실명, 다른 나라...

순간 그의 뇌리에 《의학통보》에 실렸던 쏘련군의 와셀리에브의 글이 떠올랐다. 제2차세계대전 시기 안과군의로 복무했던 그가 전쟁승리후 외부타박으로 인한 시신경이 파괴된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에 대한 논문이었다.

하지만 미군들의 공습으로 국제열차의 운행마저 중단된 지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난로결의 의자에 앉으시여 기대어린 시선으로 원장을 바라보고계시었다.

《원장선생, 방도가 있다면 주저말고 얘기하십시오. 그 대대장의 눈을 원상회복시킬수만 있다면 천리라도 좋고 만리라도 좋습니다. 이 병원을 돌아본후 병원일군들과 토론하자고 했는데 아직 우리 손으로 고칠수 없는 부상병들은 다른 나라에 보내서라도 꼭 고쳐주자고 합니다. 자기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 부상을 당한 귀중한 군인들인데 한나라지경만이 아니라 두 나라, 세 나라 지경을 넘어서라도 보냅시다. 지구상의 그 어느 병원에서도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킬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

...

겨울의 짧은 해가 수림너머로 기울어지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시계를 내려다보시고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원장선생, 병동들을 돌아봅시다.》

원장은 가슴에 짝 찬 흥분을 눅갯힐 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이를 따라 방을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원장과 함께 병동들을 차례로 돌아보시면서 전투에서 위훈을 세우고 부상당한 환자들과 따뜻한 담화도 하시고 그들의 병상태와 치료정형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리고 병원일군들과 자리를 마주하시고 환자들의 치료대책문제와 후방사업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고서야 승용차에 오르시었다.

귀틀집쳐마우를 어루만지던 오후해가 눈덮인 골짜기에 그늘을 남기고 사라질 때 그이께서 타신 차는 최고사령부를 향하여 속도를 놓았다.

최고사령부에서는 지금 총참모장 남일이 애타게 기다리고있을것이다.

《하기 및 추기공세》에 이어 《김화공세》에서도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적들은 그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막대한 병력을 들이밀면서 어마어마한 새 공세를 준비하고있었다. 전선형편은 날로 긴장해지고있었다.

대통령선거때 조선전쟁을 6개월내에 결속하겠다는것을 공약한 아이젠하워고보면 이번 공세가 만만치는 않을것이다.

《속도를 더 높이시오.》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나직이 이르시었다.

2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타신 차는 건지리의 수림속 길에 들어섰다. 달빛이 눈에 묻힌 송림을 교묘히 비쳐주고있었다. 잎푸른 침엽수가지마다에 녹지 않은 눈이 솜뭉치를 엮어놓은것처럼 무드기 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울창한 수림을 바라보시며 전쟁에 대하여 사색을 이어나가시었다. 이 전쟁으로 하여 많은것이 불타고 재가 되었지만 눈

속에서도 곳곳이 푸르러있는 저 거목들처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선과 후방에서 인간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가고있다. 그러나 전쟁은 점점 더 가렬쳐절해지고있다. 아이젠하워의 전직으로 보나 대통령이 된후 처음으로 벌리는 공세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신공세》는 보다 모험적이고 적극적일 것이다. 아이젠하워는 이 《신공세》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전 대통령이었던 트루먼과는 보다 더 로련한 《거장》이라는것을 시위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술의 《성세》를 벗어난 차는 추리발이 있는 지름길에 들어섰다.

수령님께서서는 사색에서 깨어나시여 차창밖을 유심히 내다보시였다.

이 지름길을 따라 추리발을 꺾질러 조금 가면 최고사령부의 나지막한 기와지붕이 보인다. 이 석비레길이 바로 전선과 후방으로 쉬임없이 오가시는 수령님의 편의를 위하여 친위중대원들이 닦아놓은 지름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이 일어나자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던 졸업반학생들을 최고사령부로 데려오시여 그들에게 군복을 입혀주시였다. 그리고 어느 하루도 자신의 곁에서 떼어놓지 않으시였다.

그러시다가 지난 여름 그들을 여러 나라들에 공부를 시키려 떠나보내시였다.

정으로 키운 그들을 떠나보낼 때의 수령님의 심중을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그들이 지금 낮설은 고장에 가서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앓지 않고 공부들을 잘하고있는지.

차창밖으로는 밑동에 짙오래기를 감은 추리나무들이 언뜻언뜻 지나갔다.

그이께서는 그중 키작은 나무에 시선을 박으시였다. 그 나무가 바로 오영혜가 말아 관리하던 나무임을 대뜸 알아보시였다.

최고사령부가 건지리로 옮겨온 어느 봄날 수령님께서서는 포연에 그슬려 푸른빛을 잃은 추리나무들을 살려낼 대책을 세우시였다. 그리고 그 과업을 친위중대원들에게 맡겨주시였다.

그들은 나무에 자기 이름이 적힌 패쪽을 매달고 경쟁이나 하듯 나무들을 가꾸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이 가꾸는 추리발을 돌아보시였다. 그러다가 키가 제일 작은 추리나무에 패쪽이 걸려있지 않는것을 보시

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물을 주고있는 친위중대원들을 가까이 부르시였다.

《이 나무를 보아라. 어린애에게 어머니의 손길 이 필요하듯이 키가 작고 연약한 나무일수록 살뜰한 주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무는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했으니 불쌍한 고아처럼 보이는구나. 누가 이 나무를 말아 잘 키워보겠니?》

모두 옆동무의 얼굴만 쳐다볼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맨뒤에 서있던 영혜가 앞에 나섰다.

《장군님,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나무를 말아 잘 키우겠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동실한 얼굴에 생긋이 웃음을 띠우고 말씀올리는 그를 바라보시며 인정이 많고 마음이 고운 영혜가 시들어가는 어린 나무를 꼭 살려낼것이라고 믿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째미 생길 때면 영혜의 나무에 물도 함께 주시고 벌레도 잡아주시였다.

이듬해 여름 영혜의 나무에서는 정말 알이 큰 추리가 익기 시작했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선으로 가시려고 차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 타신 차가 지름길에 들어서는데 추리발어구에 군복을 단정히 입은 영혜가 서있었다.

《영혜로구나. 그런데 왜 거기 서있느냐?》

수령님께서서는 차문을 여시고 그에게 물으시였다.

《장군님, 오늘도 먼길을 가십니까?》

《그래, 전선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그이의 다심한 물으심에 영혜는 보조개를 패우며 손에 들었던것을 보여드렸다. 종이봉지안에는 빨간 추리가 담겨져 있었다.

《벌써 빨갭게 익었구나.》

《예, 장군님. 제가 가꾼 나무에서 딴 추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먼길에 잡수시면 피곤이 풀릴겁니다.》

《고맙다.》

그이께서는 처녀의 생각이 기특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추리를 받으시자 그는 생긋 웃으며 또 한가지 청을 드렸다.

《장군님, 길이 험할 땐 차창유리를 꼭 닫고가십시오.》

《그래그래, 영혜의 부탁을 꼭 지키지.》 ...

그 여름날의 키작은 추리나무는 잎들이 떨어지고 지금은 앙상한 가지가 그에게 추억을 엮어드리며 눈을 떠이고있었다.

그이의 심중에 문득 그리움이 깃들었다.

차는 그 추리나무앞을 지나갔다.

영혜네는 지금 어떻게나 지내고있는지. ...

×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영혜를 알게 되신것은 해방후 어느해 봄이었다.

그날 만경대혁명학원을 다녀오신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원아들의 그림을 보여드렸다. 꽃을 그린 처녀애도 있었고 집을 그린 남자애도 있었다. 그림솜씨는 서툴렀으나 그들의 지향과 감정이 방불히 안겨오는 그림들이었다.

수령님께서 한장의 그림에 눈길을 멈추시었다. 크레용으로 까만 색칠을 한 권총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이 꼬마화가는 총을 그렸구만. 오영혜라.》

김정숙동지께서 말씀드렸다.

《장군님, 그 애가 바로 국내에 들어가 지하공작 임무를 수행하다가 왜놈들에게 희생된 오중성동지의 딸입니다.》

《아, 림춘추동무가 동북땅 한끝에서 겨우 찾았다는 그 애로구만.》

《예, 그 애가 권총을 그리려고 보안간부학교에까지 찾아갔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안길동지를 만나 허리에 찬 권총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더랍니다. 속사를 다 하고나서 그 애가 하는 말이 <선생님, 오늘은 제가 총을 그렸지만 학원을 졸업하면 군대가 되어 진짜 총을 메겠습니다.》하고 말하더랍니다.》

수령님께서 김정숙동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영혜의 아버지 오중성을 생각하시었다. 오중성은 원래 타고난 그림재간을 가진 사람이었다.

갓 창설된 유격근거지에 아동단학교를 세우신 수령님께서 그에게 아이들의 교과서를 만들 과업을 주시였었다. 그가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왔을 때 수령님께서 그의 그림솜씨에 탄복을 금치 못하시었다.

《중성동무, 인제 보니 동무는 그 손에 총이 아니라 붓을 들어야 할걸 그랬소. 이제라도 화판을 메여보지 않겠소?》

그이의 퉁어린 말씀에 중성은 당장 총을 빼앗길것만 같아 성급히 손을 내저었다.

《사령관동지, 금수강산 삼천리가 왜놈들 구두발에 짓밟혔는데 그림보다 총을 메는것이 선차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왜놈들을 우리 조국강토에서 내쫓고 나라가 해방되면 제대신 우리 딸애를 꼭 화가로 키우겠습니다.》

그는 자식에 대한 열렬한 희망을 고스란히 남겨놓은채 항일의 전장에서 최후를 마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도 마음도 어린 투사의 딸이 아버지가 지녔던 투쟁의 넋을 그대로 이어받은것이 못내 기특하시었다.

《장군님!》

김정숙동지의 따뜻한 부르심에 수령님께서서는 생각에서 벗어나시었다.

《안길동지가 하는 말이 영혜가 웬 청년을 데리고와서 그를 보안간부학교에 넣어달라고 조르더라는것입니다. 그래서 학원학생이 되었으면 공부나 착실히 할것이지 왜 남의 부탁을 가지고 찾아다니는가고 속이 빈 욕을 좀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울기는커녕 오히려 방글거리며 하는 말이 그 청년은 자기 오빠인데 청을 안 들어주면 장군님을 찾아가 청을 드리겠어요 하더랍니다. 하도 간절히 사정하길래 림춘추동무에게 알아보니 영혜가 동북땅을 방황할 때 그 청년의 어머니가 그를 데려다 길러주었다고 합니다. 후날 왜놈들이 집에 달려들어 <공산비적>의 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죄를 씌워 청년의 어머니를 마구 때렸답니다. 그 어머니는 왜놈들에게서 맞은 어혈로 숨지면서도 영혜에게 고아의 설움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 아들과 의형제를 맺어주면서 이다음 한지붕밑에서 부디 행복하게 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애한테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혜가 어찌하여 남자에들이나 그럴 그림을 그렸는지 리해되시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떠돌아다니던 외로운 처녀애에게 혈육의 정을 안겨준 그 녀인에 대한 고마움이 심중에 뜨겁게 갈마드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을 향하여 말씀을 이

으시였다.

《장군님, 영혜한테 자연풍경을 속사한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 앤 폭포수를 그리고싶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혜와 약속했습니다. 가을엔 원아들과 함께 묘향산등산을 가자고말입니다.》

그날 저녁 수령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와 영혜의 앞날에 대하여 의논하시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원아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였다.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를 대신하여 그해 가을날 단풍이 질어갈 때 원아들을 데리고 묘향산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때 묘향산등산길에서 묶은 영혜의 속사수첩을 보아주시고 그를 화가로 키울 결심을 하시였다.

그이의 류다른 관심속에 최고사령부의 추리나 무밀에서 그림공부를 하던 영혜한테 뜻밖에도 놀라운 편지가 날아왔다. 그 소식을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영혜를 부르시였다. 그의 손에는 박철의 부대에서 온 편지가 쥐여져있었다.

그이께서는 눈물이 배인 편지에서 눈길을 떼시고 흐느끼는 영혜를 달래이시였다.

《영혜야, 슬퍼말아. 여기엔 그가 적구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돌아오지 못했다고만 써있지 희생이 확실하다는 증거는 밝혀있지 않구나. 그러니 혹시 그가 부상당한 몸으로 적구에 남아있을수도 있지. 난 그가 꼭 살아있을것만 같구나.》

영혜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더욱 썸솟듯 흘러내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눈에서 눈물을 가셔주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프시였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오빠처럼 따르던 대대장마저 전사했다는 소식을 받았으니 지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미여지랴.

수령님께서서는 영혜에게 나직이 물으시였다.

《너의 그 대대장한테서 편지는 자주 왔었느냐?》

《예,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대동교가 무사한가고 물었습니다.》

《대동교가?》

그이께서는 최전선에서 싸우고있는 군인이 대동교에 대해 물었다는것이 사연이 있을것 같아 되물으시였다.

처녀는 수령님께 자기들이 작별하던 날의 이야기를 말씀올렸다.

그날 대동교는 전선으로 떠나는 사람들과 자동차들로 붐비였다. 그 물결속에는 박철과 영혜도 있었다. 그들은 대동교우를 걸어가고있었다. 맨가운데 란간에 다달았을 때 박철은 영혜와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영혜, 이제 그만 헤어지자구, 미국놈들을 죽이고 이 땅에 승리의 축포가 오를 때 우리 여기에서 다시 만나자구.》

《알겠어요. 오빠, 우리의 상봉장소는 바로 이 자리라는걸 잊지 말아요.》

《꼭 명심해두지. 상봉장소는 대동교 맨가운데 란간 바로 여기란 말이지.》

둘은 서로 손을 맞잡고 소리내여 웃었다

영혜는 전선으로 떠나는 박철을 이렇게 바래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청춘남녀의 마음을 이어주던 희망의 다리가 지금은 미국놈들의 폭격에 끊어져버린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나직한 음성으로 물으셨다.

《그래 회답은 보내주었나?》

영혜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채 말씀올렸다.

《장군님, 대동교가 끊어진걸 알면 오빠가 피로와할것 같아서 편지를 쓰지 않았습시다.》

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방울져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창걸으로 다가가시였다. 푸른 일생을 한껏 펼친 추리나무가지마다에서 열매가 무르익어가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창밖에 시선을 던진신채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이르시였다.

《그한테 편지를 쓸걸 그랬구나. 미국놈들은 대동교를 끊어놓았지만 승리의 날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의 숨결만은 끊어놓을수 없다는걸 써보냈더라면 그가 큰 힘을 받았을텐데.》

영혜의 흐느낌소리가 고요한 방안에 울렸다.

《영혜야, 울지 말아라. 대대장은 꼭 살아돌아올게다. 용감한 사람은 죽지 않는 법이다.》

그이께서는 처녀를 위안하시기보다 박철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싶으시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로부터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무리 찾아도 소식이 없던 박철은 끝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 살아돌아왔다. 용감성은 죽음을 이겨내는 법이다.

하지만 이 시각, 수령님의 심중은 기쁨보다 무

거음이 더 크시었다. 그가 시신경과피라는 진단을 받은 몸으로 자신의 앞에 나타난것이다.

야전차는 드디어 최고사령부에 들어섰다.

정문쪽에 나와 서성거리고있던 남일이 반색을 하며 달려왔다.

3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는 집무탁을 가운데 놓고 남일과 마주앉으시었다.

전진이 없는 정전담판문제며 그 막뒤에서 벌여지고있는 놈들의 무력증강책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난국에 대해 분석해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지금 아이젠하워는 저들의 〈신공세〉에 큰 기대를 걸고 우리와 합의한 판문점회의사항을 단번에 뒤집어엎을 꾀공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번에 새로 편성한 인민군련합부대들을 전선에 투입하여 강력한 지상전을 벌리는것과 동시에 동서해안방어에 총력량을 집중할것을 결심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군사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합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남일에 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시었다.

《참, 군인휴양소 입소식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

남일은 그이의 뜻밖의 물으심에 한동안 자기를 잊고 서있었다. 놀랍기 그지없었다. 이미전에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과업을 받고 추진시키고있었으나 올해 정초에 급변된 정세가 그로 하여금 군인휴양소문제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볼 틈을 주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수령님께서서는...

《군의국에 과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수령님께서 재차 물으시는 바람에 남일은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지금 동해안지구에 긴박한 정세가 조성된 조건에서 내금강에 있는 군인휴양소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야 할것 같습니다. 치렬하게 벌여질 화력권내에서 휴양소를 운영한다는것은 아무래도...》

그이께서 안색을 흐리시는 바람에 남일은 말을

채 맺지 못했다. 가슴이 조여드는듯 했다. 방금까지도 그는 휴양소운영보다 《신공세》를 격파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것이다.

조국의 운명이 판가름되는 준엄한 시기가 아닌가. 하지만 이 순간 남일은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것임을 깨달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책상우에 놓인 연필을 손에 드시고 푹푹 그루를 박으시다가 이윽하여 남일을 향해 말씀하시었다.

《총참모장동무, 우리가 무엇때문에 피어린 싸움을 하고있습니까. 우리 나라를 다시 침략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는 제 나라를 빼앗기다보니 이국땅에서 온전한 병원이나 휴양소같은것은 지을 생각도 못하고 왜놈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왜놈들의 총에 맞아 희생된 전우들과 눈속에서 얼어쓰러진 동지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총상자리가 썩어들어가면 통줄임통을 톱날처럼 만들어 자기 다리에 《수술칼》을 댔던 그들이 치료조건이 좋은 병원에서 단 한번의 치료라도 받아보고 갔더라면 그리고 풀뿌리를 씹으며 눈길을 헤치느라 병약해진 그들이 아담한 휴양소에서 단 하루의 휴식이라도 즐기고 눈을 감았더라면 내 마음이 이토록 아프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휴양소가 있는데야 무엇때문에 휴양을 미루겠습니까. 휴양소를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 경치좋은 내금강에서 휴양을 하게 되면 우리 전사들은 조국의 귀중함을 더 깊이 절감하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었다.

폐허, 불타는 고지, 피로써 쓴 맹세문...

그이께서는 사색을 흐트리지 않으신채 말씀을 이으시었다.

《나는 어제 후방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팔과 다리에 붕대를 감고 총상자리가 아물지 않아 침대에 누워있는 속에서도 우리의 군인들은 하루빨리 전선으로 돌아가 싸울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눈을 상하여 앞을 못보는 청년까지 전선으로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보다 조국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총참모장동무, 우리가 이런 귀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소홀히 한다면 혁명은 누구를 위해 필요할 것이겠소.

군의국에서 휴양소임소준비와 휴양생모집사업을 잘하도록 과업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계선을 차지한 고사포 한개 편대를 전선방어에서 떼내어 휴양소방어에 돌리는것이 좋겠습니다.》

순간 남일은 숨이 짝 막혀버렸다. 세계전쟁사를 위훈으로 장식한 어느 장군들중에 전선 한가운데 화선휴양소를 짓고 그 방위를 위해 한개 편대의 무력을 떼여낸 신비의 일화를 창조한 명인이 있었던가. 이것은 실로 대용단이였다.

그는 경이에 차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렀다. 그의 눈에서는 봄날과 같이 따스한 빛이 넘쳐 흐르고있었다.

그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의 세계에 남일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작전에 좌우된다고 생각해온 그였다.

아, 나는 언제면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따를수 있을까.

그의 온몸에서는 천재적인 군사적담력과 배짱, 전사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전승의 날을 앞당겨나가는 그이에 대한 경탄과 흠모의 열광이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아- 우리는 정녕 얼마나 위대한분을 모시고있는가!

삼라만상이 추위속에 얼어붙은 깊은 밤이였다.

하늘에서는 굴뚝같이 생긴 하얀 달이 은은한 빛으로 눈에 묻힌 대지를 고요히 감싸주고있었다.

4

《깃- 깃-》

창밖에서 들려오는 까치울음소리에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는 보시던 문전에서 눈을 떼시었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창문에 드리웠던 가림막을 열어젖히시었다.

새벽빛이 집무실 방안으로 흘러들었다. 마당끝

추리나무가지에 까치 한마리가 앉아 극성스럽게 울어대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전쟁과 전선이라는 무거운 공간속에 몸을 잠그시였던 그 깊은 사색의 심연에서 벗어나시여 까치의 울음소리를 정겹게 들으시었다.

《깃- 깃-》

까치의 정다운 지저귀, 새벽, 흰눈, 고요...

《장군님, 까치가 우는건 오작교에서 잠시 만나 구 헤어진 전우와 직녀를 애라게 찾는 소리라고 하겠지요?》

누가 이 말을 했던가.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오작교전설을 눈가에 가랑가랑 눈물이 맺혀 들던 오영혜가 후날 추리나무밑에서 이렇게 말했었다.

누구보다도 오작교전설을 사랑하던 처녀, 그 처녀가 오늘은 수령님께 편지를 보내여왔다. 그 반가운 소식때문에 이 아침 까치의 울음소리가 류별나게 들렸는지도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책상우에서 항공우표를 붙인 편지를 손에 드시었다. 방금전 부관이 가져온 문건들속에 끼여있던 영혜의 편지였다.

그이께서는 또박또박 박아쓴 그의 낯익은 글씨를 읽어내려가시었다.

《아버이장군님!

오늘도 포연덮인 전선길을 다녀오셨을 장군님을 그리며 장군님께 삼가 새해의 첫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운 장군님, 장군님의 품을 떠나온지 벌써 여러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련을 이겨내고있을 조국인민들을 생각하며 미술공부에 전념하고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류학생동무들은 고향에 다녀올 생각으로 방학을 손꼽아기다리고있습니다. 저도 조국에 나가 그리운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기숙사에서 방학을 보내겠습니다.

저에겐 지금도 조국을 떠나는 우리들에게 하시던 장군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애들아, 이제 너희들이 공부를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면 저 폐허우에 미국놈들 보란듯이 살기 좋은 락원을 건설해야 한다. 웅장한 집들과 공장들 그리고 훌륭한 학교와 다리들을 말이다.〉

장군님, 전 그래서 건축미술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면 전교적인 소묘전시회가 열립니다. 전 벌써 전시회에 내놓을 그림을 선택하였습니다. 소묘제목은 <강반의 다리>라고 달았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후날 조국의 강반

에 일떠설 때 장군님께서 그 다리에 이름을 달아 주십시오. 그날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장군님, 전선길에 부디 건강하십시오.

먼곳에서 오영혜 드립니다.》

《용타, 영혜야!》

수령님께서도 최고사령부를 떠나지 않겠다고 편지를 쓰던 영혜가 이렇게 성장해가고있는것이 못내 기특하시였다. 친위중대에서 생활하던 모든 원아들이 지금 조국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공부하고 있을것이였다.

그이의 눈앞에는 작별을 앞두고 원아들과 만나 시던 그 여름날이 삼삼히 어려오시였다.

×

작전회의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추리나무밑에서 그들과 반가운 상봉을 하시였다.

《다들 떠날 준비를 갖추었는지?》

《예. 장군님께서 옷이랑 학용품이랑 다 보내주셔서 부모있는 동무들보다 준비를 더 잘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장군님과 헤어지는 서운함을 내색 않고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씩씩하게 대답올렸다. 그런데 맨뒤에 있는 영혜만이 고개를 숙인채 입을 다물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얼마전에 받은 박철의 그 소식때문에 그의 얼굴에 그늘이 진것이라고 생각하시며 우스개소리로 영혜에게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우리 영혜는 준비를 갖추지 못한게로구나.》

그런데 영혜의 대답은 예상밖이였다.

《장군님, 전 류학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대답이 자못 놀라우시였다. 그가 얼마나 그림공부를 하고싶어했던가. 더구나 그가 화가가 되기를 바란것은 그의 아버지의 희망이였고 김정숙동지의 생전의 기대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도 영혜에게 줄 화구를 사들고 오시며 것처럼 기뻐하시던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잊을수 없으시였다.

《난 네가 제일 기뻐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부를 그만두겠다니 무슨 말이나?》

영혜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 맑은 눈물방울이 반짝 빛났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결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작별을 앞두고 서운한 감정에 사무쳐있

을 때 영혜의 대답은 대번에 원아들의 마음을 울려놓았다.

《우리들도 여기에 남겠습니다. 공부는 전쟁이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장군님,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원아들은 저마다 울먹한 목소리로 수령님께 말 씀드렸다.

《허, 이거 우리 영혜때문에 다 큰 사람들이 울 보가 되였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그들을 둘러보 시였다.

《이처럼 싸움이 한창인 때에 너희들을 류학 보내는것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꼭 이기기때문이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미국놈들이 파괴한 이 땅을 누가 일떠세우겠니? 그것은 다름아닌 앞날의 주인들인 너희들이 일떠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헤어지기가 섭섭 하지만 떠나보내는거다. 알겠느냐?》

그이의 말씀에 원아들은 하나 둘 밝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우리 영혜의 얼굴에 웃음이 어리니 나도 기쁘구나.》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두가 소리내 여 즐겁게 웃었다.

《그런데 난 네가 그 뚱뚱한 몸으로 레닌그라드 까지 꽤 가낼수 있겠는지 그게 걱정되는구나.》

《아이참, 그래도 전 달리기경기를 하면 맨앞에서 뛸수 있습니다.》

영혜는 당장이라도 자신이 있다는듯 큰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그에게 물으시 였다.

《그럼 어디 나하고 내기를 해볼가? 영혜가 이 기면 다시는 부관들이 〈뚱보〉라고 부르지 않게 하지.》

《어마나, 제가 어떻게 장군님과 내기를...》

《왜 겁이 나느냐?》

수령님께서 재차 물으시였다.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기면 부관동지들이 저한테 〈뚱보〉라는 별명을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허, 영헨 별명을 불러도 싫어 안한다면서?》

그이께서는 중떠보시는 어조로 영혜에게 말씀 하시였다.

《사실은 그렇게 부르는것이 싫습니다.》

《하하하...》

웃음판이 터졌다. 어느새 추리나무밑에 모여든 최고사령부 성원들이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린 것이었다.

《그럼 약속하지. 영혜가 이기면 부관동무들이 다시는 별명을 못 부르게 하겠다.》

영혜의 눈이 기쁨에 빛났다.

《장군님, 정말입니까? 그럼 달리기경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처럼 차례지신 한토막의 휴식시간이지만 단발머리처녀와 달리기경기를 하시게 되었다. 경기소식은 발에 날개가 달려 어느덧 추리나무밑에는 회의에 참가하러 왔던 전선부대의 지휘관들과 군관들로 흥성이었다.

앞길에는 출발선이 그어지고 경기심판원이 추천되었다. 심판을 맡은 남일이 수령님께 말씀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 달리기주로를 어디로 정하시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영혜를 돌아보시었다.

《영혜의 의향은 어떠냐?》

그이의 물으심에 영혜는 지름길을 가리켜드렸다.

《장군님, 이 지름길로 해서 맨 마지막추리나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까.》

《난 반대다. 이왕 달리기경기를 할바엔 땀을 좀 흘려봐야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나서 산봉우리쪽에 눈길을 주시었다.

《저기 보이는 산봉우리정점을 돌아오는것이 좋을것 같구나. 그래, 자신이 있느냐?》

그이의 물으심에 영혜는 금시 당황해졌다. 아름드리나무가 뻗아 들어찬 숲에는 잡관목들과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길을 메우고있었다. 산봉우리에도 눈을 더듬던 영혜의 얼굴에 생기가 피어났다. 언젠가 나리꽃을 꺾으러 올라갔을 때 낮익혀두었던 오솔길이 그의 시야에 안겨들었던것이다. 출로를 찾은 영혜는 큰소리로 대답올렸다.

《장군님, 자신있습니다.》

《총참모장동무, 그럼 경기를 시작합니다.》

잠시후 출발신호가 내렸다.

영혜는 이미 눈에 익혀든 오솔길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우불구불 뻗은 산길을 따라 가쁜숨을 몰아쉬며 달리던 영혜는 산중턱가까이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까지 뒤짐을 취신채 출발위치에 그냥 서계시는 것이었다.

영혜는 그이께서 자기에게 앞자리를 양보해주

려고 그러시는줄 알고 두손을 입에 모아 소리쳤다.

《장군님, 어서 절 따라잡으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혜의 웨침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꺾꺾 웃으시고는 달리기 시작하시었다.

영혜는 뒤질세라 다시금 산봉우리를 향해 달려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영혜가 어느덧 산봉우리에 올라섰을 때 수령님께서서는 어느새 정점을 돌아 산아래쪽으로 내려가고계시었다.

(아니, 장군님께서 벌써...)

영혜는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그이께서 달리시는 산턱을 바라보았다. 크고 작은 바위들과 잡관목이 뻗아 들어찬 산벼랑사이로 수령님께서서는 나는듯이 달리고계시었다.

영혜는 숨이 턱에 닿았으나 숨돌릴틈도 없이 종주목을 부르짖고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가 출발위치에 돌아왔을 때 어느새 출발선을 차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그를 기다리고계시었다. 영혜가 울상이 되는것을 본 지휘관들과 원아들이 와- 폭소를 터치며 그를 맞이했다.

영혜는 자기가 졌다는것을 깨닫자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숨을 채 가라앉히지도 못한채 수령님께 응석을 부리듯 말씀올렸다.

《장군님, 경기를 다시 합시다. 전 산길을 따라 달렸는데 장군님께서서는 벼랑을 타고 넘으시고 잡관목을 헤치며 달리셨으니 제가 진겁니다.》

그의 말에 주위에는 더 큰 웃음판이 터져올랐다. 누구도 그 경기가 잘못된 경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날 친위중대원들은 조국을 떠나기에 앞서 수령님으로부터 자기 아버지들의 투쟁이야기를 가슴에 새겨안았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그들의 아버지들은 좋은 길보다 원쑤를 치는데 더 유리한 산길을 택하여 행군도 하고 전투를 조직하여 전투에서 항상 이기군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조국앞에 걸머진 자기들의 임무를 생각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애들아, 너희들은 전쟁이 한창인 때에 무엇때문에 다른 나라에 공부하러 가는지 알아야 한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너희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파괴된 공장과 거리, 마을들을 일떠세워야 한다. 그러니 결국 직선주로를 달리는셈이지.》

영혜가 오늘 경기에서는 주로를 에돌았지만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위해서는 직선주로를 달릴수 있겠지?》

《장군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장군님말씀을 명심하고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눈빛을 초롱초롱 빛내이며 씩씩한 대답을 드리던 영혜며 친위중대원들의 모습을 정겹게 그려보시었다.

문득 방안의 고요를 깨치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그이께서는 기다리고계셨던듯 송수화기를 드시었다.

《김일성입니다. 아, 라즈바예브동무입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나도 건강합니다. 그렇습니까? 와실리에브박사가 직접 수술을 맡아한단 말이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술회피자를 요구한다구요? 가족을 말입니까?》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

그때 후방병원에서 돌아오신 수령님께서서는 대사관을 통해 알아보시고 박철을 모스크바로 보내도록 하시였었다. 그 박철이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립회할 가족을 찾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수술을 책임질 가족이 없는것이였다. 혼자몸으로 조국에 나와 영혜의 도움으로 군복을 입은 청년이였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쳐드시었다.

《라즈바예브동무, 그에게 녀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그가 모스크바로 갈것입니다. 허허... 최고사령관도 매 개인의 운명까지 직접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요. 고맙습니다. 대사동무의 건강을 바랍니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놓으시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까치의 울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있었다.

5

레닌그라드발-모스크바행 열차로 야로슬라브역에 내린 영혜는 조선대사관에서 나온 차에 올랐다. 차가 모스크바교외의 어느 병원앞에 멎어섰을 때 위생복을 걸친 사람들이 그를 소독수냄새가 코를 찌르는 수술실로 안내하였다. 침대우에는 눈에 봉대를 감은 사람이 누워있었다.

그는 가슴이 세차게 방망이질하는것을 느끼며 침대가까이로 다가갔다.

《오빠?》

하지만 목이 메여올라 목소리를 낼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린 그 목소리는 아득한 추억의 공간을 날아넘어 어린 소녀와 소년이 살던 추너났은 오두막으로 메아리치는듯 싶었다. 인정의 쪽배에 올라 눈물의 포구를 떠나던 그날부터 웃음많은 처녀로 자란 시절까지 마음속에서 떠난적 없던 오빠, 그 오빠가 지금 영혜 자기의 앞에 꿈마냥 나타난것이다.

그는 눈가에 두손을 가져다댄채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영혜... 영혜가 맞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다정히 영혜를 불렀다. 외로울 때면 때없이 그의 마음속 문을 열고 다가가

정을 쏟고 힘을 주던 친근한 그 목소리.

《저예요. 영혜예요.》

영혜는 자기를 향해 더듬는 박철의 손을 눈물 에 젖은 자기의 두손으로 꼭 감싸쥐었다.

《영혜, 이게 정녕 꿈은 아니겠지. 응?》

《아니예요. 꿈이 아니예요.》

《전선에서는 피흘리며 싸우는데 나 같은게 뭐라고... 장군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영혜까지...》

박철은 목이 메여 더 말을 못했다.

영혜도 그의 손을 감싸진채 목메인 소리를 했다.

《오빠, 수술을 이겨내세요. 장군님께서 우릴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꼭 이겨낼거예요. 그러면 저 밝은 해님을 다시 보게 될거예요. 꼭 보게 될거예요.》

영혜는 눈길을 들어 창가에 부서져내리는 해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정녕 따사롭고 눈부신 해빛이였다.

불시에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였다.

아침이면 최고사령부의 송림우에 떠올라 아낌없이 해살을 뿌려주던 해님, 그 포근한 해살에 잠을 깬 까치가 추리나무에 날아와 우짖곤 했었다.

그의 마음속에 오작교를 놓아주던 까치...

(장군님, 지금 제 마음속엔 까치가 지저귀고있습니다. 장군님의 사랑을 전하는 까치의 노래소리를 듣고있습니다.)

해별이 포근하게 비쳐드는 겨울날이였다. 하늘에서는 태양이 눈부시고 창문밖 정원수의 키높은 가지우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있었다.

×

바로 이날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는 적들의 《신공세》 기도를 파탄시키기 위한 작전회의가 금방 시작되였다.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는 남일로부터 정황을 보고받으시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지금 태평양상에 뜬 두척의 항공모함이 우리를 향해 키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포비행장과 부산, 오키나와비행장들에서 전투폭격기들이 동서해안상공으로 날아돌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지도우에 허리를 굽히시고 화력권이 형성될 곳을 가늠해보시었다. 그이께서 연필을 갖다대시는 전선지구들에는 우리의 군인들과 각종 포들과 땅크들이 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이제 그들이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타격으로 결사전을 벌린다면 조선을 삼켜보려는 미제의 망상은 산산이 깨어질것이다.

장병들이여,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라.

...따르릉.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연필을 놓으시고 송수화기를 드시었다.

《김일성입니다. 아, 모스크바에서요? 수술이 성과적으로 끝났다. 환자가 수술을 견디어냈단 말이지요. 환자와 수술팀회자가 나한테 인사를 보냈어요.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동무들, 두눈에 부상을 입고 영영 실명을 당할 뻔 했던 한 대대장동무가 수술을 성과적으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전쟁4계단행정에서 또 하나의 큰 작전이 시작되는 력사적인 시각이었다. 이 엄숙한 시각에도 한 전사가 건강을 회복할수 있다는 소식을 받자 그리도 기뻐하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아, 우리 장군님은 바로 이런분이시다.

남일은 이 순간 우리의 군사작전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무엇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가를 다시금 심장깊이 깨달았다.

이 순간 자기의 키도 우쭐우쭐 자라고 심장도 더 커지는듯싶었다.

남일은 주먹을 힘껏 움켜쥐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다시금 붉은색연필을 드시며 남일에게 말씀하시었다.

《총참모장동무, 각 부대들에 명령을 주시오. 모든 해안포와 비행기들은...》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지도의 점과 선들 위로 붉은 화살표를 힘있게 그어나가시었다.

6

그 시각 수령님을 모신 차는 전선으로 달리고 있었다. 수령님께서 동해안쪽에 있는 해안포병들을 찾아가시는 길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왜서인지 오늘 무척 기분이 좋으시었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산천을 바라보시며 코노래를 부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옆에 앉은 남일을 돌아보시었다.

《참, 내금강화선휴양소에서 입소식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전사들이 좋아할게요. 얼마나 좋소. 전사들은 전쟁때도 휴양을 하고... 참, 내 그 소식을 알려주지 못했구만. 모스크바에 간 그 대대장말이요. 눈에서 봉대를 풀었다더구만. 당장 퇴원하겠다고 한대요...》

《그렇습니까?》

남일은 수령님께서 왜 그리도 기분좋아하시는지 깨닫자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영혜가 좋아할게요. 오작교전설을 사랑하던 애

이지. 허허허 그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대동강에 멧있는 다리를 놓겠대요.》

《예? 다리를 말입니까?》

《그렇소. 그 대대장이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떠날 때 영혜와 약속했대요. 승리하는 날 그와 대동강에서 만나자고말이요. 그런데 놈들의 폭격에 그 대동강이 끊어지지 않았소. 그게 분해 영혜는 대대장에게 편지도 미처 못 썼더랬소. 영혜는 지금 끊어진 대동강을 생각하며 공부를 하고있소. 이제 조국에 돌아오면 꼭- 제손으로 훌륭한 다리를 놓을거요. 허허, 〈사랑의 오작교〉를 놓는셈이지. 안그렇소? 총참모장동무.》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남일은 그이의 호탕하신 웃음소리를 온몸으로 감수하면서 대동강에 일떠설 《오작교》를 그려보았다. 그것은 정녕 크나큰 사랑에 떠받들린 다리 일 것이었다.

《사랑의 오작교》라... 전설속의 오작교는 칠월칠석날 생겼다가 없어진대지만 수령과 전사간의 사랑의 뉴대, 혈연의 뉴대는 영원할 것이다.

남일은 수령님을 우러르며 심장으로 꿰찼다.

(최고사령관동지, 우린 지금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이렇듯 큰 사랑이 전쟁의 이 엄숙한 겨울을 몰아내고 승리의 봄을 안아올것입니다.)

그것은 남일의 진정한 마음속 꿰침이었다. 그리고 전화의 나날에 남일 자신이 그이의 곁에서 직접 체험하며 확신한 감정의 분출이었다.

정녕 우리 인민, 우리 전사들을 위하여 기울이는 것처럼 세심한 사랑과 심장과 심장으로 주고받는 뜨거운 정으로 하여 이 전쟁에서 나아린 병사가 영웅이 되고 삶이 죽음을 타승하는 기적이 일어날수 있는 것이었다.

남일은 문득 최고사령부 집무탁에 놓여있던 평양시복구건설설계도를 생각했다. 포연자욱한 방공호속에서 점과 선을 그으며 완성해냈다는 설계가들의 희열에 넘친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승리의 《오작교》를 설계하고있는 영혜의 모습도 떠올랐다.

세계여, 들으라. 우리는 지금 수령의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승리를 마련해가고있다.

남일은 진정으로 믿어마지 않았다.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미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나라로 세계전쟁사의 한페지에 빛나게 기록될 것이라는것을.

...위장망을 드리운 야전차는 전속으로 전선길을 달리고있었다. 끝없이 끝없이...

위대한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고있는 전선길이였다.

《오늘이 태양절이 아닙니까》

몇해전 태양절날이었다.
최전연의 어느 한 부대일군들과 군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고있었다.
그것은 태양절을 맞으며 부대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맞을 영광의 시각을 앞에 둔 때 안개가 잔뜩 끼였기때문이었다.
안개는 몽게몽게 타래치기도 하고 묵화솜무지처럼 몽치기도 하면서 좀처럼 걷히지 않았다. 어쩌면 중단 말인가. 일군들과 군인들의 가슴가슴은 이런 날 그이를 부대에 어떻게 모시랴 하는 생각으로 하여 점점 무거워졌다.
그런데 오전 9시가 좀 지나서였다. 갑자기 주위에서 신기한 자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처럼 앞을 가려보기 힘들게 흐르던 젓빛안개가 서서히 사라졌던것이다. 이어 하늘에서 눈부신 태양이 밝은 빛을 뿌리며 대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바로 그 시각.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차가 부대의 어느 한 장소에 도착하였다.
일군들과 병사들은 밝은 해빛이 차넘치는 주위를 둘러보며 환성을 질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대덕산초소 시찰 때 하늘이 부리는 천지조화를 심장깊이 체감한바있는 부대장은 그때처럼 반복되는 이 자연현상을 두고 그이께 더없이 매혹된 자기의 심정을 어느 한 기회에 이렇게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께서 오시니까 날이 맑게 개였습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오늘이 태양절이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겸허하신 말씀을 들은 부대장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세차게 끓어올랐다.
아버이수령님을 위해 세계가 경탄하는 수많은 업적을 이룩해놓으시고도 하나의 신기한 자연현상을 대하시면서까지 수령님의 위인상과 먼저 결부시켜 생각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앞에 동행한 일군들은 숭엄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이날 하늘의 태양은 류달리 따스한 빛을 뿌렸다.

박봉운

봄빛 넘치는 대지에서

채동규

농장벌 그 어데나
봄빛이 한껏 짙어가는 계절
올해의 4월은 왜 이다지도
농민의 가슴에 유정한 추억을 부르는가

밀보리 푸르른 들길을 걸어도
푸근푸근 부푼 흙 한줌을 쥐여보아도
아, 한평생 농사를 위해
그리도 마음쓰신 수령님 생각

만경대 농가에서 탄생하시여
이 땅과 우리 농민들과
그토록 깊은 인연 맺고 사신분
인민이 잘 살길 대지우에 펼쳐주시려
논머리 찬이슬 제일먼저 떨어주시던분
들가에서 새벽을 제일많이 맞으시던분

못 잊어라
나무리벌 애국농민에게
구수한 담배도 허물없이 권하시던 모습
농민들과 어울려 밭머리 식사도 즐기시고
들풍경 배경삼아 사진도 찍으시던 그 모습

정녕 못 잊어라
이 땅을 류달리 사랑하시여
쉽없이 걷고걸으신 로고의 자욱자욱
손수 벼이삭 알수까지 헤여보시며
차근차근 농사법도 가르쳐주시며
서늘한 들바람에 옷자락 날리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자신의 심장을 불태우시여
대지에 빛과 열을
곡식과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이수령님
이 땅에 남기신 자애로운 미소
4월의 봄빛으로 흘러넘쳐라

아, 그 품 떠나 못 사는
이 땅은 영원한 수령님의 땅!
날마다 수령님 이야기 뜨겁게 나누며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수령님 노래 부르며
가장 깨끗한 마음들이 들을 가꾼다
가장 열렬한 가슴들이 대지를 지킨다

눈비에 젖으시며 후더운 땀에 젖으시며
수령님 걷고걸으신 땅
이 땅우에 해마다 알찬 이삭 가꾸어
위대한 선군태양 더 높이 받들고저
농민들 가슴마다 불이 일거니

아, 장군님 길이 보살피시여

답시

앞날이 찬란한 사회주의대지우에
수령님의 축복의 미소가 흐른다
풍요한 오평백과 물결우에
새날의 찬란한 려명을 불러온
태양의 빛발
대지에 넘쳐흐른다!

수령님과 관리위원장

박기석

하냥 자랑넘쳐라, 녀성관리위원장
친아버지앞에
세간난 새살림 펼쳐보이듯

-수령님! 산등성 저 넓은 풀판은
우리 농장 염소방목집니다
큰 염소 작은 염소 모두 합쳐
삼백마리가 훨씬 넘습니다

들을 보시면
들가득 춤추는 살진 논벼들-
산을 보시면
산가득 옥실거리는 염소떼-
사뭇 기쁘시구나 우리 수령님
한평생 소원이
이 땅 여기서 다 풀리시는듯

-멋있어, 여긴 진짜 멋쟁이야
농사도 멋지고 축산도 멋지고...
관리위원장! 나도 한번 여기 와
관리위원장을 하고싶구만

가슴뭉클 젖누나 관리위원장
어쩔 수령님께서...
아, 어쩔 인민의 아버이 수령님께서...

농민들 모두가

가사

남부럽지 않게 잘 살수 있다면
우리 수령님 관리위원장이 되시련다-
관리위원장 되시여
모도 뜨시고 가을걷이도 하시련다

농민들 모두가
비단옷 입고 기와집 쓰고 살수 있다면
우리 수령님 관리위원장이 되시련다-
봄이면 뽕밭 뽕잎도 따시고
눈내리는 겨울철이면
그렇다 피박골 기와막 숯불도 지피시련다

아 농민들 저 하늘의 별을 소원한다면
진정 우리 수령님은
하늘만리 올라서라도 별을 따다주실분!
농민들 우리 저 밝은 달우에 오르고싶다면
정녕 우리 수령님은
저 하늘에 사다리를 놓아
자신의 한평생을 고여주실분!

수령님 다녀가신 그날밤
참말로 못 잊을 좋은 꿈 꾸었네 관리위원장
수양버들 우거진 농장관리위원회
버들숨 하얀 트랙에 앉아
우리 수령님
한장, 또 한장... 농장장부책 번져가시는

위대한 동지

문기창

혁명의 먼길을 뜻으로 따르며
혈육보다 귀중한 동지를 알았네
전사를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열혈의 동지는 아 우리 장군님

사랑의 한품에 천만이 뭉치여
생사운명 같이 할 동지가 되였네
전사를 자신처럼 믿어주시는

의리의 동지는 아 우리 장군님

신념의 동지로 의리의 동지로
운명도 미래도 그품에 맡겼네
전사를 자신보다 아껴주시는
위대한 동지는 아 우리 장군님

아 장군님 그 품은 동지애의 세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태양이라 노래함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태양찬가》에 대하여-

최연경

수령형상작품 창작에서 나서는 최대의 과업은 수령의 위대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빛나게 형상하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이다.》

수령형상작품에 대한 논의에서도 마땅히 수령의 위대성형상에서 그 어떤 새로운 특색있는 기여를 하였는가가 기본으로 되어야 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태양찬가》(남대현 작)는 일련의 귀중한 경험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재일조선인운동사에 대한 진실한 서사시적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태양찬가》는 재일조선인운동사,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령도력사와 그 불멸의 업적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폭넓고 진실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재일조선인운동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웅근 하나의 력사적시기를 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주기에는 수령형상문학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뜻깊은 일이다.

수령형상창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생활분야를 새롭게 개척했다는 바로 여기에 소설이 가지는 가장 큰 혁신적의의가 있다.

세계현대문학사를 둘러보아도 한 민족의 해외교포운동사를 이처럼 폭넓게 반영한 작품은 아마도 없는듯싶다.

이것은 진정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사상을 창시하시고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해외교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당당한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내 나라, 내 조국 문학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궁지로운 력사적사변이다.

장편소설 《태양찬가》는 해방후부터 조국해방전쟁시기까지, 구체적으로는 공화국창건으로부터 주체44(1955)년 5월 25일 첫 주체형의 해외교포

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창립되기까지의 력사를 실재한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소설에는 실재한 사건들은 물론 수령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인물인 한덕수로부터 윤덕곤, 현우, 김운해, 리계백, 리진규, 김훈, 리십철 그리고 박용, 로재호, 원철 등 력사에 실재한 원형인물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 허구의 인물이란 리지영과 박영신뿐이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실재한 력사적사실을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하려는 작가의 창작의도에 기인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전마선이나 다름없는 쪽배, 자그마한 어선에 몸을 싣고 풍랑사나운 현해탄의 거세찬 파도를 헤치며 조국으로 찾아온 한덕수일행을 얼마나 벅찬 영광이 기다리고있었던가.

그 길은 진정 한덕수에게 있어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리던 열망의 길이였다.

10여년전 단나추도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을 때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손에 무장을 잡으리라 간도로 향했던 길, 그리고 해방된 이듬해 봄에는 갓 태어난 조련이 나아갈 앞날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고저 결심을 굳혔던 그 길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공화국창건 재일본조선인총하단으로 친히 불러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국으로, 그이의 품으로 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정녕 한덕수 한사람의 운명만이 아닌 전체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운명적인 길이였다.

아버지수령님과의 첫 상봉에서 한덕수가 받아안은 감동과 영광은 열광의 정을 안고 꿈결에도 그리고 또 그러보던 그 모든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하는것이였다.

그것은 진정 찬란하고 위대한 태양의 모습이였고 그 태양에서 눈부시게 빛발쳐나오는 밝은 빛과 따사로운 별이였다.

상봉의 첫 순간 한덕수의 심장을 통채로 틀어잡고 울게 한것은 자기 하나만이 아닌 재일동포 모두에 대한 사무치게 따뜻한 친아버지의 동포애의 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두고 《세상에 제 자식이 남의 집에서 구박을 받으며 사는것을 보고도 그대로 참는 부모는 없을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재일동포들이 몸은 비록 일본땅에 있어도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머리를 들고 떳떳이 살아갈수 있게 하는것을 자신의 동포애적도로, 의무로 여기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죽을 쑤어 나누어먹더라도 동포들을 데려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이 뜨거운 아버지사랑만으로도 가슴속 걱정을 누를길 없는데 한덕수가 미처 목매여 흐느낄새도 없이 그이께서 주신 가르치심은 더욱 놀랍고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일동포들은 다른 나라의 해외교포들과는 철저히 다르다고 하시며 그들은 스스로 조국을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일제놈들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가 놈들에 의해 되돌아올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시였다. 하기에 그들은 마땅히 자기의 권리를 일본당국에 요구할수 있으며 또 요구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제 자식을 남에게 맡길수 있겠는가, 우리는 결코 그런 무책임한 부모로는 될수 없다 하시며 재일동포들의 운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조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럼 어떻게 책임지는가? 그것은 바로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일본땅에서 사는 재일동포들이지만 그들을 조국의 두리에 튼튼히 뭉쳐세우는것, 이것이 곧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는것으로 되며 재일동포들 역시 자기의 운명을 조국과 함께 하는것으로 된다는것입니다.

《조국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치자!》 이것이 바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총적방향이며 기본과업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모든 재일동포들을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조련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재일조선동포들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나라 혁명을 저대동강에 비유한다면 조국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강의 본류가 되는셈이고 재일조선인운동은 저쪽에서 흘러드는 합장강처럼 지류라고 할수 있다, 언제나 지류가 본류에 합류됨으로써 하나의 거류를 이루듯이 일본에서 벌어지는 재일조선인운동은 철저히 조국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본류와 지류!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한덕수의 마음은 우리 수령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재일동포들의 앞길을 이처럼 명철하게 밝혀줄수 있단 말인가 하는 크나큰 감동과 함께 조국의 진군에 발을 맞추어 조련을 더 힘있게 떠밀고나가기라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소설은 일본으로 돌아간 덕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새로운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얼마나 눈부신 투쟁을 벌려나갔는가를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그것은 그대로 죽음을 각오한 결사의 적후투쟁이였다.

장편소설 《태양찬가》는 특히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반동들의 폭압과 사대주의자, 민족허무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민전이 붕괴의 운명에 직면했을 때 위대한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참으로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그 형편이 얼마나 엄중했던지 철과도 같은 한덕수마저 벼랑끝에 서있는 심정이였고 재일동포들의 운명은 경각에 다달은듯 했다. 정녕 꺼져가는 재일조선인운동을 다시 불려일으킬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듯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 위대한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말하자면 일본혁명을 위한 재일조선인운동로선을 조선혁명을 위해 복무하는 로선으로 전환하자는것입니다.》

로선전환! 그것은 재일동포들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인것만큼 일본에서 산다하더라도 조선혁명을 해야지 남의 나라 혁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실로 일시적인 전술적전환이 아니라 재일조선인운동을 재생시키는데 있어서 운명적의의를 가지는 근본적인 로선전환이였다.

소설은 준엄하고도 영광에 찬 로선전환의 역사적과정을 감동깊은 극적화폭으로 빛나게 그려보이고있다.

로선전환방침이 가지는 그 절대의 진리성은 그것이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그리고 일본공산당의 책동을 짓부시고 역사적인 주체44(1955)년 5월 25일 위대한 수령님의 해외교포사상의 빛나는 산아이며 인류해외교포력사에 혜성파도 같이 나타난 첫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인 재일조선인총련합회의 장엄한 탄생으로 빛나게 확증되였다.

위대한 태양의 찬란한 빛발아래 힘차게 전진하

는 조국의 본류와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지류가 거세찬 거류에 하나로 합류한것이다.

소설은 그 거대한 의미를 이렇게 상징하고있다.

《환히 트인 앞길우에는 푸른 하늘이 가없이 펼쳐져있는데 그 하늘 한복판에는 유난히 밝은 태양이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태양은 누리를 비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태양찬가》는 국제로동운동과 세계혁명의 공인된 수령으로서의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정면에서 형상하고있다.

이것 역시 수령형상창조에서 대담하고 특색있는 혁신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도 수령형상작품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예술의 비범성, 풍모의 숭고성으로 하여 세계혁명을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라는 사상이 강조되어왔다.

여기서 인상깊게 기억에 떠오르는것이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서 국제당파전원 류현민이 국제당에 보낸 보고이다.

그는 여기서 자신이 유격근거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실재한 사실과 **김일성** 동지를 만나뵈고 충격적으로 받아안은 감동에 대하여 상세히 전하고나서 이렇게 썼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중추로 하여 탁월한 리성과 다감한 감성, 철저한 원칙성과 적에 대한 비타협성, 대해같은 포용력,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예지... 이 모든 훌륭한 자질들이 결합되어 령도자로서의 그의 인격의 총체를 이루고있다.

그는 조선의 피어린 력사와 인민대중이 낸 유일무이한 걸출한 령도자이다.

동지들, 놀라지 말라!

만민이 흠모하며 따르는 **김일성** 동지는 올해 22세의 청년장군이다.

청년장군!

청춘처럼, 봄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고, 생동하고 강의한 령도자!...》

류현민의 이 보고는 생활속에서 스스로가 발견한 위대한 진실인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 모두의 심정을 절절하게 대변한것으로 하여 세월의 락엽속에 묻히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뜨거운 추억속에 생동하게 살아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대하고 유일무이한 조선의 젊은 령도자에 대한 감동이고 흠모심

이었다. 그리고 국제당파전원이라 하지만 류현민은 어디까지나 조선사람인것이다.

그런데 장편소설 《태양찬가》에서는 그 폭과 깊이를 훨씬 초월하여 그리고 객관적으로 실재한 력사적사실을 통하여 국제로동운동의 공인된 수령으로서의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정면으로 대담하게 형상하고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진리를 세계에 대고 소리높이 말해야 할 력사의 순간에 살고있다. 아니,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했어야 할 력사의 진실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열병광장》에 반영되어있는바와 같이 나라가 갓 해방된 빈터에서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을 피로써 도와주신 그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력사적 사실이야 그 얼마나 많은것인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진실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몫이다.

소설은 재일조선인운동과 일본공산당과의 관계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당시 일본공산당은 일국일당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은 응당 일본공산당의 령도를 받는 일본혁명의 일환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어는 재일조선인들을 일본정권의 타도를 위한 무모한 무장투쟁의 돌격대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하여 5.1절 피의 메데사건까지 빚어지고 수많은 무고한 조선동포들이 희생되었다.

정세는 참으로 엄중하였으며 그것이 비록 일본땅에서 벌어진 사태였으나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문제를 일국일당제원칙과는 관계가 없는 민족문제로 보시고 우리의 처지와 립장으로부터 민족의 기본정표를 기성리론에서와 같이 거주지역이나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아니라 혈통과 언어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투철하게 밝혀주시였다. 남녘동포들은 말할것도 없고 일본에서 사는 재일동포들도 우리와 한피줄을 잇고 조선말을 하며 조선의 녀를 간직하고 사는 한겨레인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일조선인운동문제는 일국일당원칙에 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우리나라의 민족문제라고 보시였다.

이것은 일찌기 해외교포운동사에 있어본적 없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것이었다. 하여 이러한 립장에서 천명된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전환방침은 일본공산당지도부나 그에 맹종해온 민대파는 물론 지어는 김운해와 같은 민전일군들까지도 지금까지 해외에서 사는 교포들이 자기 나라 혁명

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로선을 세운 실례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재일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미의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설사 그 누가, 그 어느 나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또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립장을 바꾼다 해도 우리는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행에 처한 동포들의 운명을 뒤전에 밀어놓고 우리가 무슨 원칙을 지키고 도리를 지킨단 말입니까? 일본공산당의 지도자들도, 아니 그 누구도 우리 동포들의 피를 우리처럼 귀하게 생각할수는 없습니다. 혈육들의 피는 혈육이 지켜야 합니다!》

혈육들의 피는 혈육이 지켜야 한다, 이 얼마나 그 뜨거운 동포애로 하여 가슴끓이게 하는 명언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런 비장한 결심을 하시고 이 문제를 중국에 망명하고있는 일본공산당 수뇌부와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공산당 도꾸다서기장에게 로선전환방침을 알리는 편지를 쓰시었다. 이리하여 사소한 문제까지도 중국당과 조선당의 긴밀한 연계와 동의밑에 진행하는 일본공산당 수뇌부에 의해 그 편지내용은 중국의 모택동과 조선의 쓰딸린에게 전달되었던것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편지가 그들에게 불려 일으킨 놀라운 반향과 감동에 대하여 역사적사실 그대로 참으로 통쾌하게 전달하고있다.

주은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견해에 대한 모택동의 전적인 동감의 정과 커다란 감동에 대하여 전해드리면서 《모택동동지는 2차세계대전전에는 제기되지 않았고 제기될수도 없었던 새로운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김일성** 동지의 탁견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라고 수령님께 말씀드리었다.

모택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그 뜨거운 동포애, 민족애에 진심으로 감동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재일조선인문제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애써 모색하고있던 화교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고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였다.

직접 도꾸다가 전달해온 쓰딸린의 감동은 더욱더 이례적인것이였다.

《쓰딸린동지 역시 전적인 공정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첨부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국제공산주의운동을 틀어쥐고나갈 정치가는 바로 조선의 **김일성** 동지라고 말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력사의 사실이며 진실이기도 하다.

당년 40대의 걸출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세출의 위인상을 이 사실보다 더 정당하게, 더 정확히 증언하기는 어려울것이다.

모택동이나 쓰딸린은 물론 대국의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시하는것은 그들이 대국의 지도자들이었다는것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놓고있던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높은 혁명의 지도자들이라는데 있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일본공산당수뇌부자체의 크나큰 감동과 그에 따르는 당의 로선전환방침이였다.

일본공산당 당수 노사가 산조는 우리 대표단을 찾아와 45년말 자기를 만나주셨을 때 그리도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지니시고 해방전에 남다른 고생을 한 재일동포들이기에 더욱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며 옆에서 잘 도와달라고 만날적마다 부탁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자책속에 되새기였다.

그때 그는 그러한 **김일성** 동지를 대하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이처럼 뜨거운 지도자가 있었던가 하고 국제당에서 만나본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상기해보았었다.

이러한 진정을 가지고 노사가 산조는 말하였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새로 깨닫게 된것은 재일조선인문제만이 아닙니다. **김일성** 동지의 편지가 재일조선인운동의 전환만이 아니라 우리 당이 이때까지 견지해온 무장투쟁로선을 비롯한 모든 로선들을 새로운 눈으로 따져보지 않을수 없게 했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김일성** 동지의 로선전환방침이 일본공산당자체의 로선전환의 시발점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입니다.》

세계정치의 원로로서의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론증하는데 여기에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물론 이 모든것은 다 력사적사실이다. 그러나 력사속에만 있던 이 사실들을 현실로 생동하게 재현하여 그것을 영원한 력사의 진실로 새겨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공로이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에 깃들어있는 수많은 그 모든 위대한 사실들을 화폭에 담아 남김없이, 빠짐없이 영원한 진실로 력사에 아로새겨야 한다.

위대한 태양이 우리를 비치는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전에 력사의 진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편소설 《태양찬가》는 귀중한 경험을 준다.

한결을 더 깊이 인간학의 세계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태양찬가》는 인간성격과 인간관계형상에서의 특색있는 새로운 탐구로 하여 인간학의 세계으로 한결을 더 깊이 전진하고있다.

매력있는 성격형상과 의의있는 인간관계의 형상은 문학을 참된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데서 중추적의의를 가진다.

수령형상작품인 경우 그것은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는데서 특별히 큰 작용

을 한다. 그것은 위대한 인간만이 지닐수 있는 동지에 대한 열화의 사랑과 혁명적의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형상공간으로 되는것이다.

장편소설 《태양찬가》는 바로 여기서 한결음의 전진을 보이고있다.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안겨오는 장면은 최현의 개성과 비겨 아버지수령님의 시점에 비낀 한덕수의 류다른 성격이며 한생토록 못 잇을 김혁에 대한 추억과 더불어 수령님과 덕수사이에 맺어지는 눈물겨운 인간관계이다.

장편소설 《태양찬가》는 한덕수의 눈에 비낀 그렇게도 젊고 그렇게도 수려하신 미목의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의 눈부신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리고있을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시점에서 한덕수의 남다른 개성적특징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이것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것과 같은 전사에 대한 애끓리는 수령님의 사랑과 혈육의 정을 천만마디의 말보다 더 가슴저리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시게 된 덕수의 첫 모습. 《...첫눈에도 나이에 비해 곱혀보이는 모습은 못내 마음에 걸리시였다.

(이제 겨우 세살짜리 아들 하나를 둔 사람이 이렇게 늙어보이다니? 풍파사나운 이국살이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지만 전체 모습, 크지 않은 다부진 몸매며 둥그스름한 얼굴, 우뚝한 코마루는 그에 대한 말을 들을적마다 눈앞에 그려지군 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어딘가 무뚝뚝하고 과묵하게 느껴지기는 했으나 눈빛이며 술진 눈섭 그리고 량옆으로 벗어져 올라간 이마까지도 상상하던 그대로였다. 다만 생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남달리 고집이 세다는 그였으나 얼굴전체에서 풍기는 인상은 도리어 성이라고는 한번도 내본적이 없는 푸수한 농부와도 같이 더없이 온화한, 그런 순박하면서도 무던한 표정으로 해서 다시금 웃음이 새시였다....

여기서 독자들이 보게 되는것이 어떻게 생동한 덕수의 개성뿐이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안광에 비낀 덕수의 이러한 모습은 첫 상봉의 순간 우리는 처음 만나지만 구면인셈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의 깊은 뜻을 그대로 새기여준다. 여기에는 진정 멀리 그리고 오래 떨어져 고생하던, 그러나 언제 한시도 잊은적 없는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정이 가슴뜨겁게 어려있다.

한덕수의 개성을 통해서 본 아버지수령님의 이 애뜻한 혈육의 정은 그이께서 백전로장 최현을 보시게 된 순간 그와 나란히 한덕수의 모습을 세워보시는데서 더한층 가슴저리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최현이가 살아있는

한》 1211고지에는 한놈의 적도 기여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최현의 말을 들으시며 아무리 적들의 탄압이 심하고 반동들의 책동이 악랄하다 해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으며 《한덕수가 주저앉지 않는다.》고 한 덕수의 편지를 생각하시였다.

《이 최현이가 살아있는 한》, 《한덕수가 주저앉지 않는다.》, 그들이 한 이 말들은 조국이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을 때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맡고있는 전사가 가장 명백하게 자기의 심정을 드러낸 말이라고 생각되시였다. 순간 그이께서는 둘이 다 크지 않은 다부진 몸매에 술진 눈섭, 아래로 처져내린 고집스런 두볼... 마치 친형제와 같은 두사람의 용모에 저절로 웃음이 나오시였다.

최현을 보시게 될 때 한덕수의 모습이 떠오른 것은 신통히도 비슷한 그 용모와 함께 가장 믿고 아끼시는 진국의 전사들이기때문일것이다. 최현과만 비겨 말할수 있는 덕수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이 각별한 애정은 준엄한 전화의 날 최현을 가리켜 1211고지를 지켜낸 영웅이라 하시며 그런 영웅이 또 한사람 있는데 그가 바로 일본에 있는 한덕수라고 거듭하여 회고하신데서 참으로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얼마나 적중한 개성의 비교이며 여기에 세상에서 제일로 믿고 아끼시는 혁명전사에 대한 그 얼마나 뜨거운 아버지의 정이 어려있는것인가.

알고보면 당연히 느껴지는 이런 형상은 확실히 작가의 창작적발견이다.

작가는 덕수의 형상을 위대한 수령님의 시점에 비겨 그려보임으로써 그 개성의 생동성을 부각시켰을뿐아니라 혁명전사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혈육의 정 이상의것으로 한껏 돋구어 보여주었다. 이런 묘사는 일찌기 없었던듯싶다.

이런 측면에서 소설은 인간학의 심오한 경지에 한결음 더 깊이 들어섰다고 볼수 있다.

소설의 심오한 인간학적세계는 뜻깊은 인간관계의 형상에서도 특색있게 안겨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덕수의 개성적특징을 최현과 나란히 해보시였다면 자신과 덕수와의 관계를 김혁과 있었던 못 잇을 추억에 실어 애절하게 생각하시였다.

그이께서 조국에, 수령님곁에 남아있고싶어하는 덕수의 사무친 소망을 풀어주고싶으신 간절한 마음을 힘겹게 누르시며 그를 또다시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살벌한 적국로 떠나보내야 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피로우시였으면 한생에서 가장 가슴아팠던 김혁이와 헤어지던 때의 일을 되살리시였겠는가.

오래동안 적국에서 갇은 신고를 다 겪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온 김혁이를, 다문 하루밤이라도 함께 있게 해달라는 그 부탁마저 들어주지 못하시고 다시 떠나보내신 김혁이였다. 할빈에서 돌아오면 잠시도 헤어지지 말고 동만에 함께 있

자고 약속하시었건만 잠시라고 했던 그 작별이 영원한것으로 되고말았다. 바로 그날의 작별을 되새겨보시며 만리창파가 가로질러 안부조차 전할길 없는 그 길로,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아니 만날수 있거나 하겠는지, 덕수를 보내는 그이의 가슴은 미어질듯 하시였다.

김혁이 수령님의 심장속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가를 잘 알고있는 독자들은 그이께서 체험하시게 되는 덕수와 리별의 아프심을 폐부로 절감하게 된다.

우리의 리별은 상봉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리별이라 덕수에게 말씀하실 때 그이께서는 또다시 문득 오리나무숲이 우거진 강가에 나가 바래워줄 때까지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던 김혁의 마지막모습이 생생히 기억되시였다.

그이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덕수에게 말씀하시였다.

《그렇지만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 그이께서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같은것이 덕수가 터뜨린 호느낌이라는것을 아시였으나 차마 뒤돌아서지 못하시였다.

《장군님!》하고 두손을 뻗친 덕수는 어린애처럼 와락 그이의 꿈에 안기였다.

이 장면이야말로 극의 극치이며 참인간학만이 창조할수 있는 참인간의 참세계이다.

극은 극으로 다시 이어지고있다.

첫 작별의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더는 헤어지지 말것을 잊을수 없는 전우였던 김혁이의 유가사

한을 절고 덕수에게 약속하시었건만 그이께서는 두번째로 그가 조국에 왔을 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재일조선인운동과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생명선으로 되는 로선전환방침의 관철을 위해 또다시 적구역으로 그를 떠나보내시였다.

한 인간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과 혁명의 요구!

차마 터놓을수 없으신 작별의 그 사연을 덕수 자신이 제먼저 알고 아뢰였을 때 덕수는 너무도 인정에 여러신 그이의 마음에 크게 놀랐다.

덕수는 부지중 탄성을 터뜨렸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인정이라고 하랴! 그것이야말로 나같은 평범한 인간을, 아니 우리 삼천만 겨레모두를 강철로, 불사신으로 만드는 숭고한 사랑이 아니고 뭐랴! 우리 조국을 온 세상이 다 우리러보는 그런 조국으로 만드는 위대한 힘, 오직 장군님께서만이 지니신 위대한 천품이 아니고 뭐랴!)》

진정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러 태양이라 노래함은 그 광휘로운 빛과 따사로운 별으로 만물을 품어 키우는 태양보다 위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때문이다.

하늘은 넓어 끝이 없어도 그 하늘의 태양은 오직 하나이다.

이 위대한 력사의 진리를 뜨겁게 새겨주는것으로 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태양찬가》는 재일조선동포들은 물론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모두를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주는 참된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장군님은 우리 집에도 찾아오셨네

오금희

인민이 사는 곳 천리길 만리여도
위대한 자욱을 수놓으신 장군님
끝없는 사랑의 길 이어가시며
새로 선 우리 집에도 찾아오셨네
아 자식들의 새집들이희소식 안고
장군님은 우리 집에도 찾아오셨네

친정아버지 다심한 그 사랑으로
새집들이경사도 함께 기뻐하시며
수령님의 소원이 풀렸다시며

환하신 미소로 축복해주시네
아 인민의 행복이 보고싶으시여
장군님은 우리 집에도 찾아오셨네

온 나라 집집의 행복 꽃피주시며
머나먼 전선길 이으시는 장군님
인민위해 바치시는 뜨거운 사랑
우리 집 프락에도 봄빛되어 흘렸네
아 더 좋은 래일을 약속하시며
장군님은 우리 집에도 찾아오셨네

가사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었네》가 나오기까지

리주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우리 가사문학창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심한 지도는 가사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었네》에도 뜨겁게 어리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래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었네》에는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변함없이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을 흠모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즐겨 부르고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주체59(1970)년에 창작된 노래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었네》!

처음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작가는 《전야에 울리는 행복의 노래》라는 제목을 달고 가사를 썼었다.

하지만 이 가사는 너무나도 미숙한것이였다.

가사에서 《무지개 비끼고》, 《양떼 흐르고》하는 등으로 생활을 분식한 표현들과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있었으며 《사회주의락원》 그리고 《인민의 락원》이라고 해야 할것을 그저 《살기 좋은 지상락원》이라고 함으로써 정치성이 없고 새로운것도 아닌 표현들이 있었다. 뿐만아니라 가사의 제목에도 더 깊은 표현들이 있어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가사를 본보기작품으로 완성하시려고 가사의 구절구절들을 수정가필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노래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듬어주시고 완성하여주시신 가사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었네》는 이렇게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1. 삼천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행복의 노래소리 넘쳐흐르네
수령님 모시고 사는 이 행복
인민들은 이 영광 노래부르네
은혜로운 아버지 넓은 품속에
천리마의 조국이 꽃피여났네

2. 해마다 농장벌에 만풍년 들고
공장엔 로동의 기쁨 넘치네
수령님 이끄시는 주체의 조국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네
수령님의 높은 뜻 조국강산에
영원한 꽃으로 붉게 피었네

3. 끝없는 이 행복을 노래부르며
사람들 화목하게 살아간다네
수령님 높은 은덕 가슴에 안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갑니다
자애로운 아버지품속에 안겨
천만년 길이길이 살아가리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래의 가사를 지도해주시면서 종전가사에서 《지상락원》을 《주체의 조국》으로, 《아름다운 꽃》이라는 표현도 《영원한 꽃》으로 바꾸어주시였다. 이리하여 노래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면모를 새롭게 보여주는데 이바지하게 되였으며 결국은 수령님의 업적의 영원불멸성을 힘있게 노래할수 있게 되였다.

보는바와 같이 가사의 제목부터 전면적으로 개작완성된 가사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었네》의 1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노래하고 2절에서는 주체의 조국을 노래하였으며 나아가서 3절에서는 수령님을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노래하면서 어머니 내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을 조화롭게 형상하고있다.

참으로 가사에서는 자기의 주제사상적과제에 따라 종전에 많이 창작되였던 아버지수령님의 혁명활동과 고매한 인민적품모를 칭송한 송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독특하게 실현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후 송가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었네》를 기준으로 하여 그 수준에서 창작사업을 벌릴수 있도록 작가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오늘도 송가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었네》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면서 승리자의 신심드높이 선군혁명총진군에 떨쳐나선 우리들을 새로운 투쟁으로 더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는 래양민족이다

홍현양

나는 조선사람
나에게 젖을 먹여준
어머니가 배워준 그 말로
이 세상에 찢겨져도 부서져도
빼앗기지 않은
민족의 그 넋을 말하고싶다

흙냄새가 야릇하게 풍기는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처마아래서
맨손가락을 빨며 자란
나는 시인
지주집 조발을 김매다가
나의 할머니 내 태줄을 끊어준
그 생이 길어 오늘에 이르렀던가

나의 노래
이 시인의 노래를 들어다오
내 만나보고
이국의 초원의 바람소리 같이 들으며
조국과 고향
민족의 운명을 두고 같이 생각한
못 잊을 이국의 벗들이여
나의 노래에 귀기울여다오

1

내 노래는
이 땅우에 《고난의 행군》으로 힘겹던
그 나날
만경대의 하늘가에 내리는
하얀 눈송이를 받아안으며
뜨거운 목메임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잊을수 없구나
송이송이 함박눈 내리는
만경대의 설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의 인자하신 그 모습을

매달리고 또 매달리며
장군님의 옷자락에 떨어질 줄 모르며
울고 웃는 혁명학원 원아들
그 모습은 지난날 나의 모습
《아버지!》
부르고 찾으며 매달리는
그 모습은 틀림없는 우리 인민의 모습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며
울고 웃던
어제날 혁명학원의 나의 모습

오늘은 흰서리 내려앉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신 장군님의 영상을
아버이로 우러른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우러른다

아 내리는 흰 눈송이여
너의 송이송이에
말 못할 고요함이 깃들었어도
나는 만경대의 속삭임을 듣는다
아버지의 속삭임을 듣는다

저 눈송이 처음 맞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빼앗긴 나라를 찾으시려
고향의 눈송이를 맞으시며
민족의 설움과 아픔을 씻으시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우리 수령님 백두산으로 향하시었다

인민의 힘을
정신의 해불로 켜드시고
이 세상 처음
백두산의 총대를 추켜드신
우리 수령님은
강도 왜적을 때려눕히며
만리 광야를 헤치시었다

인민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민을 력사의 개척자로 보신분
밀림의 우등불가에서
고향 만경대를 그리시며

《사향가》

빨찌산의 조국 사랑가를 지으신분

그 마디마디
그 구절구절마다에
만경대의 흰 눈송이가 스며들어
민족의 아들의 어깨우에 내려앉던
백두밀림의 밤
그 사랑이 지금도 흘러내리누나

하늘의 신을 불러찾는
숙명의 종소리가 아닌
만경대의 흰 눈송이에서
나는 이 민족을 위해
백두의 총대를 추켜든
위대한 아들의 속삭임을 듣는다
인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사랑의 화신을 본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이 세상의 구세주를 안겨주려 했던
이국의 한 어머니가
림중의 배개머리를 눈물로 적시며
자기 아들에게 말하였던가

-애야

내 한평생 믿어왔던
하늘의 신은 보지 못했지만
사랑의 신은 보았다
그분은 **김일성** 주석님
만경대의 아들이시다

아, 만경대의 아들
그분의 어깨우에 내리던 눈송이를
우리 장군님 맞으시며 찾으신
만경대혁명학원
그날에 원아들이 부르며 찾던
《아버지!》
그분은 사랑의 화신이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
이국의 한 사원을 찾으시었을 때
때아닌 한낮에
종소리가 울리었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적서주는
종소리가 메아리쳤던가

이게 무슨 종소리인가고
우리 장군님 물으실 때
그 사원의 주교가 울린 말씀
-하늘의 태양이 오셨으니
그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아, 하늘의 태양
그분은 우리 장군님
우리 장군님은
위대한 사랑의 태양
수령님과 꼭 같으신분이시였다

그날의 종소리가 안겨준 그 뜻을
나는 만경대의 눈송이
희디흰 그 빛에서 새겨안았다
태양의 열과 빛으로 뜨거운
만경대의 흰 눈송이여

2

아버지가 어데 있는가
민족의 아버지라 부를 그 위인은
어데 있는가
민족은 있어도

사랑을 주는 그 위인이 없다면
그 민족은 태양을 잃은
캄캄한 어둠속의 생명체와 같은것

내 철들기 전 조국을 떠나
이국의 첩탐의 종소리를 들으며
나의 어린 심혼에 스며드는
그 무엇인가 인생의 속삭임을 새기며
생각도 많았다

어찌하여
민족은 있어도 조국이 없는 민족
달리는 마차에 운명을 싣고
정처없는 길을 수백수천년 오가고있는가
고향이 마차이고
집이 마차인 그 민족의 서글픔을
그 어느 위인이 가져줄것인가

건드려진 노래가락을 들어도
황혼이 짙은 초원의 모닥불가에
조상들이 물려준 이민의 야전밥가마가
끓고있는 그 처량함
멸시의 대명사가 된
그 민족의 살빛
그 민족의 풍습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라면
그가 어데 살건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건
권리와 존엄은 꼭 같은것
높은 민족과 낮은 민족이 없는것처럼
사람이라면 꼭 같은것

살빛이 어땡고
풍습이 어땡고
조상을 따져보라
다같이 인류 원시사회
모닥불가에서 첫 자옥을 땀
다름아닌 같은 사람

마차에 자기 운명을 싣고
일가식술을 다 거느리고
조상대대로 살아오는 민족도
태양이 없어 조국도 잃은
불쌍한 민족
그러나 우리는 태양을 모신
조선민족
빼앗겼던 조국도 다시 찾은
조선사람

아, 어머니
다심한 어머니가 없으면
한 가정의 웃음과 향기가 없는것

그 어머니 잃은 사람이라면
그 눈물을 씻어준 손길
그 사랑을 영원한 아버지로 부른다

내 이 세상을 다녀보며
부모없는 사람의 설움도 알았고
부모를 다시 못 보는 그 눈물도 알았다
우리와 만났던 이국의 벗들이여
그 눈물과 풀수 없는 인생의 고뇌를
만경대의 흰눈송이를 맞으며
이야기해보자

눈송이는 차가운것
그러나 만경대의 흰눈송이는
나에겐 사랑으로 뜨겁다
고아의 눈물을 씻어준
어머니의 그 입김으로
나의 언 두손을 잡고 호호 불어주던
고향집 아래목
어머니의 그 정으로 따스하다

《아버지!》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장군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염없이 내리는 눈송이를 맞으며
순간도 떨어질줄 모르는것은
열과 빛인
태양의 은혜로움을 알기때문

차가움을 모르는
흰눈송이여
너는 만경대의 하늘가에
꽃보라인양 날리며
하많은 전설을 이야기하누나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3

내 만났던 이국의 벗들이여
말해보자
사람이 사는 길에
고난이 없거나 눈물이 없거나
그 누가 어느 민족이건
자랑과 자부심이 있지 않거나

내 조국떠나 철부지 어린날
이국에서 살며
만나보고 사귀 친구들이 있더라
달빛이 흘러드는 창가에서
떠나온 고향과 조국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며
같이 흘린 눈물 피에 비기랴

만민이 평등하게 살아갈
그 세상을 바라며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결전장에 바친
흘린 피 그 뜨거움은 붉은것
총칼과 총칼의 부딪침은 무자비한것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을
그 결전장에 바치고
타향 이국의 하늘밑에서
서로 만났던 고아들의 씻을수 없는 아픔
그 눈물을 하늘이 알아주었더냐
숙명의 종소리가 위로해주었더냐

아, 내 만났던
이국의 벗들이여
피에 절은 땅에서
총탄에 맞지 않고 살아남은
애어린 녀들이여
아버지를 부르며 잠들지 못했고
불붙는 집에서 뛰쳐나오던
그 고향을 부르며 사랑을 찾던
죽지 않은 녀들이여

시가전의 화염속에서
적탄에 쓰러진 아버지를
거리의 보도블록 들치고 물을 때
가슴에 피로 웅어리진 복수를 부르며
땅을 치고 하늘을 저주하던
그리스의 어린 녀들

수천년 수만년
아득한 세월의 전설을 새긴
고향의 산발과 바위들을
꿈속에서 쓰다듬으며
자기 민족의 공지와 자랑을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뽐내던
그리스의 친구들

자기 민족은 태양의 신
아폴로를 모신
세상에 하나뿐인 신의 민족이라고
빼앗겼어도 조국이 없는 고아여도
신의 아들이라 자랑하던 친구들

우리는 그때 생각했더라
같은 고아
같은 아버지, 어머니 없는
눈물겨운 사이여도,
우리엔 조국
손잡을 사랑이 있고
우리를 버린 땅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늘은 무엇이더냐
땅위에 인생이 있어
하늘에 신도 생겨난것
전설도 인생이 있어

이 땅우에 수백수천년
신의 역사를 아로새긴것

꽃들도 만발하고
향기도 강산에 넘쳐나던
레사로운 날
우리 수령님 우리를 찾아
가슴 목메이게 타향만리 오시였을 때
우리만 울고울었던가
교정의 나무를 붙잡고
같이 흐느끼던 그리스의 친구들

젊은 애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방문로정을 바꾸시여
가셔야 할 일정도 물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려
수백리 길을 돌아오신
아버이수령님

천지를 진감하던 만세소리
수령님의 옷자락에 매달리며
떨어질줄 모르는
우리를 한품에 안아주시며
환하게 지으시던 태양의 그 미소

《아버지!》

부르며 찾으며 옷자락에 매달리며
수령님의 손목을 꼭 잡고
꿈속을 가듯 걸어가던 환희의 그날
달려가다 신발이 벗겨지면
그것을 주어들고 또 매달리던
감격이 폭풍치고 강산이 태동하던 그날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타향만리에서 아들딸들이 흘리는 눈물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씻어주시며

《아버지!》

부르며 달려오는
수백수천의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던
인민의 태양 우리 수령님

같은 고아
같은 피절은 운명을 지녔어도

《아버지!》

사랑을 부르며 아버지의 손길을 잡은
우리는 조선의 아이들
행복한 우리를 보며
이국의 벗들이 그날에 터친
감격의 웨침

-우리는 정말
오늘 태양을 보았다
타향만리에서 앓아 누운
한 고아를 위해
태양의 빛을 안고 오신분이

바로 사랑의 신이시다
우리의 아폴로 태양신은
우리를 찾아오지 못했다
위대한 태양을 아버지로 모신 너희들이
바로 태양민족이다!

아, 그 말을 들으며
우리 심장에 솟구치던 끓는 피
위대한 수령님을
위대한 태양으로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
사랑이 없이
어찌 태양의 은혜로움을 다 알라

우리는 정에 주리지 않았다
아침저녁 김오르는 식탁에 앉아
한가정의 단란함을 알았고
공화국기발을
이국의 하늘가에 높이 올리며
조국이 어머니로 곁에 있음을 보았다

세계의 벗들이여
우리는 태양민족임을 자랑한다
우리에게 사상을 주고 철학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사람의 힘을 알게 하신분
백두의 혈통을 피줄로 이어준
민족의 아버이를 태양으로 모신
우리는 **김일성**민족이다

사랑떠나 삶이 없고
정이 없이 웃음을 알수 없는것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삶과 웃음을 마음껏 꽃피운
우리는 태양의 아들딸들이다

부러워하라
이 세상 천지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들을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온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 또 있으랴
우리의 두눈에 맺혔던 아린 눈물을
아버이수령님께서 씻어주시었다

오늘은 험난한 전선길
칼벼랑길도 넘고 헤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총대로 그 사랑을 지켜주신다
차거운 눈보라와 비방울을
한몸으로 다 막아주신다

그 길에
영광만이 넘쳐흐르라
우리 태양민족의 앞길에
언제나 승리만이 있으랴
자자손손 천만년
강성부흥만이 있으랴!

그 숭고한 뜻을 받드시고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그 크나큰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잊을수 없는 주체 36(1947)년 4월 16일.

이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이 공장을 찾으시기 전날인 4월 15일 아침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옷깃을 여미시고 겸소한 생신상을 아버지수령님께 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싸우던 항일혁명투사들도 이날을 못 잊어 저택으로 찾아왔다.

집무실에서 밤을 지새우시고 아침녘이 되어서야 댁에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뜻밖에 차려놓은 음식상과 모여온 항일혁명투사들을 보시고 어떻게 된 일인가고 물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며 오늘이 바로 장군님의 생신날이기 때문에 소박하게 차린 상이라고 조용히 말씀드리시였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을 들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동무들의 성의만은 고맙다고, 그러나 생일이라고 하여 내 어찌 생일상을 받겠는가, 나라는 해방되었어도 인민들의 생활은 크게 달라진것이 없고 아이들이 사랑 한알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있는데 내 어찌 생일을 철수 있겠는가, 인민들에게 쌀도 넉넉히 못주고 아이들에게 사랑 한알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데 생일상을 받은들 내 마음이 어찌 기쁠수 있겠는가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일상을 항일투사들에게 밀어놓으시고 자신께서는 간단히 요기를 하시고 또다시 집무실로 나가시였다.

모든 항일투사들은 머리를 수그린채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한동안 말이 없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시는 장군님의 마음은 정말 헤아릴 길 없어요. 장군님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먹이지 못해 가슴아파하시는데 래일은 곡산공장에 나가 보아야겠어요.》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리하여 이날 아침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곡산공장을 찾으시게 된것이였다.

공장을 찾으시어 책임일군으로부터 공장의 전반실태를 료해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파자직장, 마쇄직장, 착유직장을 차례로 돌아보시며 왜놈들이 도망치면서 파괴한 설비들을 하루빨리 복구하여 더 많은 당과류를 생산할뿐아니라 노동자들의

로동조건도 개선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나시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전분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물엿직장, 포도당직장도 돌아보시며 여기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따 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시간이 적지않게 흘렀다.

동행한 일군들은 백두산너장군의 건강이 녀려되어 좀 휴식하시고 돌아보실것을 권하였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없다고 하시며 련이어 비누생산공정과 제약직장을 차례로 돌아보시였다.

오랜시간 공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랑, 파자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토의해보자고 하시면서 관계부문 일군들을 선전실로 불러주시였다.

이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께서 나라가 해방되어 두해가 지났지만 아직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랑, 파자를 먹이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늘 걱정하고계신다고 하시며 어떻게 하면 맛있는 알사탕을 만들수 있겠는지 그리고 파자생산을 늘이자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보라고 말씀하시였다.

깊은 자책감에 잠긴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하여 나이지숙한 노동자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노동자, 기술자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사랑, 파자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창발적인 안들을 내놓으면서 자기들의 결의들을 김정숙동지께 말씀드렸다.

모임을 끝마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노동자들과 일군들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시며 공장문을 나서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날저녁 위대한 수령님께 곡산공장의 실태와 함께 노동자, 기술자들의 결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후 평양곡산공장에서는 사랑, 파자생산기술공정이 정비보강되고 당과류생산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 파자를 안겨주시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신 아버지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그 크나큰 사랑은 오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이 땅우에 더욱 활짝 꽃피나고있다.

리선희



리라순

1

그날 오후 경주는 교무실의 거울앞에 마주 서 있었다. 거울속에서는 얼굴이 희말은 처녀가 쓸쓸한 표정으로 내다보고있었다,

어마나... 내가 벌써?! 그는 자기의 눈가에 그어진 가는 실주름들을 아릿해지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그었다,

11월 21일, 오늘은 경주가 스물아홉번째로 맞는 생일이였다. 언제나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대학교정에 들어서곤 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곤 하던 쾌활한 처녀, 그가 속한 환경공학부 학부장은 이러한 경주를 두고 두눈에서 늘 정찬웃음이 솟는 우리 처녀교원이라고 즐겨 말하곤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창밖에서는 이해의 첫눈이 마치 축복의 꽃보라인듯 아낌없이 퍼부어지고있었다. 하지만 처녀의 가슴속엔 무거운 마음만이 덧쌓여지고있다.

벌써 몇년째이던가. 제진장치연구에 몰두해온 그날들은...

지치도록 시안의 공장들을 찾아다녔지만 경주는 아직 먼지와 아류산가스를 동시에 잡아내는 우리 식의 중화제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거울속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이 시각에도 그의 머리속에는 안타까이 찾고있는 그 귀중한 중화제가 떠나지 않았다. 아류산가스와 석회석반응... 페가스의 조성과 알카리성분...

짜르릉! 갑자기 울린 전화종소리가 그의 사색을 깨뜨렸다. 책상우에 놓인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던 경주는 재차 종이 울려서야 송수화기를 들었다. 귀에 익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내다. 그래 강의는 끝났느냐? ... 그럼 인차 들어오너라. 오늘이 네 생일인데...》

경주는 잠시 아무말도 못하고 입술만 자근자근 깨물었다. 강행군이 계속되는 오늘 별식을 마련하느라고 애썼을 어머니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송수화기를 감싸쥔채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오늘도 늦어질것 같어요.》

《그럼 또 화력발전소에?...》

《아니, 오늘은 고무공장에 가야 해요.》

《에그, 무슨 처녀가 이 공장, 저 공장 굴뚝만 찾아다닌다더냐. 집안에 없는 글뚝쟁이가 나오려는가 보다... 어쨌든 빨리 들어오너라. 기다리겠다.》

경주는 말이 길어지면 자기의 결심이 흔들릴까봐 급히 송수화기를 내려놓고말았다.

고무공장에서는 도수높은 안경을 낀 기사장이 그를 맞아주었다. 이마는 물론 눈귀와 입가에도 굵은 주름살이 패여있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왔소?... 헌데 교원이라면서 굴뚝은 왜 본다는거요?》

《이 공장 보이때문에 왔습니다. 물론 정화된 흰 연기가 나가있지만 전 앞으로 보다 능률적이고 새로운 제진장치를 꼭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장은 껄껄 웃었다. 그러자 얼굴의 주름살들이 다 움직이는것 같았다.

《그러니 새 제진장치를 연구한다는거겠소? 알만하오, 알만해. 하여튼 용소. 처녀연구사들에겐 힘에 부칠텐데... 도와줍시다! 도와주어야지요. 그래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오?》

《우선 보이라상태를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엔 페가스상태를 측정해야 하고 또 계통에서의 압력손실과 증가원인을 해명해야 하며...》

교단에서 강의하듯 차근차근 설명하는 경주를

쳐다보던 기사장이 머리를 끄덕였다.

《음, 그런건 우리 책임기사가 잘 알겠구만.》

기사장은 전화기를 끄당겼다.

《책임기사동무가 어데 있는지 좀 찾아주오... 아, 책임기사요? 여기에 연구사선생이 왔는데 제 진장치때문에 왔다누만. 거기로 보내겠는데 잘 도와주오.》

얼마후 안경너머로 경주를 바라보는 기사장의 얼굴에서는 또다시 주름살들이 살아움직이기 시작했다. 웃고있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한철목이라구 우리 책임기사 괜찮아. 다 말해놔으니 어서 가서 만나보라구. 지금 보이라실에 있다누만.》

밖에서는 눈발이 더 굵어지고있었다.

2

책임기사 한철목은 보이라실입구에서 몸이 갱뽀한 교수머리청년과 이마를 맞댄채 무엇인가 열심히 토론하고있었다. 경주가 깎듯이 인사하자 허리를 펴며 일어서는데 한아름이나 되는 기둥이 쑥 솟아오르는것 같았다.

《전 화 를 받았습니 다. 그 래 뭐 가 요구된 다 구 요?》

《저...》

책임기사가 소리쳤다.

《아, 반장아바이. 압을 더 높이려구요! ... 미안합니다. 이자 뭐라 했지요?》

경주는 이미 기사장에게 말했던 자기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야 했다. 너무 크고 무뚝뚝한 사람이어서 저도 모르게 더듬거려졌다.

책임기사는 흠- 흠 코소리를 내며 기계기름이 묻은 손으로 연신 판자노리를 문대였다. 그바람에 곰발바닥같은 커다란 손자리가 이마에 우습게 찍혀졌다. 크고 시꺼멓고 고집스러운 사람같았다.

그는 손자리로 온통 거무스레진 얼굴을 경주가 눈여겨보는것도 모르고 보이라칸으로 머리를 뒹 돌렸다.

《여 현철이, 이 연구사선생을 안내해주라구.》

그는 빨리 자리를 뜨고싶어하는것 같았다. 내가 온것이 달갑지 않은가?... 웬일인지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경주는 현철이라고 불리운 교수머리청년을 따라 보이라실로 들어갔다.

《동무네 책임기산 원래 저런가요?》

앞서가던 현철이가 걸음을 멈추고 피식 웃었다.

《우리 책임기사요? 그쯤한걸 가지구 뭘 그래요? 한참 소리칠 땐 정말 요란해요. 그렇지만 지내보면 괜찮아요.》

경주가 머리를 기웃거리자 현철이는 멋지게 휘파람을 불었다.

《두고보라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 만난 녀성을 거칠고 무뚝뚝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인정이나 정서가 숨어있다고 믿고싶지 않았다.

어디에 가나 저 책임기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사실 지금껏 경주는 얼마나 많은 공장들을 돌고 얼마나 많은 기술자, 열관리공들을 만나보았으랴, 그들중에는 삽삽하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으나 독쟁이, 고집쟁이, 시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낡은 솜모자를 눌러쓴 보이라반장은 좋은 아바이였다.

《불을 끄지 않고서야 들어가지 못하지요. 더구나 연구사선생같이 말쑥한 처녀가 어떻게?... 원 말도 되지 않습니 다.》

《그럼 보수는 언제 합니까? 그때면 불을 꺼야 하겠지요?》

《글쎄, 분기에 한번씩 보수를 하긴 하지만... 그래두 꽃같은 처녀연구사가 어떻게 그런델 들어가겠수?》

반장아바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동안 보이라 화구를 들여다보던 경주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바이, 보이라는 좋은데 제진장치의 능력이 좀 작은것 같구만요. 사실 이런 보이라는 불을 끄고 정화장치를 더 보강해야 하는데...》

반장아바이는 허거프게 웃었고 옆에서 듣고있던 현철이는 흥! 하고 코방귀를 뀌었다. 다음 순간 경주는 잔등을 찌르는듯 한 눈길을 느끼며 등 뒤로 머리를 돌렸다.

순간 화구에서 쏟아져나오는 불길을 삼킨듯 그 자리에 굳어졌다. 책임기사의 무서운 눈길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는것이다. 커다란 그의 손에서 도면말이가 허리를 꺾으며 천천히 구겨졌다.

《불을 끄고 어떻게 한대구요? 이 보이라는 아직 정화되지 못한 연기를 내보낸적이 없소! 상관하지 마시오. 우린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생산해야겠소.》

《아니, 전...》

경주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반장아바이와 현철이만 번갈아 쳐다보았다. 당황했던것이다. 한동안 이마너머로 경주를 지켜보던 책임기사는 아무말없이 문을 열고 힝 하니 보이라실로 나가버렸다. 아바이는 경경 마른 기침을 짓었고 딱한 기색으로 경주를 지켜보던 현철이는 코등을 긁적거렸다.

《연구사동진 다 모를거예요. 우리가 보이라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고난의 행군〉 때 숨죽은 이 보이라굴뚝을 보고 모두가 울었어요. 가슴아파서 말이예요!... 그러다가 다시 불을 지켰을 때 우린 또 울었어요. 바로 이 반장아바인 로앞에 엎드려 일어나지도 못했구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정화장치가 뭐 어쨌다구...》

경주는 말없이 두눈을 내려깔고있었다.

보이라화실의 붉은 화광만이 어두워진 경주의 얼굴을 물들이고있었다. 밖에서는 때없이 몰아치는 찬바람에 눈송이들이 몸부림치며 흩어져날렸다. 눈발은 점점 더 굵어지고있었다.

《이보라구, 연구사선생. 너무 노여워마시오.》

아바이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여 불을 붙여 물었다. 한모금 깊숙이 빨고나서 말을 이었다.

《이 보이라 불을 살리느라구 저 책임기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우? 집에선 홀어머니가 앓고있었지만 밤낮 여기 나와 살았수다. 아들이 걱정할가봐 책임기사 어머니 병이 중해가는걸 숨기면서 집살림까지 공장에 다 들고나왔다우.

한뉘 이 공장에서 늙은 사람이라 저 굴뚝의 연기를 다시 보면 한이 없겠다고 하더니만... 로에 불은 지켰으나 끝내 책임기사의 어머니 병이 심해서 그만... 그래서 우린 더 울었다우. 리해해주시오. 그런 보이라 불을 꺼야 한다니 저 사람이 오죽이나 노여웠겠수.》

경주는 목이 메었다. 그 무엇에 사정없이 비틀리는듯 한 아픔이 가슴을 저미냈다. 숨이 차오르고 눈시울이 죄어들었다.

책임기사의 지름튼 두눈이 다시 떠오른다. 그렇다.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들에게... 경주자신도 어머니가 무거운 마음으로 끓여주는 끼니를 눈물과 함께 씹어넘기며 대학교정으로 나가곤 했었다.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일어난 오늘이어서 자기들의 피땀이 스민 이 모든것이 것처럼 소중한고 귀중한것이 다.

《그러기때문에 불을 꺼야 하는거예요! 저 하월에 단 한점의 티라도 날리지 않게...》

그러나 이 말은 끝내 목에 잠겨 입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날저녁 경주는 반갑게 맞아주었던 인상깊은 기사장에게 다시 들리었다. 역시 그는 친절했다.

《어떤가, 우리 책임기사를 만나봤나?》

《예, 또 오라고 하더군요.》

기사장의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의 웃음은 그 주름살들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는듯싶었다.

《그렇테지.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나. 잘 도와줄거라구.》

경주는 머리를 가만히 저었다. 잘 도와줄거라

구? 아니,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성급하고 거칠구...

《기사장동지, 전 살아있는 보이라를 본것만도 기쁩니다. 생산을 하고있지 않나요.》

움직이던 주름살들이 제자리에 멈추어섰다.

《그럼. 우린 남보다 먼저 공장을 살렸다네.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났구.》

《예, 저도 그걸 알고왔습니다.》

또다시 얼굴의 주름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때문인지 기사장은 한결 더 인자하고 친근해보였다.

《이런 우리 공장에 새로운 제진장치를 연구해 놓겠는데 누가 반대하겠소? 그런 일이야 발벗고 나서줘야지. 자주 오라구. 내 힘껏 도와줄테니.》

《고맙습니다.》

밖에서는 종일 내릴것만 같던 함박눈이 몇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머리를 짓속이고 정문쪽으로 걸어가는 경주의 걸음은 무거웠다. 불길을 뿜는것 같던 책임기사의 눈빛이 눈앞에 밝혀왔다.

피로움에 이지러졌던 그 눈빛...

하지만... 지금의 제진장치에 만족할수는 없어요! 비록 오늘은 별일 없지만 래일에는 책임기사, 보이라 그리고 제진장치...

경주의 머리속에는 이 모든것이 한데 뒤엉켜 사라지지 않았다.

이때였다. 한아름이나 되는 두툼한 장부책을 열구리에 낀채 급하게 마주오던 웬 녀인이 갑자기 멈추어서더니 눈꼬리를 치프며 입을 딱 벌렸다.

《아니, 이게 누구야?... 경주 아니니? 옳구나! 야-》

중학동창 전홍란이었다. 반가와서 떠드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너 이게 얼마만이니. 그새 더 고와졌구나. 결혼은 했겠지? 애들은 몇이구? 뭐라구?... 아니 넌 지금두 새침데기 그대로구나, 애. 그래 우리 공장엔 어떻게 완? 난 여기서 5년째 회계원으로 일하고있단다. 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란 하나도 없지 뭐. 알고픈게 있으면 다 물어봐.》

경주는 지친듯 시진하게 웃었다. 미처 대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질문의 소나기를 퍼붓고있는 전홍란... 한때 동무들은 그를 홍란이가 아니라 《소란이》라고 부르곤 했었다.

《소란이》가 놀라와했다.

《뭐, 보이라실? 책임기사한테?... 음, 그 똑쟁이! 덜렁거리며 큰소리 치는것밖에 몰라. 하지만 공장에선 모두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라구 해.》

홍란이는 깔깔거리며 경주의 어깨우의 눈을 털

어주었다.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어쩌면...》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잘있어. 그럼 또 만나.》

경주는 입을 벌린채 서있는 홍란이를 뒤에 남기고 발목까지 빠지는 눈속을 걸어갔다.

3

이듬해 봄 고무공장에서 보이라를 보수한다는 연락이 왔다.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온것이다.

커다란 배낭을 등에 진 경주는 따스한 별을 즐기며 걸고있었다.

교단에서의 강의, 끊임없는 사색과 연구... 참으로 긴장하게 보낸 나날이었지만 봄은 처녀의 마음속에 계절보다 먼저 찾아왔다. 봄이 되면 즐겁고 꿈이 많아지고 희망이 솟구치고. 그래서 이렇게 춘추듯 가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경주를 맞이한 보이라반장아바이와 교수머리 현철이는 어쩌선지 자꾸만 피하는 눈치였다. 경주가 의아하여 따져물자 아바이는 전날부터 쓰고있던 불에 그슬린 솜모자를 비비적거리며 대꾸했다.

《책임기사가... 허락하지 않수다. 내가 처녀연구사한테 이쪽 보이라를 보수한다는걸 알려줬다구 막 성이 나서 나무랍디다.》

《예? 뭐라고요?》

순간 무뚝뚝한 책임기사의 날카로운 눈빛과 시커먼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오늘 물러간다고 해도 래일이면 또 막아설것이다. 어쩌면 사람이!... 불을 끈 시커먼 보이라화구가 책임기사의 넓다란 잔등이기라도 하듯 한동안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경주는 핵 돌아서 보이라실을 나와버렸다.

3월이지만 아직 날씨는 쌀쌀했다. 바람이 불면서 구내에 널린 허겁스레기들과 먼지를 쓸어갔다. 경주는 반달음쳐 기사장방으로 갔다.

기사장은 소리내여 웃었다.

《원 그런 일때문에 울상이 되다니. 일없소. 가보라구. 내 다 말해줄테니.》

언제나 친절하고 기꺼이 맞아주는 기사장이다.

어느 공장이나 이 기사장같은 일꾼들만 있다면 이처럼 힘든 연구사업도 노래처럼 흥겨워지고 모든 일이 잘 될것이다. 현대 한철목책임기사는... 더 생각해보고싶지 않았다.

허락을 받고 다시 보이라실로 되돌아온 경주는 이발을 옥문채 배낭에 준비해가지고 온 작업도구를 꺼냈다.

《연구사동지, 방금 불을 켜는데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마너머로 미타하게 경주를 바라보던 교수머

리 현철이가 연신 손등을 긁적거렸다. 반장아바이도 같은 마음인지 담배연기만 길게 내불고있었다.

경주는 웃으며 설명했다.

《일없어요. 페가시스로채취와 온도측정을 빨리해야 다음단계 연구가 진행돼요. 또 장치를 설치할 위치도 정확히 선정할수 있고...》

《지금 있는 제진장치도 괜찮은것 같은데.》

아바이는 애쓰며 고생하는 처녀연구사가 측은한 모양이었다.

《아바이, 지금 거의 모든 공장들에서 그 류동구제진장치를 쓰고있어요. 효율도 높고... 하지만 공장이 개건확장되고 생산규모가 커지면 현재 이 제진장치로는 미세먼지와 아류산가스를 다 잡을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이 류동구제진장치에다 지금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습식제진장치를 우리 식으로 연구해서 더 설치하자는겁니다.》

경주는 자기를 지켜보는 두사람에게서 멀쩡이 떨어져 굴뚝안에 들어갈 차비를 하였다.

좀 커보이는 남자용방열복을 작업복우에 덧쳐 입고 머리에는 건설장에서 쓰는 안전모를 썼다. 목과 얼굴에는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젖은 수건으로 빈틈없이 여며싸고 눈에는 수영선수들이 쓰는것 같은 수경을 꼈다. 너름한 방열복소매를 동여맨 양손에는 솜장갑을 낀채 전지와 온도계를 하나씩 들었다. 단단히 마음먹은 경주가 피상한 차림으로 나서자 반장아바이의 눈은 대번에 떼뚱해졌고 짝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현철이는 손톱으로 제 코등만 계속 긁어댔다. 먼지 한점 스며들새라 꿈뽕 뒤집어쓰고 졸라맨 경주의 완전중무장에 그만 열먹었던것이다.

《이건 또 뭐예요?》

제진장치연구가 이런 원시적인 차림으로 진행된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던지 현철이가 혀를 쑥 내밀었다.

《이것봐요, 현철이. 현대적인 측정기구는 많아요. 이렇게 굴뚝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하나의 기구로 바람속도, 습도, 온도를 동시에 재여 표시할수 있는 클리모마스터라는 환경측정기도 있어요. 측정하기도 쉽고 또 정확하고... 하지만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제눈으로 확인해야 더 마음놓을수 있거든요.》

《알만 해요, 알만 해. 누이의 그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현철이는 옆구리에 끼고있던 작업장갑을 툭툭 털며 해피한 경주의 차림새를 다시한번 힐끔 곁눈질해보았다.

《그럼 시작하자요. 현철인 내가 신호하면 송풍기를 돌려주어요. 그리고 아바이 매 분마다 보이라압력을 기록해주세요.》

《꼭 저안에 들어가야 하나?》

반장아바이는 자꾸 앞으로 처지는 무거운 안전 모를 바로 잡아주며 걱정스러워했다. 언젠가 말한 것처럼 꽃같은 처녀를 굴뚝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아바이, 나야 환경공학전문가가 아니나요.》

반장아바이는 두눈을 습벅거리며 바깥에 떠온 물을 경주에게 뿌려주었다.

《저안의 온도는 아직 식지 않았네. 벽돌이 다 달았으니까. 급하면 소리치라구! 우리가 기다릴테니...》

옆에서 거들어주던 현철이도 떠들거리며 말했다.

《누이, 조심...해요》

경주는 정겹게 현철이를 바라보았다. 웬일인지 그 한마디 말에 눈물이 솟구쳤다...

아무말도 못하고 현철의 어깨를 꼭 눌러주고 난 경주는 곧 그와 헤어져 부엌아궁이처럼 비좁은 침강구(화실에서 굴뚝으로 이어진 곳)로 기여들어갔다.

뜨거운 열에 숨이 꺾!- 막혔다. 입안은 바싹 말라들고 눈앞에선 무수한 불꽃들이 춤추며 뛰어놀았다.

《송풍기!》

다음 순간 웬! 아츠러운 소음이 귀전을 파고들며 시꺼먼 굴뚝속에 회오리바람이 일었다.

전지불도 밝힐수 없다. 모든것이 뒤집혀지고 아찔해졌다. 온도계도 볼수 없었다.

불현듯 얼마전에 보았던 문헌자료의 제진장치들이 생각났다. 중력식제진장치, 러파식제진장치, 전기식제진장치와 습식제진장치... 이중에서도 전기식제진장치와 습식제진장치는 오늘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여기서 경주는 폐가스를 잡는 물질을 귀한 시약이 아니라 원가가 낮은 다른 물질에서 찾아내어 이 습식제진장치를 현재 우리 공장들에서 쓰고있는 제진장치들에 더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큰 효률을 얻자는것이였다.

그는 그 시약과 비슷한 성분을 가진 물질이라면 아무리 작고 미세한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곤 했으나 아직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있다.

지금 뜨거운 침강실에서 폐가스조성인 먼지량, 류산가스함량,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함량을 측정하면서도 그의 사색은 이 폐가스를 잡는 우리 식의 정제물질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숨이 막히고 눈을 뜰수가 없다. 참자! 참아야 한다. 흥란이가 하던 말이 떠오른다.

《... 난 아이가 돌썩이나 된다. 애, 너 어찌자구 그러니. 시집두 안가구...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게 너자의 첫째가는 미라고 하던 네가 어찌자구 시꺼먼 굴뚝에만 찾아들어가겠다는건지 알수 없구나. 애, 제발 더 늙기전에 시집이나 가. 예구나,

정말 네 끝은 못 봐주겠구나야. 그게 뭐니? 온통 검댕이칠을 하구. 제발 싹 그만두라는데!》

그랬었다. 경주는 너자의 품성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그지없이 정갈하고 깨끗한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어왔었다.

불결함을 참지 못하던 처녀, 그 깔끔한 성품과 맑은 물에 씻기운 옥돌같은 모습때문에 남달리 눈에 띄던 처녀, 그러한 경주였기에 흥란이는 검댕이를 들쓰며 한사코 굴뚝으로 들어가려는 경주를 보고 것처럼 놀라와하는것이였다.

...점점 생각하는것조차 힘들어졌다. 뜨거운 화염이 머리를 휘휘 잡아들린다. 시료채취를 끝내고 수직굴뚝가까이에 기여갔다.

그래, 제진장치는 침강실에서 굴뚝으로 이어지는 바로 여기에 설치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위치를 확정한 경주는 가까스로 비쳐지는 전지불을 온도계에 바투 가져다대었다. 그러나 잘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온도계의 눈금을 확인하는데 눈앞이 아찔해지며 정신이 가물거렸다. 견디여야 한다.

쓰러지면 안돼. 맥을 놓아선 안돼!...

갑자기 온몸이 꺼져버린듯. 웬- 하는 소음이 몇고 열의 폭풍이 죽었다. 피괴한 어둠과 정적이 덮쳐들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정신이 흐려지는 속에서도 누군가 비좁은 구멍을 메우며 이쪽으로 들어오는것을 느꼈다.

《누구예요? 송풍기 왜 켜요?》

역센 손아귀가 덮치듯 그를 잡아끌었다.

《이건 뭐요. 제길할! 죽자구 그러오?》

몸을 가누지 못한 경주는 뜨거운 벽에 부딪치며 무서운 힘에 끌려나갔다. 기다란 방열복자락이 걸음마다 걸채이며 그를 방해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가슴에 스며드는 맑은 공기에 눈을 뜨니 책임기사와 반장아바이의 근심어린 눈이 내려다보고있었다.

《정신이 드나? 정말 큰일날뻔 했네. 책임기사가 제때에 끌어냈으니망정이지.》

벗어린 솜모자를 주무르고있던 반장아바이가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그었다.

경주는 가까스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주복보다 더 요란스러웠던 작업복이 여기저기 벗겨진채 널려져있었다. 긴 방열복은 불타버린채 구겨져있고 발밑에는 안전모가 덩굴고있었으며 수경은 보이라벌밑에 박산나있었다.

어두워진 얼굴로 경주를 들여다보던 책임기사의 두눈이 점차 변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젖은 수건을 들고 달려온 현철이가 뜨거운 열에 빨갧게 데고 검댕이에 범벅이 된 경주의 손을 닦아주며 울먹거렸다.

《누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해요? 우리가 들어가면 안돼요?》

경주는 눈을 감았다... 모진 피로속에서도 눈물이 쏟아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목이 메여 소리

가 잘 나가지 않았다.

《책임기사동지, 허락없이… 들어간걸 용서하세요.》

《듣기 싫소!》

목갈린 고탈소리였다. 비칠거리며 몸을 일으킨 경주는 간절한 눈빛으로 책임기사에게 한발 다가섰다. 그리고는 바닥에 덩구는 온도계를 집어 들고 금이 간 유리를 손으로 정히 닦았다.

《금방 불을 끈 보이라굴뚝이 위험하다는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책임기사동지가 반대했다는것도…》

한철목의 성난 눈길에 경주에게 던져졌다. 경주는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보이라의 저 연기에 자그마한 먼지라도 섞여나갈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부끄럽고 참을수 없어요. 책임기사동지도 알고있겠지만 얼마전 어느 한 세멘트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굴뚝에서 100% 정화된 깨끗한 연기가 나가는것을 보시고 그러도 만족해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는 학생들의 교과서에서조차 연기가 나오는 공장굴뚝의 그림을 없애야 한다고, 우리 후대들의 눈동자에 맑고 푸른 하늘만 비끼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누구나 공장이 돌아간다는 기쁨으로 원래 있던 제진장치에 만족해서 생산만 부르짖고있단 말입니다. 생산만!… 책임기사동지가 바로 그랬지요.》

《뭐요?!…》

엄하게 번득이던 한철목의 두눈에서 불이 꺼졌다. 숨모자를 주무르던 반장아바이의 거친 두손도 굳어지더니 이어 신음소리같은것이 새어나왔다.

무릎꿇고 앉은 아바이의 굵은 등을 바라보는 경주의 두눈에도 어느덧 뽕안 안개가 서리였다.

《전 대학교단에서 깨끗한 물과 공기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원이예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가장 깨끗한 물과 공기를 주시고 이 세상 제일 맑고 푸른 하늘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마음쓰시는데 환경공학을 가르치는 교원인제가 깨끗한 물과 공기에 대하여 말이나 해서야 되겠어요. 예?... 대답해보세요!》

경주는 자기에게 다가온 현철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만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저 보이라의 연기는 정화되어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공장생산규모가 확대될 때 지금 있는 제진장치능력은 문제로 될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하여 먼지가 섞인 연기가 수도의 하늘에 날린다고 생각하면 전 정말… 책임기사동진 이것이 가슴아프지 않으세요? 그 미세한 연기가 그래도 대수롭지 않은가 말입니다.》

발밑에 눈길을 박은 한철목은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기라도 하듯 괜히 여기저기 손더듬하며

주머니를 뒤지고있었다. 깨어진 수경의 유리조각들이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발에 밟혀 바국바국 소리를 내었다.

《연구사선생!…》

반장아바이가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그때 열려진 문밖으로 몸이 등실한 홍란이가 비집고 들어서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아유! 책임기사동무가 여기에 있는걸 온델 찾아다녔군요. 지배인동지가 찾아요. 아까부터!… 가만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니? 경주가 온담부터 책임기사의 발길이 잦아진다? 어마!… 책임기사동무가 바빠하는걸 봐!》

《왜 떠드는거요? 그 버릇을 그쳐…》

한철목은 괜히 경주쪽을 얼핏 스쳐보더니 반장아바이에게 화가 난듯이 말했다.

《아바이, 연구사선생 더운 물이라도 떠다주시오. 그 모양이야 어디 봐주겠습니까?》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나가버렸다. 깔깔거리던 홍란이가 먼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하더니 그의 뒤를 따라 종종걸음으로 사라져갔다.

반장아바이가 뭐라고 했다. 그러자 현철이가 보이라쪽으로 가더니 뜨거운 물을 소랭이에 가득 담아왔다.

《누이, 거울 좀 보라요. 백설공주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까막공주가 있다는 소린 못 들었어요. 그 얼굴로 거리에 나가면 총각들이 다 들구뛰구말겠어요!》

소랭이를 들고 얼른 한쪽 구석으로 다가간 경주는 손거울을 꺼내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마나?!》

그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온통 검댕이칠을 한 남모를 얼굴이 눈만 반짝이면서 자기를 올려다보고있었다.

《이런것도 모르고…》

부랴부랴 세면을 하던 경주는 생각난듯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비누가 없다.

경주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현철이가 알려주었다.

《뭘 찾아요? 깨끗해졌는데… 우린 비누를 안 써요.》

비누를 안 쓴다구?... 그리고보니 수도물에는 잘 씻기지 않던 검댕이들이 깨끗하게 지워졌었다.

신기하게 웃으며 다시 더운물에 손을 담구던 경주는 말끔히 씻기는 먼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굳어져버렸다.

폐수!… 폐수에 먼지가 씻기고있다!

무엇인가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그 어떤 실마리가 잡히는듯 했다. 멍하니 소랭이의 물을 들여다보다가 가늘게 부르짖었다.

《아바이, 이보세요! 어서!… 현철이두!》

경주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흠치면서 놀라서 달려온 그들에게 소랭이의 물을

가리켰다.

《이게 뭔지 아세요? 토출수! 토출수예요!... 보이라미에 남는 가스를 잡는 물이란 말이에요!》

눈이 휘둥그레졌던 아버지는 이마를 찌프리었고 뒤에서 넘겨다보던 현철이는 배를 그러쥐고 웃어댔다.

《아이구 누이, 웃기지 말라요! 그게 뭐라구. 아니, 보이라에 남아있는 물이 어쨌다구요? 뭐 달나라 물이라도 떠온것처럼...》

경주는 정색하여 말했다.

《아니, 환경보호전문가들에겐 정말 신기한 달나라 물이야! 여기엔 칼시움이 농축되어있기때문에 아류산가스를 잡을수 있어.》

아버지와 현철이는 서로 마주보았다.

아깝지 않게 늘 써버리던 흔한 물이었던것이 다.

경주는 기쁨에 겨워 계속했다.

《찾았어. 폐가스를 중화시키는 물! 바로 이거야. 폐수로 폐가스를 처리하는... 바로 이거란 말이야!》

소리내어 웃었다. 아버지와 현철이는 정신없이 웃고있는 경주를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보고있었다.

경주는 번개처럼 떠오른 착상이 달아날가봐 겁내는듯 급히 작은 수첩을 꺼내들고 부지런히 적어넣었다. 다음장에는 보이라에서 물을 끌어내는 장치를 대충 그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말없이 보이라실을 뛰쳐나가 기사장방으로 달려갔다. 어느때처럼 기사장은 반겨맞았다.

《뭐가 필요하대구요? 물 끌어들이는 쇠판?...》

경주는 숨이 차서 헐떡이며 설명했다.

《아직 완성된것은 아닙니다. 보이라에 남아있는 토출수는 높은 압력에 눌려있기때문에 그 상태로 뽑으면 증기로 날아나고합니다. 그리고 발브로 물을 받아 쓰자면 뽑프를 설치해야 하고 또 귀중한 전기를 써야 하고...》

그래서 전 보이라의 압력을 리용한 이런 형태의 쇠판을 설치해보자는겁니다.》

기사장은 경주의 수첩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음... 좋구만, 아주 괜찮아. 현대 말이요. 우리 공장에선 힘들겠구만. 기계공장이 아니어서...》

경주는 아연한 눈길로 기사장을 쳐다보았다.

그럼 못하겠다는 소리인가? 기사장의 얼굴에서 또다시 주름살들이 파도쳤다.

《아, 뻘소. 뻘소. 토론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두고 갔다가 후에 다시 와보오.》

기사장의 호방한 대답에 마음이 놓였다. 물론 다른 공장에 부탁해야 하니 기사장도 쉽게 대답할수는 없을것이다. 하지만 약속했다. 고마운 사람!... 제일처럼 두팔걸고 도와주는 기사장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기사장방에서 나온 경주는 별안간 경쾌하게 옮기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디선가

자기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지긋은 눈길을 느꼈던 것이다.

사방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걸음을 옮기던 경주의 눈길이 어느 한 창문으로 옮겨졌다. 그쪽에서도 경주를 보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다음순간 이쪽을 지켜보던 창문의 그림자가 사라져버렸다. 경주는 여전히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것은 책임기사의 방이었다.

4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나날이 경주의 얼굴에 서는 웃음이 사라져갔다.

제진장치... 방도를 찾지 못한 폐수처리장치...

스스로 하고싶어 나선 일이지만 너무나 힘에 부쳤다. 금시라도 쓰러져 일어날것 같지 못했다.

그날도 경주는 교수가 끝나자 일찌감치 집으로 향했다. 모든것을 다 잊고 쉬고싶었다.

다문 며칠이라도... 집에 가면 또 어머니의 지친 친구가 시작될것이다.

《네 나이 지금 몇이나? 밤낮 검맹이칠을 하구... 요즘 처녀들은 화장품만 해도 수십가지를 쓴다더라. 그런데 넌 시집갈 생각은 전혀 안하니... 글썽 글썽에서 꼴단지가 나온다더냐 총각이 나온다더냐?》

거기에 대답할 말은 없다. 할 필요도 없다.

머리를 짓속이고 지친 발걸음을 옮겨가던 경주는 갑자기 아이들이 벽장대는 소리에 눈길을 들었다. 아파트밑에서 입에 깔때기를 문 조무래기들이 서로 물뿜기를 하면서 뛰어놀고있었다.

《내가 더 멀리 갔어.》

《아니야. 내가 더 많이 갔어.》

예닐곱살 되여보이는 처녀애와 그 애의 오빠인듯 한 조금 큰 총각애가 서로 지지 않으려고 싱갱이질을 했다. 두볼을 잔뜩 불구어 깔때기를 불어대던 처녀애는 그것이 성차지 않는지 제것을 내박치며 무작정 오빠의것을 달라고 졸라댔다.

그러자 총각애는 물통에 담긴 깔때기를 처녀애의 손이 닿지 못하게 높이 쳐들더니 저쪽의 조무래기들속으로 달아뺐었다.

무엇이 경주로 하여금 그 애들의 놀음을 지켜보게 하였던가?... 그는 갑자기 오던 길을 되돌아 정신없이 뺄스정류소로 뛰어갔다.

《같이 가자요!》

금방 떠나려는 뺄스에 무작정 뛰어올랐다. 그러자 눈살이 꺾끗해진 차장이 위태롭게 대탈린 경주를 끌어당기며 야무지게 소리쳤다.

《정신있어요. 사고나면 이뺄려구?》

《미안해요.》

자기 목소리가 아니었다. 속삭이듯 한 그 말에 차안의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그으며 자

기를 쳐다보는것도 알지 못하고 꿈꾸듯 웃고있었다.

분무! 속도와 압력간 관계법칙. 아니, 베르누이 정리!...

고무공장정문에 다달은 경주는 누가 말릴새도 없이 바람처럼 뛰어들어갔다. 새로 온듯 한 점수 원너인이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사장방으로 향한 그의 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다. 그에게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려는것이다.

안개처럼 물을 뿜는 노즐이 필요하다. 그것만 있으면 될수 있는것이다!

기사장방은 복도 맨끝 두번째 방이었다. 성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너무 세게 두드린것 같다.

《예. 들어오시오》

흥분한 경주는 안에서 울려나온 소리가 전에 들던 목소리가 아니라는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는 급하게 방에 들어서며 땀에 젖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문질렀다.

《기사장동지, 찾았습...》

다음순간 경주의 젖은 손수건이 코등에서 벗었다. 주름깊은 기사장이 아니라 한철목책임기사가 앉아있었던것이다.

《연구사동무가 어떻게?... 어서 오시오. 반갑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반가운 기색이란 전혀 없었다.

역시 무뚝뚝한 표정일뿐...

《저... 기사장동지를 만나러 왔는데요.》

《내가 기사장이요.》

그만 입이 열여붙었다. 원주필 뒤등으로 책상을 그루박으며 쳐다보는 그의 눈길을 피했다.

《그럼 전... 가보겠어요.》

《가만!》

기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주를 멈춰세웠다.

《동무는 일하자는 사람이요, 아니면 들놀이 다니는 사람이요?》

《예?...》

입술을 깨물었다. 어쩌면 사람이! 새파랗게 질리는 그를 느끼지 못한듯 기사장이 계속했다.

《동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일하오? 말해보시오, 왜 왔는지?》

잠시 눈길을 떨구었던 경주는 결심한듯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책상앞으로 다가가 결상에 앉았다.

《전 이 공장에 와서 보이라폐수가 먼지를 잡는데 제일 효과적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걸 뿜어주는가 하는 방도를 찾지 못해 속을 썩이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거리에서 깔때기를 입에 물고 비누거품을 뿜어대던

아이들이 바로 그걸 대궐단 말입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알겠습니까?》

그것은 설명이라기보다 그 누군가에 대한 도전적인 말투였다.

그러건말건 기사장은 원주필로 책상만 두드리고있었다. 마치도 지루함을 가까스로 참는다는 의미같았다. 안개처럼 미세한 물방울을 분무하려면 어떤 형태의 장치가 있어야 하는가를 고집스레 설명하는데 한철목이 끝내 말허리를 꺾었다.

《그래서 말하자는게 뭐요?》

경주는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가겠어요!》

《왜 성내는거요?》

《뭐예요?》

《그러니 강도높은 노즐이 필요하다는거겠소? 베르누이정리를 리용한...》

저도 모르게 입이 벌려졌다. 경주는 처음으로 한철목의 치며보는듯 한 두눈을 스스럼없이 마주 보았다.

《그걸 어떻게?...》

한철목은 서둘지 않고 책상서랍을 열어 종이장을 꺼냈다.

《이게 동무가 그렇게 아니요? 이걸 보니 뭐가 필요한지 다 알리더구만.》

한철목은 종이장을 그에게로 밀어주었다. 한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던 경주는 아무말없이 손을 내밀어 자기가 한때 고심하여 그렸던 그 도면을 천천히 앞으로 끌어갔다. 지난해 겨울 전 기사장 아바이가 적극 도와주겠다던 폐수장치도면이었다.

그처럼 적극적이고 약속도 많던 기사장...

사람들에게 늘 웃는 낮으로 친절하게 해주면서도 어느 한 약속도 지킨것은 없다.

손에 들었던 도면을 말없이 구겨쥐었다. 이들에게는 중요치 않으니까. 시끄러운 남의 일이니 까... 이젠 다른 공장에 가는수밖엔 없다. 지금껏 관찰해온 모든 연구성과는 헛수고로 되고말았다.

품들인 많은 시간을 버려야 하고... 또 저 제진 장치를 그대로 두고 가야 했다.

경주는 눈길을 떨군채 까딱하지 않고 그대로 서있었다. 맑은 물방울이 발밑에 떨어지고있었다.

울고있는것이다. 무엇때문에 우는지도 모른다.

기사장에 대한 원망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불만때문인지...

경주는 고개를 짓속인채 돌아섰다. 문을 밀었으나 열리지 않는다. 다시 힘주어 밀었다. 아니, 당겨야 하지...

《연구사동무! 동무, 경주!》

성급하게 소리치는 기사장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렸다. 마치 사라지는 그림자를 붙잡아 세우기라도 하듯... 잠시 주춤거렸으나 입술을 깨물며

끝내 문을 열고 나섰다. 믿지 않아!... 힘껏 도와 주겠다고 약속했던 전 기사장도 손털고 나갔었는데 저 사람이야...

기사장방에서 나온 경주는 발이 가는데로 보이 라실로 향했다.

《아니, 경주선생이? 참 오래간만이우다.》

반장아바이가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수머리 현철이도 어깨가 처진 경주를 보며 히죽 웃었다.

《누인 왜 우리 공장에 올 때마다 흐린 날씨예요? 한철목기사장하고 또 다투었어요?》

경주는 가볍게 머리를 저었다.

《뭐, 다투기는... 원래 그런 사람인걸.》

《누이, 기사장이 미워요? 그래도 지내보면 진짜 남자는 우리 기사장인데요. 멋쟁이라니까요! 우리 공업대학 학생들에게 짹짹 공학을 배워줄 때면 무섭게 후려치군 한답니다. 평범하고 학벌이 부족하다나요. 그 유명한 페르마의 대정리가 수백년동안 풀리지 못한것이 뭐 우리 공업대학 학생들에게 죄가 있는것처럼 말이에요, 형!》

경주는 무심한 눈길로 현철이를 바라보며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또 정리로구나. 페르마, 베르누이의 정리... 생활의 정리는 하나도 모르면서...》

《예? 뭐라고요?》

경주는 아무것도 묻은것이 없는 샤쓰앞센을 정성들여 털었다.

《아니, 내 생각이야... 현철이. 그동안 고마왔어. 반장아바이두...》

《아니? 그건 무슨 소리예요?》

현철이가 놀라서 되물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두고 가겠다는건가?》

반장아바이의 주름진 눈귀도 쪼프려졌다. 쓸쓸한 미소가 경주의 입가에 비꼈다.

《예, 다시 오진... 못할겁니다.》

당장 그가 돌아가기라도 하듯 덤벼치며 경주앞을 막아선 현철이가 손세를 써가며 떠들기 시작 했다.

《무슨 소릴 해요, 누이. 우리 기사장이 큰소리는 쳐도 그전 기사장하군 달라고. 내가 얼마나 말했어요. 이전 기사장은 <하자>기사장이었지만 우리 형님은 <하는> 기사장이라고요. 우리에게 누이를 잘 도와주라고 매일같이 말한 사람두 기사장형님이예요. 녀성의 몸으로 그렇게 애쓰는걸 잘 돕지 못했다고 얼마나 가슴아파했게요.》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 기사장에 대한 자랑과 존경이었다. 그러고보니 현철은 말투와 몸가짐에서도 한철목기사장을 모방하고있었다. 언제인가 흥란이도 현철이처럼 한철목기사장을 두고 진짜라느니, 미남자라느니 뭐가 또 어떻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경주는 머리를 저었다. 진실한 사람이라구? 인정이라군 조금도 없는 사람인데...

그랬지만 그의 머리속에는 《경주!》하고 소리 쳐부르던 한철목기사장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고 그냥 맴돌고있었다. 한철목에 대한 반감이 치밀어오를수록 그 고향소리가 가슴을 치며 울려오곤 했는데 그것이 무엇때문인지는 알수 없었다.

《정말 가시려우?》

반장아바이가 허리를 곧추 펴며 경주에게 다가와섰다.

《이 공장에선 더 못하겠어요.》

《철목기사장이 고까와 그러시우?》

아바이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실려있었다.

《선생은 이 제진장치를 무엇때문에 하우. 연구사선생은 수도의 하늘이 맑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그럼 누가 뭐라구 해도 해야 할게 아니요. 누구의 얼굴을 피해간다면 우리의 하늘이 얼룩져도 좋다는거요? 선생이 노엽게 생각하는 철목기사장도 그렇지 않수다. 선생이 그러준 쇠판도면이 전 기사장 책상서랍에 묻혀있는걸 찾아내서 기계공장에 보내여 깎아온것도 바로 기사장 그 사람이우다. 어찌된 일인지 생각대로 잘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마 선생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을거우다.》

경주는 뚫어지게 아바이를 쳐다보았다. 한철목 기사장이 기계공장에 도면을 보냈었던 말인가?... 다름아닌 한철목기사장이?

무뚝뚝하고 그렇게 인정없어보이던 그 사람이 바로 제진장치때문에 뛰어나셨다는것이다.

그는 다 알고있었구나... 무엇인가 아지랑이가 같이 정답고 아련한것이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그를 타하고 나무라면서도 계속 이 공장으로 찾아온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건 무엇때문일까? ...

불현듯 지금껏 잠자고있던 심장이 쿵쿵 뛰는것을 느끼며 경주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기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가 무서웠다. 무슨 생각을!... 했으나 한철목에 대한 고마움은 경주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미로 깊이 새겨지고있었다.

《아바이, 고마운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혈육처럼 정들고 다정해진 반장아바이와 현철이 변함없이 자기를 위해준 이들이었다.

이윽고 경주는 그들에게 눈인사를 하고는 어두워지는 보이라실을 나섰다.

얼마후 정문쪽으로 가던 길에 그는 한순간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돌려보았다. 웬일인지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닿는 곳이 있었다. 그런데... 우람한 체구가 비꼈던 그 창가에는 불이 꺼져있었다.

매일 교수가 끝나면 경주는 자기가 그린 도면을 들고 시안의 기계공장들을 찾아다니곤 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화번호책을 뒤지며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기계공장은 더 돌아다녔고 기사장이란 기사장은 다 만나 보았다. 노즐이 문제였다.

컴퓨터모의시험에 의하면 보이라페수자체의 높은 압력과 속도에 의해 분사는 되는데 노즐구멍의 크기에 따라 그 분사알갱이들이 폐가스와 함께 증발되거나 반대로 무거운 액체가 되어 침강실로 떨어지곤 하는것이다. 때문에 높은 속도와 압력을 리용하여 미세분사를 하는 가장 합리적인 노즐을 만들어야 했다.

눈에 띄게 까칠해진 경주는 그날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어느 기계공장에 들렀다가 맥없이 돌아오고있었다. 극도로 피로하여 걷는것도 힘들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웬 녀자가, 안면있는 한 녀인이 그를 뚱 막아서고있는것이였다.

《애, 경주! 너 왜 요샌 우리한테 오지 않니?》
홍란이였다. 자기의 성미 그대로 길바닥에서 소란스럽게 떠들기 시작하였다.

《듣자니까 너 아직도 그러구있다면서? 야, 너 이게 무슨 꼴이니? 지금 몇살인지 알기나 하구 그래? 예, 예. 이젠 어머니의 속을 작작 태우렴. 그러다 시집두 못 가보구 늙겠어.》

남편과 함께 곱게 차려입힌 두 아이들의 손목을 쥔 그는 아직도 시름에 겨워 홀로 시내를 돌아치고있는 경주가 한심하다는듯 눈을 흘기고 혀를 찼다. 경주는 심드렁한 어조로 물었다.

《온 가족이 어딜 이렇게?...》

《가긴 어딜 가겠어. 극장에 가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난 홍란이는 한발 앞서가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떠맡기고 누가 들을세라 경주의 귀에 바투 입을 가져다대었다.

《애, 우리 기사장 말이야. 장가간다! 아, 글썽-온 공장이 그 사람을 선보이자구 나섰는데 막 꼴을 내면서 <난 이미 보아둔 녀자가 있소!> 하더라지 않니? 그 똑박새가 제 속궁냥은 다 하고있었더구나. 그런걸 모르고 괜히 결가마들만 꿸었지.》

바람이 불어왔다. 비가 오려는가... 물기를 머금은 습한 바람이다. 이상하게 마음이 아릿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경주는 이마에 흘러내린 앞머리를쓸어들었다. 무엇인가 더 물으려 했으나 얼어붙은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아니,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응? 어디 아프니?》

실새없이 떠들던 홍란이가 급기야 창백해진 경

주의 이마에 손을 얹으려 했다.

《아니, 일없어...》

그를 밀어버린 경주는 뭐라고 소리치는 홍란이의 목소리를 등뒤로 들으며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발이 가는데로 말긴것이다.

얼마나 걸었는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안에까지 환히 들여다보이는 커다란 회전유리문이 앞을 가로막았던것이다. 인민대학습당 나들문이다. 홍란이와 헤어진 그는 집으로가 아니라 인민대학습당으로 왔던것이다.

열람실에 들어간 경주는 여느때처럼 책상에 마주 앉아 문헌자료를 펼쳤다. 그러나 생각은 지못게도 다른 곳으로 향하고있었다. 고무공장이며 반장아바이며 현철이... 그리고 떠나는 경주 자기를 소리쳐 부르던 한철목기사장... 그 거친 목소리가 어째서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그냥 맴돌고 있는지...

경주는 한숨을 내쉬며 책상우에 팔굽을 댄채 무거운 이마를 고였다. 이렇게 종일이라도 앉아 있을것 같았다.

어느덧 벽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있었다.

피로해진 경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등이 비치는 홀로 걸어나갔다. 답답하던 가슴이 확 트이였다. 숨을 한껏 들이쉴다. 조금 있으면 머리아픈것도 나아질거야. 이렇게 좀 거닐면...

여기저기 기둥밀이며 창가의 의자에 앉은 대학생들이 책을 읽거나 저들끼리 낮은 소리로 소근거리고있었다.

그때였다. 복도 맨 끝에서 문 당기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 도란도란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경주뿐아니라 책을 읽던 대학생들까지도 머리를 들었다. 창문을 등진 커다란 체구가 그에 어울리지 않게 자그마한 녀성과 함께 나란히 걸어오고있었다.

무심히 그쪽에 눈길을 주던 경주는 그만 숨이 꺾 막히는것을 느꼈다. 씨름선수같은 체구... 걸걸한 웃음소리와 성급하게 옮겨짚는 걸음새... 한철목기사장이였다!...

한손에 접혀진 도면같은것을 든 한철목은 옆에서 뭐라고 설명하는 그 자그마한 녀성의 이야기에 시종 싱글벙글 웃고있었다. 경주는 일어나간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무뚝뚝하고 거칠고 지어는 물풍스럽기까지 하던 한철목이 저렇게 환히 웃는것을 처음 보았던것이다.

그가 웃을줄 안다는것이 놀라왔고 웃고있는 그 얼굴이 그처럼 환하고 잘나보이는것이 놀라왔다.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한철목은 경주가 앞에 서있는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것이였다.

그를 부르코싶었으나 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저도모르게 몇발자욱 그의 뒤를 따라갔다.
무엇에 걸체였다. 내려다보니 유리같이 매끈한 바닥엔 아무것도 없다. 또 몇발자욱...

그만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버린 경주는 몸매 작은 너인과 한철목이 출구인 회전문으로 사라지는것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갑자기 예리한 칼날이 가슴을 저며내는것을 느꼈다.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웬일일까. 아파오는 이 마음은?...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로수들이 비바람에 흔들리고 오가던 사람들이 비를 그으려 어데론가 뛰어가고있었다.

얼마후 학습당을 나선 경주는 고개를 짓속인채 뒤편에 앞을 가리는 비속을 걷기 시작했다.

후두둑!... 차거운 비방울이 얼굴에 휘뿌려졌다. 속눈썹에 매달렸던 비방울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맛보는 쓰라린 아픔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제 철을 밟았다. 여름내 피어있던 꽃들이 씨앗을 뱉으며 스러지고 푸르던 나무잎들엔 황이 들기 시작했다.

그랬건만 경주는 여전히 제진장치를 불안고 헤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아직 앞은 보이지 않는데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노즐가공에서도 진척이 없었다. 현재 간편하게 되어있는 노즐이 미세분사를 하자면 거기에 새로운 장치를 덧붙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가가 많이 들고 구조가 복잡해져 시안의 공장굴뚝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것이다. 강좌에 있는 동료교원들과 강좌장도 현재노즐로 미세분사를 얻으려고 함께 애썼으나 더 어찌지 못하고 손을 들고말았었다.

그날도 한 강의를 끝낸 경주는 다음 강의에 들어갈 차비를 하고있었다. 강의가 끝나면 곧 기계공장에 나갈 생각이였다.

《경주선생, 전화요!》

교수준비를 검토하던 강좌장이 경주에게 전화를 넘겨주었다.

《예, 환경공학부장좌 리경주입니다.》

《고무공장기사장이요!》

순간 경주는 숨을 멈추었다. 한철목기사장? 그가 어떻게?!... 송수화기를 쥔 손가락들이 갑자기 추위에 언듯 곱아들었다. 동시에 아득히 사라져버렸던 어떤 아픔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깨어나는것을 느꼈다.

《이제 당장 나에게 와줄수 없겠소?》

《예?》

뜻박이였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전 오늘 시간이...》

《오시오, 당장. 기다리겠소!》

그는 요구했다. 아니, 명령했다.

절커덕! 저쪽에서 내던지듯 송수화기를 놓는 소리가 전류를 타고 고막을 때렸다. 옆에 있던

강좌장이 얼굴에 비해 좀 클사 한 안경너머로 파리해진 경주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약속한 총각이요? 다들면서 정이 드는 사람두 있지.》

어성늙은 한철목의 목소리가 강좌장의 귀에까지 들린 모양이였다.

《...》

경주의 침묵을 제나름대로 해석한 강좌장은 보고있던 교수안들을 거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주선생, 어서 가보오. 선생의 교수는 내가 대신 들어갈테니...》

등을 떠미는 강좌장에게 못이겨 밖으로 나선 경주는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고 결심했던, 온갖 고까운 생각을 다 모아가며 자신의 가슴속에서 몰아내려 애쓰던 그 무뚝뚝한 한철목기사장이 있는 고무공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낮이 거의 되어서야 고무공장정문에 들어섰다.

《이제 당장》 오라고 했지만 거의 한시간 반이나 걸렸던것이다.

기사장방에는 쇠가 걸려있었다. 잠시 문앞에 서있던 경주는 발길을 돌려 보이rasil로 향했다.

굴뚝이 가까와오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보이rasil에 이르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반쯤 열려있는 문틈으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있는것이 보였다. 씨름선수같은 기사장이 그들가운데 있었다. 광대뼈가 조금 불거진 기사장의 땀에 젖은 얼굴은 여느때없이 환하였다. 그옆에서 병글거리는 반장아바이며 현철이 그리고 또... 한 너인, 언제인가 대학습당에서 한철목과 나란히 걸어가던 몸매작은 그 녀자였다.

《아니, 거기 서있는게 경주선생 아니우? 참 잘 왔수다.》

그를 먼저 띄여본 반장아바이의 주름깊은 얼굴이 반가운 웃음으로 덮였다. 뒤이어 교수머리 현철이가 달려왔다.

《누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우리 기사장 형님이...》

경주는 그들에게로 이끌려갔다. 한철목이 현철이에게 소리쳤다.

《나머지것두 다 가져오라구!》

어디엔가 뛰어갔다 온 현철이가 헐쩍거리며 종이에 쓴 꾸레미를 경주앞에 쏟아놓았다. 쇠붙이들이 맞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노즐이였다. 도금을 한것처럼 번쩍거리는...

《아니!...》

한철목이 말했다.

《기계공장에 알아보니 미세분사에 대한 컴퓨터 모의시험에서 애를 먹고있더군요만. 인사는 이 대학습당연구사한테나 하오. 누이, 내가 말하던 그

환경연구사예요.》

경주는 생긱 웃고있는 몸매 자그마한 녀인을 마주보았다. 누이라구?!...

《동무가 경주선생이군요. 우리 동생이 늘 말하던!... 선생의 모의시험이 실패한건 높은 압력과 속도의 균형을 잘 조절하지 못했기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노즐처럼 분사구멍을 라선형으로 뚫어 준다면 뿜어나오는 토출수의 압력과 속도를 감소시켜주기때문에 폐가스를 통과시키는 합리적인 미세분사가 이루어질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한철목의 누이가 새로 만든 노즐을 내밀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우리 동생이 얼마나 마음썼는지 몰라요. 매일 같이 인민대학습당에 찾아와 나와 같이 모의시험을 했지. 경주를 잘 도와주지 못한걸 생각하면 밤잠이 다 안 온다고 하면서...》

흐뭇해서 바라보고있던 반장아바이가 한마디 했다.

《사람이야 진국이지.》

《보라고, 누이. 내가 뭐했어요? 우리 형님은 길고 뜨겁다구...》

...

자연은 너에게 푸름을 주었어도

선군은 너에게 맑음을 주었거니

...

이건 우리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누이가 푸른 하늘을 사랑하니까! 오늘두 글썽...》

한철목이 코밑을 문지르는 현철이의 어깨를 툭 쳤다.

《여, 현철이. 수다스럽긴, 제길할!...》

한철목은 괜히 노즐을 쥐었다 놓았다 하더니 얼굴을 붉히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원, 숨털두 안 나온 녀석이...》

반장아바이의 편찬에 금시 병어리가 된듯싶던 현철이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참, 아바이두. 우리 형님이 다른 처녀는 다 싫다고 한건 사실 아니예요. 차, 이런 말은 늙은이들만 하게 됐는가?...》

《이보라니, 할아버지들은 백명이 모여두 너처럼 떠들진 않아. 원 녀석두...》

경주는 어깨를 떨었다. 그러니... 보아둔 녀자가 있다고 한건?...》

가슴이 활랑거렸다, 심장이 다시 후두둑! 뛰기 시작했다. 비로소 연젠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던, 무엇이라고 적어 말할수 없던 그 아픔을,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것 같았다.

그는 보이라실을 뛰쳐나왔다. 한철목은 멀리 가있지 않았다. 드세고 단단해보이는 그의 널직한 잔등이 가까와졌다. 발걸음소리에 한철목이 떴어섰다. 천천히 돌아서더니 손에 쥐고 주물던 자그마한것을 내밀었다.

《자, 받소.》

그것은 온도계였다. 멧진 갑속에 들어있는 새

온도계... 그것을 꺼내드니 투명한 유리속에서 까만 눈금들이 새물거렸다. 한철목이 어줍어하며 말했다.

《다신 깨지는 일이 없을거요.》

한철목의 목소리는 웅글게 울리고있었다. 그 한마디한마디가 경주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고마워요.》

《사실 난... 동무와 마주설수가 없더구만. 푸른 하늘을 사랑하는 동무의 진실한 그 사랑앞에...》

경주는 그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며 속삭이듯 했다.

《됐어요. 더 말하지 마세요.》

한철목은 경주를 마주보았다. 경주도 맑은것이 가득 고인 눈으로 숏볼처럼 타오르는 한철목의 두눈을 서슴없이 마주보았다.

어찌 이런 사람을 따르지 않으랴.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람... 그래, 난 믿어!... 진실한 그리고 뜨거운 사랑앞에서는 열리지 않는것이 없다고!...

그리고 인민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드는 여기에 조국을 사랑하는 큰 심장이 있고 뜨겁게 사랑할줄 아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이 있다고!...

아득히 펼쳐져있는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에서 눈부신 햇빛이 부채살처럼 쏟아져내렸다.

아!... 푸른 하늘! 내 사랑하는 맑은 하늘...

×

그로부터 이태후 우리 나라의 첫 녀성환경공학박사가 된 경주는 소형환경측정기인 클리모마스터에 표시되는 측정값을 흐뭇하게 들여다보았다.

그는 벌써 손에 들고다닐수 있는 이 소형환경측정기로 평양시안의 골목들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했었다. 래일 아침엔 계산된 이 측정값들을 대비해보고 또다시 다른 공장으로 가야 했다.

똑똑... 손기척소리가 나더니 아들애를 안은 한철목이 들어섰다.

《이것 봐라! 너희 엄만 우리를 다 잊구있구나.》

《어마나? 당신이 어떻게?...》

도형표시화면을 골똘히 들여다보던 경주는 미소를 담뱃 피우며 남편에게로 마주갔다.

《또 밤을 새울것 같아 데리러 왔소. 자, 오늘은 그만 하고 들어가지요, 박사선생.》

경주는 남편에게 곱게 눈을 흘겼다.

《당신두 론문을 준비해야지요?》

한철목은 껄껄 웃으며 안고있던 아들애를 높이 쳐들며 혼들었다.

《그래야지 이 아버지의 론문지도교원은 너의 어머니가 돼야겠구나. 응?》

깜짝 놀란 아들애가 울려는듯 입을 비죽거리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그만 양!-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두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즐겁게 소리내어 웃었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송가문학과 백두산전설에서부터 시작되였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수령을 노래한 혁명적인 가요이다.》

《문학부문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남다른 인간적품모를 지니고계신다. 작가는 수령님의 혁명활동과정을 깊이 연구하고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의 위대한 품모를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시조

백송리에서

류명호

진달래
이날에 피지 못한 진달래가 있다면
어찌 백송리의 진달래라
4월 13일
이날을 기다려 이날을 그리며
산천에 피어난 백송리 진달래

못 잊어 못 잊어
그날의 진달래
전쟁의 불길속에서
탄생 40돐을 맞으시는 수령님께
대학생들이 드렸던 축원의 꽃다발

아 그날
포연에 절은 군복을 입으신 수령님
진달래꽃다발 안으시고
저 멀리 추억의 눈길을 엮으시였거니

항일의 그날
조국진군의 길에서
삼지연의 진달래를 안으시고

조국해방의 래일을 그려보시던
그날을 회억하시는가

백송리의 진달래를 안으시고
전승의 래일을 그리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미소
수령님의 햇빛같은 그 영상
세월이 갈수록 더욱 못 잊어

아,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타지 않고
피여 웃던 그날의 진달래
그것이 어찌 자연의 꽃이라 하랴
그것은 우리 수령님 전쟁의 불길속에서 피워주신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였거니

오늘도 우리 수령님
진달래를 안고 서계시는
력사의 땅 백송리
아, 백송리의 진달래는
년대와 시대를 이어오며 시들지 않고
영원히 피여 향기를 풍기여라

명령

아직도
화약내 풍기는 군복 입은 대학생들
아버이수령님께 말씀올렸어라
전쟁을 이기고
다시 대학에 돌아와 공부하겠으니
전선에 보내달라고...

자애깊은 눈길로
그들을 둘러보시던 수령님
조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싸움판에 뛰어들고싶어하는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었거니
《학습도 전투이다!》

그날부터 백송리 대학생들
침략자 미제를 죽이는 심정으로
펜이 무디면 바위돌에 갈아쓰고
수류탄등잔을 만들고
반디불벌레를 잡아 밤을 밝히며 공부했으니

아, 《학습도 전투이다!》
우리 수령님 이 명령으로
산속의 **김일성**종합대학을
백송리가 자리잡은 산밭을 들어올려
1211고지와 어깨나란히 세워놓으시었어라

담배이야기

대학생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신 수령님
학습에서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다시 물으시었네
더 제기할것이 없는가고

너무도 인자하신 수령님께
너무도 소탈하신 아버지께
누군가 또다시 말씀드렸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담배를 좀 보내주시시오
공부하다가 자꾸... 담배생각이 나서...

-담배라
전투 설참이면 마라초부터 말던 동무들이
공부 설참이면 담배생각이 나겠구만

그러나 안돼
대학생들은 담배를 피우면 안돼

수령님말씀에
죄스러이 머리 숙이는 대학생들
그들이 어찌 알았으랴
백송리를 떠나신 우리 수령님
그들에게 담배를 보내주실줄을

어제날 화선병사들이
갑자기 담배를 끊기가 힘들리라
웅심깊은 사랑으로 보내주신 담배
그날부터 대학생들은 담배를 끊었네
아, 우리 수령님
담배로 담배를 끊게 하셨네

추억의 몇토막

밤나무골에서
우리 수령님 연설하실 때
갑자기 나타났네 미제놈 비행기들

수령님 신변이 걱정되어
교직원, 학생들이 급히 일어서는데
우리 수령님 호탕하신 웃음소리
-저놈들은 날 못 봐!

해빛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 모습 눈이 부시여 못 보는가
머리위에 떠있던 미제놈 비행기들
한순간에 얼음녹듯 사라졌네
태양앞에 감히 다가들었던 작은 얼음덩이처럼!

어느덧 밤은 깊어

우리 수령님 덮고 쉬실 이불 한채
 대학생들이 가져왔다는것을 아신 수령님
 고맙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도 이불을 가져왔다 하셨네
 생전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위해
 그리도 마음을 쓴 김정숙동무가 생각나서
 그래서 그가 만든 이불을 야전차에 싣고왔다고...

아, 수령님은 백송리에 혼자 오신것이 아니라
 어머님과 함께 오시였거니
 오늘도 백송리 수수한 농가집에 있네
 우리 수령님 덮으시였던 그날의 이불
 아, 수령님과 어머님은 오늘도
김일성 종합대학과 영원히 함께 계시네

×

그날은 언제였던가
 백송리-산속의 대학에 찾아온

백송리의 하루는 한세기보다 길다

우리는 왜 이토록
 수령님 백송리에 오셨던 하루
 그 하루를 못 잊어 하는가
 이 땅에 전쟁의 포연이 사라진지도
 반세기세월이 흘렀건만
 이제는 전후에 태어난 새세대들이
 어른들로 자라났건만
 백송리를 못 잊어 온 나라 인민들이 찾아오거니

아 우리 수령님
 전승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설계도를 펼치신
 력사의 땅 백송리

백송리의 그 하루속에
 내 나라 내 조국의 오늘이 다 있거니
 보아라
 날바다를 가로막은 세계굴지의 서해갑문을
 북부철길과 간석지개간, 크고작은 발전소들을...

잊을수 없으라
 대동강에 새로 일떠선 갑문을 찾으신

《쁘라우다》 특파기자
 그는 걸음걸음
 놀라움과 감탄을 연방 뿔어올렸어라

세계전쟁사에
 전쟁과 대학이 함께 있어본적은 없었다고
 전쟁시기에 최고사령관이 대학을 찾으시고
 전후복구건설설계도를 펼치신분은
 오직 한분 **김일성** 장군님뿐이시라고

《쁘라우다》 특파기자의 목소리
 오늘도 메아리되어 울려와라
 조국해방전쟁이 승리한 날은
 7월 27일이 아니라 4월 13일
 우리 수령님 백송리에 오신 날이라고!

우리 수령님
 오늘이 바로 내가 백송리에서
 대자연개조구상을 한 날이라고
 그 구상을 **김정일**동지가 현실로 꽃피운다고
 그리도 만족하시여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을

정녕 잊을수 없으라
 낮과 밤 선군령도의 길에서도
 백송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의 기틀은
 백송리에서 마련되었다고
 수령님을 추억하시던 장군님의 그 모습을

아, 전화의 그날
 우리 수령님은 백송리의 그 하루속에
 천추만대 이 나라 후손들이
 부강번영속에 길이 살아갈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만년기틀을 마련하시였거니

그렇다
 백송리의 하루는 한세기보다 길다
 수령님 백송리에 오셨던 그 하루는
 세기를 넘어 천년만년 이어지리라

오, 4. 25!

김대성

4.25! 이날을 빛내고저
자랑스러운 우리 사단군기에
금별처럼 빛나는 그 이름 새겼습니다
항일의 총대 전통을 계승하고자
뜻깊은 이날을 가슴마다 새겼습니다

4.25! 바로 이날에
승리와 위훈, 존엄과 영광을 펼쳐온
백두산총대력사가 시작되고
탄생의 레총소리 안도의 밀림을 흔들며
이날 백두산강군의 고고성이 울렸습니다

4.25!
불패의 근위사단과련대의 군기마다
그 이름 모두 지녀
백두의 기상과 담력 도도합니다

4.25!
나도 이날을 빛내고저
군기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다졌습니다
우리 장군님 이날을 빛내라고
이날에 오서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아, 4.25!
백두의 우뢰마냥 안도의 밀림에서
20대의 청년장군을 우러러 터치던

그날의 환호성을 이어
금수산기념궁전의 태양상앞에서
열병행진의 발걸음소리도
우리 이날에 울렸습니다

이날이 없었다면! 이날이 없었다면!
내 딛고선 이 땅이 어찌 내것일수 있겠습니까
총대로 받드는 우리 당 우리 정권이 아니라면
내 조국의 존엄 누리에 빛날수 있겠습니까

청년 이날이 있어
백두산민족이 자기의 녀을 지녔고
수많은 총대가정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날이 있어
내 나라 내 조국에 철옹성이 높이 솟고
우리 인민이 세상에 대고 뽕뽕이 할말을 다하는
존엄높은 자주적인민
영웅적인민으로 되었습니다

오, 4.25!
이날은 백두산의 녀을 지닌
위대한 선군의 총대가 태어난 날입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피줄을 이은
수령결사옹위 총폭탄대오가
무적필승의 기상 온 세상에 떨치게 한 날입니다
강성대국의 억년미래를 총대로 담보해준 날입니다

최고사령관기를 우러러 《반들어총!》

신병강

봄빛 짙은 산밭을 넘어
방선천리 장병들의 끝없는 흙모의 마음들
저 멀리 평양의 하늘 우러러
《반들어총!》 높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는
경사로운 명절

해마다 건군절이 오면
어찌하여 우리 마음
못 잊을 **김일성**광장을 끝없이 활보하며
《반들어총!》 높이
그리도 뜨겁고 열렬한
심장의 환호, 격정을 터치는것이나

오늘도 쿵! 쿵!
이 가슴 울리며 들러오지 않는가
조선인민군창건 30돐경축 열병식광장
몸소 **김일성**종합대학 열병대오속에 서신
우리 장군님
태양이 빛나는 주석단을 우러러
《반들어총!》 높이
보무당당 행진해 나가셨거니

그날에 그이는
엄숙히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수령님은 세계군건설사가 모르는
주체적인 혁명무력의 본보기를 창조하신분
절세위인, 강철의 령장께
다름아닌 총대로 경례를 드리는것은

나의 최고 행복, 최대 영광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경의는
바로 《반들어총!》이라고

오, 《반들어총!》
그 한마디말씀으로
그이께선 다 깨우쳐주셨구나
위대한 수령님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는 전사의 자세
안도의 밀림에서
첫 탄생을 선포한 백두산군대
백두산혁명무력의 본분은 무엇이며
그 최고사명이 어떤것인가를

그렇다
백두산에서
총대로 개척된 주체위업
총대로 이어가셔야겠기에
그이는 열병광장에서
수령님께 《반들어총!》 경례를 드리신
그날의 그 마음으로
총대, 총대를 앞세워
온갖 력사의 역풍을 쳐갈기셨다

영광이여라
행복이여라
그날의 건군절 열병식광장에서

장군님 높이 드셨던
혁명의 총검을 이어받아
오늘은 새 세대 장병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신념의 《반들어총!》 높이 들었다

건군절의 이 아침
백승을 떨쳐온
총대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선군의 위력으로
내 조국의 존엄을 빛내가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을 우러러
《반들어총!》 높이 든
이 나라 천만장병들의
수령결사옹위의 맹세는 더욱 불탄다

위대한 령장의 손길 따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천지동란이 일어난다 해도
순간도 탈선이 없고
한치도 드림이 없을
총폭탄신념의 맹세가 비낀
백두산총대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뜨거운 격정의 환호를 터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반들어총!》
《반들어총!》

위대한 군인

원향일

나는 보았어라
복무의 나날속에
군기앞을 오가며 경례를 하는
장령, 군관들과 군인들의 모습을

허나 내 어이 알았으랴
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기앞을 지나시며 경례를 하시는
승엄한 그 모습 뵈옵게 될줄을...

한없이 위대하고 숭고한 그 모습에
군기의 기폭은 더 붉게 타고
그이의 군인기풍이 비껴
군기의 오각별은 더 밝은 빛을 뿌리는가

이 땅의 천만총대
그이를 위하여 있고
위훈 깃든 련대와 사단의 군기들도
그이 계시여 영광으로 빛나건만

그이는 바라지 않으시였다
그 어떤 특전도 특해도
군사규정을 지키는데서는
최고사령관도 예외로 될수 없다시며
평범한 군인의 자세로
군기앞에 손을 올리셨다

진정 그이는
백두산군인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포연에 절은 옷을 입으시고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하신분이여서
그이는 그렇듯 언제나 군인으로 사시였던가

삼복철에도 병사들과 꼭같이
소매 긴 야전복을 입으시고
한초한초가 귀중한 전선시찰의 그 길에선
규정의 요구를 지켜 차단소앞에서
병사들의 근무교대시간도 기다려주신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그이는 평범한 군인들의 그 마음이 되시여
노래를 부르시여도
병사들이 부르는 군가를 즐겨부르시고
병사들과 다름없이
야전식사 야전리발도 하시여라

명령과 군률로만 다스리는
장군도 사령관도 아닌
가장 겸허하고 평범하신 그 품모로 하여
가장 위대한신 우리 장군님

세상엔 군대도 많고
장군도 사령관도 많다 하지만
평범한 군인의 그 마음으로

군기에 손을 올려 경례를 하시는
그런 령장이 또 어데 있으랴

언제나 자신도 군인이라 하시며
스스로 혁명적군기를 세워가시는
선군령장의 숭고한 군인적품모로 하여
우리의 군력은 백배로 위력해졌거니

아 그날에 내 진정
위대한 군인이신
우리의 국방위원장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모습에서
강철의 군기로 다져진
백두산혁명장군
백전백승의 선군대오를 보았노라

나의 병사시절이 흘렀다

박성일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전선시찰소식
매일같이 걱정애 넘친
전호가의 아침

해빛처럼 환히 웃으시며
급시라도 우리 장군님
또다시 초소에 오실듯만싶어
고지의 산발 우러르는 눈가에

추억도 뜨거워라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날과 달 년년이 흘러온
나의 병사시절이여

그 나날
장군님 안겨주신 자동보총에
이내 숨결 뜨거이 없고없으며
나의 병사시절이 흘렀다

장군님의 야전차불빛 바라보며
장군님의 야전차동음 따라서며
나의 수호의 눈동자 불렀고
나의 심장은 뛴뛰였거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의 행군》, 강행군으로
불철주야의 전선길 이어가신
아 우리 장군님!

장군님과 함께 야전식사도 나누며
장군님과 함께 전연감시초소에도 서며
장군님과 함께 화선오락도 펼치며

장군님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며
나의 병사시절이 흘렀다

그이의 엄엄한 시선이 비껴간 산발마다
내 총검의 서리발 번뜩였고
그이의 태양의 미소 따뜻한 병영안에
내 랑만의 노래꽃, 웃음꽃도 피워

장군님과 심장의 대화를 나누며
장군님과 혈연의 정을 맺으며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슬하에서
내 성장의 몸과 맘 키워온 시절이여

최고사령관동지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내 필승의 신념 불태워온 나날이여서
내 결사옹위의 총대 버려온 나날이여서

날과 달 년년이 추억도 뜨거워라
장군님의 선군의 자욱 따라
나의 복무의 자욱자욱 새겨온
아, 나의 병사시절!

먼 후날
그 누가 물어도
내 긍지높이 대답하리라

위대한 선군시대
조국의 영광이 가장 빛나오른 나날
장군님과 사상도 뜻도
생사운명도 함께 하며
오, 나의 병사시절이 흘렀다!

영웅의 노래 높이 부르며

최항일

내 군복을 입고
고향을 떠나오던 그날
작은 수첩에 새겼던
리수복영웅의 시
오늘의 복무의 자욱자욱 빛내주는
선군시대군가로 이 심장 울리어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영웅의 그 노래 부르면
불타던 전호가에 그가 가꾸던
한그루의 애솔나무
이 가슴에 애국의 거목으로 뿌리내리고

그 노래 부르면
원췌의 불구멍 향해
한몸 육탄이 되어 달려간
최후의 그 열다섯발자욱이
내 삶의 이정표로 새겨지나니

정녕 부르면 부를수록
영생의 언덕우에 빛나는
영웅의 그 모습은
내 마음에 간직되어
오늘도 나와 함께 초소를 지키노라

아,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가사

조국앞에 남긴 영웅의 시를
선군시대 장엄한 군가로 터쳐
천만가슴 조국애로 불태워주시나니

노래여 너는 진정
무적의 힘 솟게 하는 용맹의 샘
금별의 위훈으로
내 한생을 값높이 반들어주는
영원한 투쟁의 노래

끝없이 울려퍼지라
장군님을 총대로 받드는
천만심장의 신념의 좌지에
필승의 장약을 다져주는
수령결사옹위의 대합창이여

준엄한 결전의 그날이 오면
병사들은 이 노래
멸적의 총포성으로 터치며
어버이장군님의 따사로운 품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싸우리니

장군님 안겨주신 영웅의 노래여
병사들은 언제나 너와 함께
21세기의 총폭탄영웅
제2의 리수복으로 한생을 빛내가리라!

백두의 해돋이

리명복

그대가 혁명의 먼길을 가려면
백두의 해돋이에 심장을 불태우라
그 심장 식지 않을 열정의 불이 되어
불바다 천만리도 웃으며 헤쳐가리
아, 장군님 추켜드신 선군의 붉은기
백두산 해돋이에 더 붉게 물들었네

그대가 인생을 참답게 살려면
백두의 해돋이에 온넛을 맡기라
신념의 강자만이 오르는 성산은

폭풍길 천만리 승리만을 떨치리
아, 장군님 추켜드신 선군의 붉은기
백두산 해돋이에 더 붉게 물들었네

그대가 인생을 후회없이 살려면
백두의 해돋이에 자신을 비취보라
순결한 량심만이 볼수 있는 거울되어
혁명의 천만리 끝까지 비취주리
아, 장군님 추켜드신 선군의 붉은기
백두산 해돋이에 더 붉게 물들었네

회령고향집 트랙에서

한창우

기다려
기다려
오늘도 기다려
사립문은 열려있고

그리움에
간절한 그리움에
송이송이 흰눈송이도
트락에 흰주단 펼쳤는데

회령고향집 사립문가엔
떠나가신 자옥만 있고
돌아오신 자옥은 없구나

그리워
그리워
회령천 맑은 물도
오산덕기슭을 감돌고

꽃피는 봄에 왔던 사람들
눈오는 겨울에 다시 오고
한번 왔던 그 걸음 쉬이 못 떠나
해방전 그날에 떠나가신 길
망양나루기슭에 오래도록 서서
뜨거움에 바라보는 어머니의 길
백두산으로 향하신 어머니의 길

여섯살 어리신 그 나이에
떠나가신 그날에 남기신 자옥은
작은 짚신자옥이건만
백두산녀장군의 거룩한 자옥은
위대한 태양을 받드신
혈전의 언덕과 눈보라길에
빛나게 아로새기시고

고향집트락에는 미처 못 새기셨구나
피어린 혈전의 수천만리
우등불 타는 밤 잠시 드신 쪽잠속에서도
《사향가》의 선률속에 그려보신 고향
이 트락에는 아니 새기셨구나

어릴적 어머니의 손잡고 두만강 건느실제
기어이 다시 오리라던 고향
장군님 모시고 싸우시던 나날에
나라를 찾고 다시 찾아오리라던
이 고향집 트락에
돌아오신 자옥은 없구나

아 해방의 환호성 터져오른 강산에
수령님 높은 뜻 꽃피우시려
위대한 헌신의 자옥
공장과 농어촌 그 어디나
조국땅 그 어디나 다 새기셨는데

결사관철의 그 한길에
결사옹위의 그 한생에
못견디게 못견디게 고향이 그리웠어도
아버이수령님 받드신 전사의 길에
백두의 자옥만을 이어가신 어머니

아, 어머니
김정숙어머님
자신보다 먼저 수령님을 위하시고
고향보다 먼저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시며
빛나게 아로새기신 그 자옥은
세월을 넘어 세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가 가야 할 전사의 길을
뜨겁게 새겨주고있어라

인사를 드리노라

김은숙

꽃다발을 드리노라
인사를 드리노라
나란히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어
만사람의 축복을 받은
신천의 딸들아

그대들이 택한 그 길이 편안한 길이라면
그렇듯 우리 심금 뜨겁게 울리랴
녀성들 누구나 쉽게는 가지 못하는 길
그렇듯 험치 않은 인생의 길을

선뜻 결심하고 발걸음 내짚은 그대들
그것도 한가정에서 세 딸들이 곧바로 이어갔으니
금할수 없구나 절로 머리가 숙어짐을...

어디 한번 잡아보자
젖은 손 언제 한번 마를새 없었던 그 손들을
어디 한번 다시 보자
남모르는 수고를 가슴깊이 묻어두고
웃으며 생활의 파도를 헤쳐가는 그대들의 모습을
오늘은 꽃수레에 등-등- 태워주고싶구나

바라보면
이 나라 산골마을 그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그 모습들
허나 어디서 그 장한 마음이 꽃피었느냐
남편들의 두다리가 되고 밝은 빛이 되며
인생의 아득한 높이에 올라선 녀인들이여

꽃다발을 드리노라
인사를 드리노라
때로는 새벽이슬 헤치며
약초들을 캐여 남편들의 보약을 달이던 그
아침들에
때로는 책을 읽어주며
남편의 탐구의 열정에 뜨거운 숨결을 더해가던
그 깊은 밤들에
남보다 더 무거운 생활의 짐을 지고 살면서도
언제나 밝은 웃음 꽃피워가는 그 모든 날들에...

둘러보면 세상엔
저 하나만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사는
인생들도 있건만
이 땅에서처럼 자기를 바치며

가사

온 나라의 기쁨이 되고
선군시대의 꽃으로 피여난 우리네 녀인들

그대들
선군시대의 아름다움이 어떤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 마음에
꿈과 리상을 다 없었기에
누구나 선뜻 못 가는 그 길을
장하게 걸을수 있는것 아니던가
그래서 더더욱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더더욱 존경하고싶구나

내 머리 숙여 큰절을 드리노라
예로부터 훌륭한 자식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 했거늘
이 아름다운 딸들을 키운 그대들의 아버지와
뜨거움에 목메이는 내 마음속에
자애깊은 영상이 안겨오나니
이 나라 인민들을 미덕과 전설의 창조자로
키우신
내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 우리 장군님의 영상

꽃다발을 드리노라
인사를 드리노라
해빛 눈부신 땅에 복받은 삶들아
인생의 먼길에는 바람 불고 눈비 내린다 해도
바라노라
그대들 앞길에는 언제나 꽃피는 봄날만이 있기를
언제나 열매 주렁진 가을만이 있기를

어제날 병사였던 남편들처럼
조국이라는 큰 전호에 서있는
오, 세자루의 총

병사를 사랑하라

문원모

불밝은 창가에 웃음꽃 피여날 때에
눈덮인 초소에서 병사들 밤을 지새네
그 웃음 영원하기를 그대 진정 바란다면
병사를 사랑하라 그 웃음 지켜선 병사를 병사를

강변길 거닐며 청춘들 속삭일 때에
아슬한 벼랑길로 병사들 뚫아오르네

그 사랑 영원하기를 그대 진정 바란다면
병사를 사랑하라 그 사랑 지켜선 병사를 병사를
조국에 바치는 병사의 사랑이 없이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어이 있으랴
그 행복 굳건하기를 그대 진정 바란다면
병사를 사랑하라 장군님 슬하의 병사를 병사를

담



김혜영

1. 불협화음

로경미는 2년전에 교원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에 배치된 23살의 처녀교원이다. 경쾌하게 추어올린 머리에 이목구비가 여무지게 들어박힌 동그란 얼굴이며 다부지고도 탄력있는 몸매... 모든것이 귀엽성스럽고 발랄한 인상을 주면서 생기와 열정을 끊임없이 발산시키는 처녀다. 그의 쟁쟁하고 청높은 목소리와 언제나 달리다싶이 하는 빠른 걸음새는 모든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했다.

이것은 그가 지닌 남다른 리상과 포부의 발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가 군소재지 소학교를 마다하고 궁벽한 교향으로 자진하여온데는 그 나름의 포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저녁 뜻밖의 타격이 야심만만하던 이 애젊은 처녀의 의기를 꺾어놓았다.

방금전 로경미는 퇴근준비를 하던 참에 교장의 부름을 받았었다.

《경미선생, 그 학급의 김영성학생을 옥희선생네 학급으로 옮겨야겠소.》

《예?! 왜 말입니까?》

경미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되물었다. 당치않은 요구를 받은것처럼 가슴이 마구 들뛰었다.

《영성학생의 집은 원래 선생네 지구가 아니지 않소?》

《그렇지만...》

경미는 숨이 탁 막히는듯 하여 더 말을 이을수 없었다. 영성이네가 옥희네 학급지기로 이사한것은 1학년때의 일이다. 옮기려면 벌써 그때 옮겼어야 하지 않는가? 그때는 경미가 옮기라고 권고했어도 영성이 어머니가 오히려 필쩍 뛰며 반대했었다. 이것은 실상 담임교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표시였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갑작스레 학급이동문제가 제기되다니? 이것은 누구에게나 단순한 지역관계로 리해될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히 담임교원에 대한 실망과 배척의 감정이였다.

교원에게 있어 이이상의 수치와 오욕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이것이 정말 영성이 어머니의 제기에 의한것일까? 아니면 새 학년도를 맞으며 교무부에서 취한 단순한 학급정리에 불과한것일까?

경미는 묻고싶었으나 피땀 떠오르는 예감이 그의 용기를 눌러버렸다.

그렇다. 학부형과의 토의없이 교장이 무작정 결론할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중요한건 영성이어머니가 충분히 그런 제기를 할수 있다는것이다.

하지만 경미는 충동적인 자격지심으로 하여 이 조치를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 학부형의 제기만이 절대권을 가지는것은 아닌것이다.

《교장선생님, 전 영성학생을 보낼수 없습니다. 더구나 옥희선생도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이건 교권과 관련되는 문제고 또...》

《옥희선생은 이미 영성이를 받겠다고 동의했소.》

《예?...》

경미는 소스라치듯 놀라 치켜뜬 두눈을 바르르 떨었다. 《동의했다》는 그 말이 마치도 《배신했다》는 말처럼 공명되어 뇌리를 때렸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피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

황혼이 짙어가는 구내길에 구두소리가 외로이 울렸다. 천천히 그러나 규칙적으로 울리던 그 소리가 문득 멈춰섰다.

경미의 앞에 한 처녀가 서있었다. 같은 학년을

담임한 원옥희였다. 경미와 달리 늘씬한 몸매에 얼굴도 기름하고 굵직한 머리를 어깨너머로 길게 묶어드러운 그는 모든것이 우아하면서도 여유작작해보인다.

두 처녀는 한날한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선 이래 아침저녁 출퇴근길을 함께 걸은 동무들이었다.

그러나 이 저녁 자기를 기다려준 옥희앞에서 경미의 심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간격을 둔채 한참동안이나 말없이 걸었다. 허나 이 침묵의 중압을 이겨내기엔 너무나 참을성이 부족한 경미였다.

《난 네가 영성이문제를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할줄은 정말 몰랐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모욕으로 되는지 네가 그래 모른단 말이나?》

《미안해, 경미! 너에게 타격이 되리란걸 알면서도... 영성이 어머니의 호소를 무시할수 없었어.》

오연하고 야멸찬 경미의 어조와는 상반되게 중음가수वाद 같이 부드러운 옥희의 목소리였다.

《그러니 결국... 친구의 인격이나 교권보다는 학부형과의 관계가 더 중하다는거겠지?》

《아니, 오해하지 마. 사실...》

옥희는 잠시 숨을 토틈더니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사실 영성을 내가 한번 키워보고싶은 욕망때문에 그랬어.》

《뭐?!》

경미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처음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다음순간엔 《그것도 말이라고 하니?》 하는 부르짖음이 새어나올것만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목이 바짝 말라들며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욕망... 욕망때문에 같은 교육자인 친구의 인격 무시도 서슴지 않는단 말인가? 그 욕망의 기초가 무엇이던간에 이겨야말로 동무들간의 의리를 론하기 앞서 교육자들간의 도덕문제가 아닌가?

쓰거운 경멸감이 리성마저 일구어버렸다.

경미는 껍 돌아서 결쾌있게 걸음을 옮겼다.

찍어박는 그의 구두소리에 뒤이어 옥희의 조용한 발걸음소리가 천천히 뒤따랐다.

전에 없었던 불협화음이었다.

경미의 쌍가풀진 고운 눈에 한점 눈물이 맺혀 떨어졌다. 멀리 유년시절부터 한마을에서 나서자라 소학, 중학을 거쳐 대학까지 함께 다닌 쉽지 않은 동창생인 옥희, 소꿉놀이시절은 물론 학창시절 전기간 서로 승벽을 다투는 경쟁자가 되어 무슨 일에서나 앞장에 나란히 서온 그들이었다. 하기에 교원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친구로 아침이면 제일먼저, 저녁이면 제일 늦게 나란히 걸어온 이

길이였다.

즐겁고도 애뒀던 하루를 보낸 저녁, 황혼빛에 흠뻑 몸을 적시며 팔을 끼고 나란히 걸음을 옮길 때면 가락맞는 두쌍의 구두소리와 함께 은근하고도 구성진 2중창소리가 대기를 흔들곤 하였다.

천송이 만송이 꽃들이
아름답다 해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비기라

진분홍빛노을은 처녀들의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도 물들인다. 교육자의 보람과 긍지가 고조되는 선물을 타고 한껏 양양된다.

나라의 영웅으로 어서 자라라
내 사랑 내 정성 다 바쳐가리

경미의 고음과 옥희의 저음이 기막힌 화음을 이루던 그 노래소리... 것처럼 아름답게 조화되던 이들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난것은 어느때부터였던가?

2. 영성이의 생일날

한달전 그날 저녁 경미에게 영성이 어머니의 초청을 전해준것은 옥희였다.

영성이네 집은 바로 옥희네 이웃이었던것이다.

경미와 옥희가 영성이네 집에 도착하니 대문에 까지 나와 기울거리던 30대중엽의 우등부등한 녀인이 반색하며 맞았다.

《아이구, 선생님 오시누만요. 애! 영성아, 어서 나와 인사드려야지.》

체가 크고 철셀얼굴이 둥그런 영성이가 나타나 꾸벅 인사를 했다.

《영성이! 생일을 축하해요!》

경미는 영성이의 머리를 정겹게 쓸어주고나서 가방에 들고온 기념품을 꺼내주었다. 그림장난을 좋아하던 그 애의 취미에 맞게 선택한 크레파스와 지우개 달린 연필묵음이었다.

영성이는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했다. 영성이 어머니도 기쁨에 넘쳐 음식들을 차리었다.

경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마치 아들생일이 아니라 경미자신의 생일이라도 되는듯이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채운것이였다.

경미와 옥희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큰 접시에 가득 담긴 찹쌀송편이며 닭고기를 푸짐하게 얹은 메밀랭면을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나 물러갔는데 영성이 어머니가 물을 권하며 주저주저 말을 꺼냈다.

《저...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오신김에... 한가지 부탁할것이 있는데, 욕하지 마시라고.》

《아이, 욕은 왜 하겠나요? 어서 뭐든지 얘기하세요.》

경미는 정말 영성이 어머니의 칭이라면 무엇이든 못들어주실수는 기꺼운 심정이었다,

영성이 어머니도 그것을 믿어마지 않는다는듯 용기를 내어 한결을 내짚었다.

《저... 우리 영성이두 공부를 시켜줬으면 해서 그래요.》

《예?!》

경미는 어리둥절했다. 그럼 내가 영성을 공부시키지 않는단 말인가?

영성이 어머니가 얼른 변명하듯 발을 달았다.

《사실 우리 영성이두 머리가 나쁜 애는 아닌것 같은데... 거 선생님이 특별히 관심한다는 아이들 속에 속하지 못하겠나요?》

경미는 그만 들었던 물고뿌를 상우에 내려놓았다. 지금까지 영성이 어머니가 학급일과 교원에게 남다른 열성을 보인것이 바로 이때문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절로 한숨이 새어나갔다.

사실 경미는 지난 1년간 교육사업을 해오는 과정에 눈에 뜨이게 지식발달이 빠른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타고난 총명한 두뇌에 향학열까지 결합되어 무엇이든 한번 배워주기 무섭게 받아들이고 부단히 앞서나가고 싶어하는 그 기특한 아이들에게 원심을 쓰지 않을수가 없었다. 학급의 전반적인 실력, 평균성적만을 중시하고 적당한 수준으로 두리몽실하게 교육해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에 이바지할 뛰어난 인재후비를 키워낼수 없지 않는가. 더우기 정보산업의 시대이며 지식전, 두뇌전의 시대인 오늘날 학생들속에서 나타나는 뛰어난 재능의 싹을 제때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는것은 무시할수 없는 현실의 요구이며 당의 뜻이기도 하다.

하여 경미는 학급전반에 대한 교수와 과외지도를 빈틈없이 해나가면서도 리해력에서 특별히 앞선 몇몇 아이들에 대한 개별지도를 따라세우고있었다. 힘든 문제들과 풀이방법이 제시된 참고서들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얻어다 주기도 하고 밤길을 걸어 가정방문도 하였다. 수업시간에도 그 애들이 제시된 문제풀이를 남먼저 끝내는것을 놓치지 않고 까다로운 지능문제를 만들어주었으며 숙제도 별도로 더 내주었다.

이렇게 하자니 시간과 품이 급절로 든것은 두말할것 없다.

영성이 어머니의 요구는 바로 영성을 이 앞선 학생들속에 넣어 특별한 관심을 돌려달라는것이다.

경미의 피로움은 그 요구를 들어줄수 없는 거

기에 있었다.

사실 이 앞선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4학년에 올라가서 있게 될 소학부문 최우등생학과경연의 준비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이 경연의 목적은 소학교들의 교육실태해와 학생들의 학습의 욕제고에도 있지만 기본은 나라의 수재양성기지에서 키울 대상선발에 있다.

바로 이 경연에서 자기가 맡은 학생을 최우수성적으로 당선시켜 선군시대의 과학기술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기둥으로 키워내는것이 경미의 꿈이고 리상이었다. 그 리상을 실현하자면 무한한 정열과 함께 그 어떤 인정에 사로잡히거나 편견에 기울어지지 않는 공정한 원칙, 교육자적량심이 필요하다고 경미는 확신했다.

하기에 그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엄정한 실력순위를 내기 위하여 한주일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시험을 쳐서 한달동안의 성적을 종합하여 순위대로 학생들의 이름을 벽보에 게시하여왔었다.

그런데... 매번 10~20등계선에 머무르는 영성을...?

《아니, 천진란만한 아이들의 마음에 의혹을 던져줄순 없어.》

경미의 생각을 알리 없는 영성이 어머니는 자기대로 하고싶었던 말을 터놓기 시작했다.

《우리 애는 탁아소때부터 엉뚱하구 머리가 좋다는 소릴 들어왔어요. 이진 진짜 거짓말 아닌데 네살때 세제지도에 있는 나라이름을 한번 대주니까 척척 다 짚었어요. 나두 어느 나라를 찾을라면 한참씩 눈을 굴려야 하는데 애는 글썽 글자두 모르는게 어떻게 신통히 짚어대는지 신기할 정도였다니깐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감탄과 놀라움은 경미가 아니라 옥희에게서 흘러나왔다.

《정말 아니문요! 그때 애 아버지두 내 말을 믿지 못해서 시험까지 쳐봤으니까요. 아버지가 나라이름을 부르든 애는 손가락으루 그 나라땅을 짚구, 아버지가 손가락으루 나라위치를 짚으면 애는 입으루 이름을 대었지요.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까자흐스탄〉, 〈몽골〉, 〈캄보자〉 ... 하구요.》

《어마나! 그래요?》

또다시 옥희가 놀란 소리를 치자 영성이 어머니는 더욱더 신바람이 났다.

《그뿐인줄 아나요? 유치원 가기 전에 벌써 달력에 나오는 글자들을 다 알구요, 그림책 한번

보든 제껴놓구 그대로 그랬어요.》

그러나 경미의 귀에는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현실과는 너무나 판이한 말이였기때문이다.

국어시간 받아쓰기할 때마다 절반밖에 못 쓴채 내곤 하던 영성이, 수학문제를 제시하면 맨 나중에야 뚱기뚱기 나오고 선생의 질문에 저마끔 대답하겠다고 아이들이 승벽을 부릴 때도 그 큰눈을 껌벅이며 부처님처럼 《점잖게》 앉아있기만 하는 영성이었다. 그런데?...

흔히 어린애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의 사소한 재롱에도 놀람과 기쁨을 금치 못하면서 그것을 신비하게 여기고 환상적으로 생각하다 못해 거기에 아이의 현란한 앞날에 대한 꿈을 얹어보곤 한다는것을 경미는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자식 미운 사람이 없다지 않는가.

그렇다. 하고 경미는 랭정하게 생각했다. 객관에게 인정되지 않는 재능은 아직 재능일수 없다.

부모에게만 비쳐지는 그것은 자기 아이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부터 생기는 일종의 주관이 낳은 억측이고 허상일수 있기때문이다. 혹시 자라면서 무슨 병이라도 앓아 머리가 둔해진것은 아닌지...

경미는 피로왔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4살때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왜 뒤떨어질까요? 솔직히 학급에서 영성의 성적순위는... 어머니도 학부형회의에랑 와보아서 아시겠지만...》

《예,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머리는 나쁜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각별히 청드리는데 아니나요?》

영성이 어머니는 약간 당황해하면서도 고집스레 반복했다. 하긴 어느 부모인들 자기 아이가 박사되기를 원치 않으랴. 하지만 영성이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준다는것은 공정성의 원칙에서 탈선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했다.

경미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영성이 어머니의 눈에서 한가닥 희망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버렸다.

《그러니 우리 영성인... 안될 아이라는건가요?》

경미는 서둘러 입을 열었다.

《너무 실망하진 마세요. 앞으로 제 좀 더 개별 지도를 해보겠어요. 만약 최우등생경연에 참가할 수준이 못된다 해도 랭심할건 없어요. 영성인 그림에 더 소질이 있으니까 중학교에 올라가서 미술소조에 넣어 공부시키면 훌륭한 화가가 될수 있을거예요.》

《에이, 그림공부나 해가지구 무슨 큰일을 치르겠다구?》

그러니 영성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지나친 환상에 사로잡혀있는것이 분명했다.

경미는 알릴듯말듯 한숨을 짓고나서 대답했다.

《영성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요. 제 힘껏 노력해보겠어요.》

《아유,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집에 종종 찾아와달라구요.》

영성이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그 집을 나오는 경미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한동안 무거운 걸음을 옮기는데 큰길에까지 따라나온 옥희가 이런 말을 꺼냈다.

《영성이 엄마 말을 들으니 그 애가 정말 범상치 볼 아이가 아닌것 같애. 잘하면 뛰어난 수재로 키울수 있지 않을까?》

《너두 참, 그럼 학생들의 실력평가를 어머니들의 말을 듣고 한다는거냐?》

경미가 어이없어 반박했다. 옥희도 지지 않았다.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 알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가 아니겠니?》

《어머니들의 말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의 호소에 불과해.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성적만이 객관성을 떠는거야.》

《그럼 영성이 어머니한테 한 대답은?》

《그거야 교원으로서 할수 있는것 노력하겠다는거지 그 애가 최우등생경연에 참가할수 있다는 담보를 준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 애보다 나은 아이들이 많은데 다 밀어내구 그 애를 내세운다는게 말이 되는가 말야.》

《...》

옥희가 말문이 막혀 대꾸를 못하자 경미는 결연히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옥희, 우리 교육자적량심에서 한번 말해보자. 지금 자식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부족 높아진게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는데 이런 때 우리 교육자들이 인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니? 진짜수재를 놓치구 <인공수재>나 만들어낸다면 그건 사회앞에 큰 죄악으로 된다고 봐. 강짜로 주입시켜서 일시적으로 성적을 높이구 그런 식으로 상급학교에 입학시켜 공부를 시킨다 해두 기껏해야 간판이나 쥐였지 실제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니?》

《그 말은 옳아. 그래서 교단이 신성한거구 교육자의 눈은 량심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거지. 나도 부모의 관심이나 열성에 따라 아이들을 차별하는건 용납할수 없어.》

《좋아! 그럼 난 가봐야겠어. 현철이네 집에 개별 지도를 계획해나서...》

경미는 옥희의 손을 꼭 쥐었다 놓고 돌아서 총

총히 걸음을 옮기었다....

그후 경미는 영성이의 지능을 계발시켜보려고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리해력에서나 문제풀이에서나 굵은 속도는 어찌할수 없었다. 가령 속도훈련을 시키느라고 《18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수는 몇인가?》라는 극히 단순한 셈세기문제를 내놓아도 눈을 껌벅거리며 한참동안이나 《심오한 사색》에 잠기는것이였다. 경미는 속이 바글바글 끓어 끝내 답을 기다려내지 못하고 짜증을 냈다.

《야참, 19 아니예요? 뭘 깊이 생각해볼게 있다가 그러구있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듯 《예, 19.》하고는 머리를 뻗뻗 긁는다.

이번에도 머리의 회전속도를 높일 목적으로 단순한 셈법문제를 내놓았다.

《영희가 20층에서 17개층을 내려왔습니다. 영희는 지금 몇층에 있습니까?》

누구나 제각 대답할수 있는 문제인데 또 한참 동안 궁리를 짜내느라 끙끙거린다.

경미는 어처구니가 없어 화를 낼 기운도 나지 않았다.

(이런 머리를 가지구 어떻게 복잡한 지능문제풀이를 한담?)

그런데야 집중력과 학습열의도 신통치 않았다.

문제풀이를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그림장난에 정신이 팔리곤 했다. 수학문제 두어문제 풀다가는 땅크, 또 두어문제 풀다가는 호비장수, 또 두어문제 풀다가는 참새, 꽃... 수학학습장인지 도화학습장인지 분간하지 못할 형편이였다.

(수재는 반드시 재능과 열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없으니...)

결국 영성이는 이 한달동안 앞선 학생들이 푸는 지능문제풀이에는 참가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것이 영성이 어머니의 실망과 불만을 자아냈을것이다. 물론 여기까지는 경미가 예견했던바이고 충분히 리해도 할수 있는 일이였지만 설마 옥희가 영성이를 말아키워보겠다고 나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3. 허상인가? 실체인가?

세면장을 나온 경미는 수건으로 얼굴의 물기를 훔치며 경대앞으로 갔다.

시원하게 넓은 거울에 그의 모습이 비쳐졌다.

통통하던 볼이 홀쭉 꺼지고 코등에 주근깨가 가뭇가뭇 살아났다. 쌍겹진 눈에도 충혈이 지고 얇은 입술도 부르르서 도톰해보였다. 실락하고 단단한 몸매와 이악성을 강조하는 조개턱만이 변함없었다.

요새 그는 다가오는 최우등생경연과 관련하여

전에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이제는 2년간의 검토과정에 확고히 선정된 3명의 뛰어난 학생들에게 새로 나오는 참고서의 문제들을 모조리 풀리워야 하는것이다.

그래서 낮에는 낮대로 뒤떨어진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를 하고 저녁에는 그동안에 최우등생들이 자체로 푼 문제들을 검토하고 바로잡아주었으며 밤에는 한집씩 찾아가 개별지도를 하였다.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것이 시간이였다. 자기의 몸을 초탈처럼 강그리 태워서라도 뛰어난 수재를 내놓을수만 있다면!

이런 열망에 충만되어 동분서주하다나니 언제 품놓고 거울앞에 마주앉아볼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자기의 얼굴이 미워져가고있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경미는 저도 모르게 고급화장품이 들어있는 껍한개를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 썩은 연분홍빛의 보드라운 덩어리가 기막히게 향기로운 냄새를 확 풍겨주었다. 주근깨를 없애고 피부의 주름살도 막아준다는 분크림이였다.

경미는 들었던 껍을 도로 놓으며 호- 한숨을 내쉬었다. 그 화장품을 준 사람은 다름아닌 영성이 어머니였던것이다.

화장이란 무엇인가?

물론 화장품의 사명은 얼굴의 아름다움을 돌구 어주어 보는 사람들에게 쾌감을 안겨주자는데 있을것이다. 더우기 학생들앞에 나서야 하는 교원에게 있어서 얼굴의 아름다움은 자못 중요하다.

하지만 영성이 어머니가 이 화장품을 줄 때 단순히 얼굴이 고와지기만을 바랐을까? 아니, 거기에는 교육자인 자기의 마음도 얼굴과 함께 다듬어지고 티없이 고와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을것이었다. 하다면 나는 이 화장품을 얼굴에 바를 자격이 있는가?

영성이가 학급에서 떠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경미는 화장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다.

헌데 지금은? 그 화장품이 도리어 헤집어진 상처에 뿌려지는 소금과 같이 아픔을 더해줄뿐이다.

학부형과 학생으로부터의 배척, 친우의 버림, 교권의 상실... 과연 이 모든것이 교육자적량심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당해야 하는 필연적인 진통과정이란 말인가? 아니면 현시대가 요구하는 뛰어난 학생들을 키워보자고 아글타글한 2년간이, 나의 그 리상자체가 허무한것이였는가?

경미는 부르튼 입술을 꼭 감쳐물며 거울속의 자기를 향해 도리머리를 하였다.

(그럴수 없다. 누가 옳았는지는 오직 시간만이 증명해줄것이다. 농사군의 량심은 열매가 말해주듯이 나를 증명해줄수 있는건 오직 결과, 실적뿐이다.)

경미는 얼른 화장을 하고 출근길에 나섰다.

얼마쯤 걸음을 다그치던 그는 저도 모르게 멈춰섰다. 앞골목길에서 영성이의 손목을 잡고 나오는 옥희를 보았던것이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묻고 설명하며 걷는 그들의 뒤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느라니 무딘 칼날이 가슴에 박혀드는듯싶다.

옥희는 이번 최우등생경연에 참가할 학생을 10명이나 선발하여 온 학교 교원들을 놀라게 했다.

경미만은 옥희가 대상선택의 반경을 그렇게 넓게 잡은 이유를 짐작할수 있었다. 아직 10등계선에 머물러있는 영성이에 대한 미련때문이었다.

응당 그럴것이라고 짐작했던 일이긴 하지만 되지 않을것이 뻔한 영성이때문에 앞선 학생들의 개별지도의 밀도를 높이지 못하는 옥희가 이해되지 않았다.

밤늦게 퇴근하려고 옆교실로 가보면 옥희는 그때까지도 영성이와 단독으로 마주앉아 속을 태우다 못해 진땀을 빼곤 했다. 다른 학생들은 제각다 풀고간 문제를 그 애만은 아직까지 못 풀고 끙끙 씨름질하고 있는것이였다. 일요일이나 명절날도 옥희는 종종 그 애 하나때문에 통시간을 바치곤 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자신은 물론 학생본인에게도 정도이상의 부담과 고통을 주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영성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도의감때문인가? 아니면 영성이를 자신해 말아안은 교원으로서의 체면때문인가?

이랬든저랬든 최우등생경연의 취지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궤도밖에서 모지름쓰는 그를 친우로서, 선협자로서 보고만 있을수가 없었다.

하어 어느날 밤늦게 퇴근하면서 진심으로 충고를 주었다.

《공연히 시간낭비하지 말구 뭘만 한 애들한테 힘을 집중하는게 어떨겠니? 영성인 내가 할수 있는것 해본 아이야.》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아무리 봐도 영성이 한텐 남과 다른 그 무엇이 꼭 있는데... 그게 뭘가?》

안타까와하는 옥희를 보고 경미는 의아해서 물었다.

《아니, 넌 도대체 뭘 보구 그렇게 생각하니?》

《우선 일상적으로 행동하는걸 관찰해봐도 유별나지 않니? 아이들과 잘 섞이지 않구 뭘가 혼자 수궁하고있을 때가 드문하구.》

《그거야 체가 크구 성미가 독하니 그런거지.》

《공부하는데서도 그래. 남보다 속도가 굼뜬건 사실이지만 그대신 엉뚱하게 생각할 때가 있거던. 언젠가 내가 아이들한테 수수께끼이야기를 해준적이 있었어. 지주가 마을총각과 수수께끼내기를 하는 이야긴데 마을앞의 호수를 가리키면서 지주가 물기를 〈저 호수의 물이 몇고뿌이냐?〉 했을 때 총각이 뭐라고 대답했겠는가? 다른 애들은 제 나름으로 몇만, 몇십만, 몇백만고뿌라고 지주가 헤여볼수 없는 수자를 대는데 영성이만은 〈한고뿌〉 하고 대답하지 않겠니? 아이들이 와- 하고 웃음을 터뜨리면서 엉터리라고 놀려대더구나. 그래 내가 왜 한고뿌냐고 물었더니 〈호수만 한 고뿌로 한고뿌라는 소립니다.〉 하지 않겠니?》

《호호... 정말 피짜로구나. 세상에 그만 한 고뿌가 어디 있다가. 호호...》

《하지만 얼마나 신통한 생각이니? 이런 아이가 공부에서 뒤떨어진다는건 아직 내가 옳은 방법론을 찾지 못했기때문이야. 그 애의 남다른 사고방식의 특징을 찾아야 그에 맞는 교수방법을 따라 세울텐데...》

《애두 참...》

경미는 더 말을 못하고 한숨을 내그었다. 어떻게나 영성이를 최우등생경연에 참가시켜보려고 헛되이 애쓰는 옥희가 동정스럽기만 하였다.

이런 생각속에 경미는 어느덧 학교에 이르렀다. 여느날과 같이 교원모임장이 울리고 조회가 진행되였다.

교장은 하루사업방향을 제시하면서 소학반최우등생경연준비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였다. 지금 새로 교단에 선 두 처녀교원이 전례없이 학생지도에 열성이 높는데 온 마을, 온 학교가 이번 경연에 기대가 크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경미는 새삼스럽게 야심과 흥분이 살아오르면서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좋다! 오늘부터 더 본때나게 다그치자. 한집한집 찾아다닐것없이 세 아이를 모두 우리 집에 데려다가 침식을 같이 하면서 공부시키자.

경미는 불타는 의욕속에 이렇게 마음을 사려먹으며 교실로 향했다.

오전수업이 끝난 후였다.

점심밥을 싸가지고온 애들의 문제풀이장을 검토해주고나서 좀 뒤늦게야 집으로 온 경미는 부엌에서 대충 밥을 먹고있었다.

그때 옥희의 어머니가 찾아와 딸이 어디 갔는지 모르느냐고 묻는것이였다.

《분명 먼저 왔는데... 혹시 영성이네 집에 들린게 아닐까요?》

《거기도 없던데?...》

옥희의 어머니가 돌아간 뒤 오후출근시간이 되어 급히 집을 나서던 경미는 뜻밖에도 종합탁아소에서 나오는 옥희와 마주치게 되였다.

《아니, 탁아소엔 왜 왔었니?》

《벌써 시간이 됐니?》

동문서답격의 물음에 경미는 눈이 떠꾼해졌다. 옥희는 집으로 가려던 걸음을 돌려세워 학교로 향했다. 점심도 못 먹고 돌아치는것이 분명했다.

《그래, 탁아소엔 누가 있겠?》

경미가 채차 물어서야 옥희는 무엇인가 움찔하던 생각에서 깨어났다.

《응, 영성이를 말아 키운 보육원을 만나보자구.》

《뭐? 그건 왜?》

《어제 점심때 유치원에 가서 영성이 학령전교육을 담당했던 교양원들을 만나 놀라운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니? 그래서 오늘은...》

《놀라운 이야기라니?》

경미는 호기심이 동해서 옥희의 말허리를 꿇었다.

영성이가 유치원 낮은반에 다니던 해 아동절체 육경기때 있는 일이었다.

《땅크》팀과 《비행기》팀으로 갈라서 진행된 체육경기는 온 리의 학부형들과 구경군들의 관심 속에 처음부터 열기를 띠었다. 서로마끔 자기 아이들이 이겨라고 목이 터지게 소리들을 지르고 목소리도 성차지 않아 땀과리까지 들고나와 팽창 팽창 두드려댔다.

두팀간의 점수차이가 어쉴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가운데 마지막으로 《고깔쓰고 사다리빠져나오기》경기가 시작되었다. 이 경기의 승패에 따라 팀의 종합점수가 결정되는 판이었다.

영성이네 반의 첫 아이가 상대편아이를 뒤흔들고 앞장서 돌아옴으로써 경기전망은 처음부터 락관적이었다.

그러나 다음차례인 영성이때문에 정황은 역전되고말았다. 가뜩이나 속도가 뜬 영성이가 똥기똥기 달리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도중에 뚝 멈춰서는것이였다.

환성소리, 비명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여 울렸다.

《영성이! 뭘해? 빨리 뛰라!》

교양원이 애타게 소리질렀으나 영성이는 아랑곳없이 그 자리에 앉기까지 하였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모래바닥에 열심히 장난질을 하는것이 아닌가?

《아니, 저 애가? 흑시?》

가슴이 철렁해진 교양원은 화석처럼 굳어져 아이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조마조마해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새 상대편아이들이 지나가고 지나오고했으나 영성이는 여전히 장난질에 열중했다.

교양원이 달려가보니 모래바닥에 토끼가면이 그려져있었다. 영성이는 그제야 닝큼 일어나더니 사다리가 있는 앞으로가 아니라 반대로 돌아 달려오고말았다. ...

《확실히 영성인 그때부터 정신이 오돌차지 못했구나.》

경미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아니, 난 그렇게만 생각되지 않아. 뉴턴이 닭알대신 시계를 삶으려 했다는 일화도 있지만 영성에게서도 남다른 탐구심과 집중력이 그런 왕청같은 행동을 낳았을수도 있지 않니? 뛰다 도중에 그 어떤 령감같은것이 번쩍 떠올랐을수도 있구나.》

《뭐? 령감? 호호... 호호호...》

경미는 입을 찌죽고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나도록 실컷 웃고나자 정색해서 말했다.

《머리가 이상해진진 영성이가 아니라 옥희, 네가 아닌지 모르겠다. 최우등생경연을 준비한다면서 탁아소, 유치원에나 찾아다니고있으니... 그래서 얻어권게 뭐가 있니? 도대체...》

옥희는 대답없이 생각에만 잠겨있었다.

4. 리해할수 없는 일

책서천으로 야외수영을 나갔다 온 3학년 두 학급은 교실에서 오후복습을 하고있었다.

경미가 연방 땀을 씻으며 부채질을 하며 학생들의 문제풀이정형을 검열하고있는데 《경미 선생!》하고 열려진 출입문으로 옥희가 급히 들어왔다. 심상치 않은 얼굴빛이었다.

《이걸 좀 봐.》

옥희가 내미는것은 영성이의 수학학습장이였다. 첫눈에 안겨오는것이 한페지 가득 그려놓은 그림이었다.

경미는 이마살을 찡그리었다.

《이 애가 문제는 안 풀고 또 그림장난을 했구나. 글썄 이렇다니까. 집중력두 없구.》

《장난은 장난이구 이 프락토르를 자세히 봐.》

경미는 옥희의 흥분된 목소리에 의아해서 그가 짚어보이는 그림에 눈길을 박았다.

《가만, 이거 오늘 수영나갔다 올 때 지나친 신행프락토르 아니가? 정말 그럴듯 한데... 역시 그림재간은 따소리나누나.》

《그러게 말이야. 그것도 한순간 지나치면서 얼핏 본 프락토르를 그 형태와 균형, 세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섬세하게 또 정확히 기억해서 옮겨놓았니? 심지어 이렇게 바뀌에 뚫린 여러개의 구멍들과 조명등의 모양, 차번호까지 구체적으로 박아넣은걸 보렴. 혹시 너 차번호가 얼마였던지 기억해두지 못했니? 이게 맞는지?》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해? 짐작해서 그린거겠지.》

《그런데 그 앤 정확히 본거라구 우기질 않겠니? 확인할 방법이 없을가?》

경미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사진으로 찍어두지 못한 이상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고 그러니? 또 확인은 해서 뭘하구? 그제 정확하든 안하든 영성이의 그림습씨를 알았으니 앞으로 그걸 전문적으로 키워주면 되는거지.》

그러나 옥희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야. 이것이 확인만 된다면 단순한 그림재간이 문제가 아니야.》

《뭐? 그림 무엇이 문제란 말이야?》

《관찰력과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수 있지. 어딜 가야 확인할수 있을가?》

《아유, 난 정말 별난 일을 가지구 신경을 쓰는구나. 그럴새면 지능문제풀이를 하나라도 더 시키겠다.》

《아니, 난 꼭 확인을 해야겠어. 경미, 그동안 우리 학급을 좀 봐줘.》

《뭐? 그림 이 복더위에?》

경미는 학습장을 들고 총총히 나가는 옥희를 멍하니 바라왔다. 도대체 어디에 가서 그 프락토르를 찾는다고 저렇가?

사실 경미자신은 1학년때부터 영성이의 그림장난을 한두번만 보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장난으로만 여겼지 한번도 저렇게 그림속에서 무엇을 찾아보겠다고 뛰어다녀본적은 없었다.

생각할수록 리해되지 않는 옥희였다. 그림이 정확치 않을게 뻔한대 고생을 사서 하다니, 미련이란 그렇게도 집요한것일까?

이제 실망을 안고 돌아올 옥희를 생각하니 속이 답답해왔다.

퇴근시간이 지나서야 옥희가 분과실로 들어섰

다.

익은 도마도같이 빨갛게 상기된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흘렀다. 어떻게 달려왔는지 뻥뻥하게 도드라진 앞가슴이 세차게 오르내리는데 숨이 차서 미처 말을 못 꺼냈다.

《도대체 어떻게 된거니?》

옥희는 땀방울을 수건으로 대충 훔치며 단숨을 토틀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찾았어... 프락프를... 아니, 영성이를...》

동당지 않는 이상한 말을 연방 쏟아내는 옥희의 눈빛에도 이상한 흥분이 번뜩이고있었다.

《그래... 어디 가서 찾았니?》

《척서리에서부터 명산리... 송화리까지 가니까 그곳 기계화반에... 마침 정비중이더구나. 아유, 습차!》

《그래서?》

경미는 마른침을 꿀꺽 삼키며 재촉했다.

그러거나말거나 옥희는 손부채질을 하며 한동안 숨을 태우고나서야 제 하고싶은 소리를 퍼놓았다.

《야! 글쎄 바퀴가운데 구멍개수를 세어보니까 신통히 같지 않겠니? 그리고 차번호는 한자리수도 틀림없이 정확하더구나. 다섯자리수가 다 말이야. 난 너무 기쁜김에 발이 땅에 닿는지도 모르구 정신없이 달려왔단다. 확실히 우리 영성인 둔재가 아니라 수재형이야! 그 애 어머니가 영성이 네살때애기한테 결코 우연한게 아니었어.》

경미는 났을 잃은듯 멍해서 아무 대꾸도 못했다.

《난 그때 이상하게만 생각했었지. 문자의식이 전혀 없는 어린애가 글쎄 어떻게 그 각이한 나라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질었을까 하구 말이야. 그런데 이제야 깨닫게 되누나. 만약 똑같은 칸들에 이름이 나란히 적혀있었다면 그렇게 기억을 못했을까?》

순간 흥분된 경미의 입에서도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 맞았어! 지도에 그려진 각이한 모양과 각이한 색깔에 대한 표상!》

《옳아. 언젠가 얘기했던 그 <호수고뿌>도 바로 조형학적인 환상이 있었기때문이야.

이런 뛰어난 형태감각, 예민한 관찰력과 기억력을 가진 아이가 자연과학을 파고든다면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할수 있겠니? 특히 도형을 다루는 건축이나 기계공학같은데서... 이걸 틀림없어!》

옥희는 평소의 자기를 초월해서 자감상태에 빠진 배우마냥 열변을 토하더니 문득 꿈꾸다난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며 경미를 마주보았다.

《참, 이런 애한테 문제풀이를 시켜도 그림을 리용하게 하구 리론공부를 시켜도 도해를 통해 시키는게 옳은 처방일거야. 그렇지? 그럼 교실에 가봐야겠어.》

옥희가 대답을 기다릴새도 없이 성급히 나가버

리자 경미는 엉거주춤 따라서다가 굳어져버렸다.

너무도 큰 충격이 그의 의식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생각은 종잡을수 없게 혼란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뛰어난 형태감각과 비상한 관찰력과 기억력을 가진 아이가 분명하다면?

경미의 눈앞에는 또다시 초보적인 문제도 리해하기 힘들어하던 영성의 모습이 떠오른다. 시험때마다 뒤늦게까지 앉아 끙끙거리던 영성이...

그런데? 생각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던 영성이 어떻게 오늘 갑자기 놀라운 지능을 로출시킬수 있었던 말인가?

경미는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 아닌 필연이란 말인가?

커다란 의문부호가 점점 확대되어 안겨왔다.

5. 답은 정확하다

그날은 마침내 닥쳐왔다.

이해 소학부문 최우등생들의 첫 경연이 있게 될 시험장은 이른아침부터 군내 30여개 소학교들에서 선발되어 온 학생들과 교원, 학부모들로 흥성거렸다. 누구라없이 얼굴마다 흥분과 초조, 자신심과 긴장이 엇갈리고있었다.

특히 경미의 가슴은 남다른 기대와 흥분으로 타는듯 했다. 6년전, 대학입학시험장에 들어서던 그때의 심정이라고나 할까? 아니, 그때는 합격이나 불합격이나 하는 두갈래의 갈림길이였고 합격기준치에 들어갈만 한 성적이면 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바라보는것은 그저 그러루한 높은 등수가 아니라 피라미드의 정점과 같은 최고의 순위였다.

이날을 위해 경미는 3년간 얼마나 피타는 낮과 밤을 보내왔던가? 오늘의 경연결과야말로 그가 바쳐온 열정과 량심, 그가 선택한 대상의 정당성을 증명해주는 답으로 될것이었다.

《따르릉-》

드디어 경연시작을 알리는 전기종소리가 울렸다.

교실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소리마저 죽이고 시험문제에 눈길을 박았다. 마치도 눈으로만 호흡하는것 같았다.

경련적으로 뛰는 가슴을 누르며 손에 땀을 쥐고 한문제한문제 눈더듬해 내려가던 경미는 마지막 네번째 문제에서 숨이 덜컥 멎는듯 하였다. 이때까지 한번도 풀어보지 못한 류형의 문제, 그자신도 풀이방향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 미지의 문제가 나온것이다.

교원들은 모두 시험장에서 물러나와 답안을 뽑기 위해 적당한 자리들을 잡고 앉았다.

경미도 버드나무밑의 돌층계에 앉아 문제풀이에 달라붙었다. 온 신경을 바늘끝같이 곤두세우고 긴장하게 여기저기를 찌러보며 실마리를 찾아 식

을 세우고 답을 냈을 때는 퍼그나 시간이 걸려서였다.

숨이 호- 나갔다. 허나 다음순간에 불안이 뒤따랐다. 이제 겨우 열살밖에 안되는 학생들중에서 이 문제를 풀 학생이 몇이나 될까? 아니, 풀 엄두도 못 낼것이다. 하긴 그래서 수재들의 경연이겠지, 이런 기회에 자기 학생이 누구도 못 푸는 문제를 척 풀어낸다면 얼마나 좋으랴만...

옥희가 다가왔다.

둘은 서로 답을 맞추어보았다. 네번째 기하문제에서는 풀이방법이 서로 달랐으나 답은 꼭 맞았다.

옥희는 경미의 풀이방법에 감탄했다.

《역시 넌 수재야!》

《말두 말아. 이 문제 하나를 푸는데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지 아니? 아유, 배가 다 고프다애.》

경미는 너스레를 떨다가 문득 정색해서 물었다.

《참, 영성인 이런 류형의 문제풀이를 해보았니?》

《아니, 전혀 못해본거야.》

《우리도 같아. 애들이 꽤 풀어낼까?》

《글쎄...》

옥희도 걱정과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문제가 너무 힘들게 나왔어. 어느 기묘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그게 현시대가 요구하는 높이인걸 뭐.》

마침내 시험마감종이 길게 울렸다.

모두의 눈길이 시험장 출입구로 쏠렸다.

제일 먼저 나온 학생 하나가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아니, 저 애가?)

경미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며 그 학생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둥글너부죽한 철색얼굴, 커다란 쌍까풀눈, 틀림없이 영성이었다.

그 애는 환희에 빛나는 눈으로 이쪽을 띄여보더니 계산종이를 든 한손을 휘저으며 뚱기뚱기 달려온다. 넘적넘적한 이발을 하얗게 드러내며 달려온다.

《선생님!-!》

《영...》

저도 모르게 영성이를 향해 발을 내짚으려던 경미는 앞서 달려가는 옥희를 보고 비로소 흠칫 굳어졌다. 얼음물을 들 쓴것처럼 온몸이 오싹하고 부르르 떨려왔다.

아, 영성이! 어째서 나는 1등으로 나온 저 애를 소리쳐부를수 없고 달려가 얼싸안을수 없단 말인가? 저 애가 정녕 내가 밀어버렸던 그 영성이가 웬단 말인가?

영성이의 계산종이를 훑어보던 옥희가 《아이! 맞았구나! 맞았어!》하고 환성을 지르더니 아이를 와락 부둥켜안아올렸다. 몇고래 빙글빙글 돌기까지 했다.

경미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캄캄한 시야에 수많은 별찌가 어지럽게 피어났다. 귀전엔 벌떼우

는 소리만 가득찼다.

《경미선생! 이걸 봐!》

기쁨에 들뜬 옥희가 영성이를 데리고 와서 시험지를 경미에게 보이는것이였다.

경미는 무의식중에 받아들였으나 눈에 물안개가 끼여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몇번이고 눈을 슴벅이며 글줄을 뜯어보고난 그는 이름못할 걱정애 가슴이 벅차올라 와락 영성이를 끌어안았다.

《용타! 영성아!》

경미는 영성이의 그 소담한 머리를 자기의 가슴에 꼭 품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

며칠후 최우등생 1차경연결과가 학교에 알려졌다.

예상했던바대로 영성이가 최고의 점수로 단연 1등이 되였다. 교장은 이 학교가 군내 이름난 소학교를 압도하고 1등의 자리를 차지해보기는 처음이라고 학생들과 교원들앞에서 격찬해마지 않았다.

온 학교가 기쁨에 설레이던 그날도 경미는 온종일 번민에 휩싸여있었다.

(옥희가 아니었다면 영성인 어찌될번 했을가?

아,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를번 했담?)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은 경미는 두손으로 머리를 훑어쥐고 괴로운 생각을 거듭했다.

(옥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것을 나는 왜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과연 옥희와 나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그러자 흑과 백처럼 자기와 너무도 뚜렷이 대조되는 옥희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시험지의 성적만이 아닌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부모들의 말 한마디에서도 숨은 재능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던 그 사려깊은 마음, 사고방식의 특성과 그에 맞는 교수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탁아소와 유치원까지 찾아다니고 무더위속 수십리를 뛰여다니던 그 모습... 그것은 분명 자식을 위해 어머니만이 바칠수 있는 그런 사랑이고 헌신이 아니었던가?

경미는 가슴을 쿵 울리는 생각에 번쩍 머리를 쳐들었다.

(그래! 나에겐 그것이 없었어. 부모된 심정, 부모다운 사랑! 순결하고 뜨거운 그 사랑만이 학생의 숨은 재능을 찾아낼수 있는거야.

나는 오직 인정에 지지 않는 원칙과 공정성만이 교육자의 량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니였어. 그건 량심이 아니라 눈앞의 성적만을 보고 손

쉽게 실적을 내보려는 야심에 불과했던거야!)

옳게 살아보겠다고 애써온 교단에서의 4년간을 스스로 부정한다는것은 참으로 피로운 일이었다.

경미는 양복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다.

첫장에 그의 좌우명이 적혀있었다.

《지향+열정=성공》

(나는 지금껏 이 진리를 믿어왔다. 그런데 나의 지향과 열정은 왜 성공이라는 답을 가져다주지 않았는가? 그것은 나의 그 지향 자체가 참다운 사랑에서 출발된것이 아니기때문이다. 그러니 실패는 정확한 답이지.)

경미는 원주필을 들어 그 공식밑에 또박또박 적어넣었다.

《지향=사랑》

석양이 불타는 저녁이었다.

옥희와 나란히 퇴근길에 오른 경미는 언제부터 품어왔던 의혹을 털어놓았다.

《영성이가 그전엔 어떻게 돼서 단순한 문제풀이도 것처럼 힘들어했을까?》

옥희는 어쨌든지 호호 웃기부터 하더니 이렇게 대꾸하는것이였다.

《사실은 힘들어서 그런게 아니였던단다.》

《뭐? 그럼?》

《알고보니 그 앤 배워주는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무는것이 아니라 이렇게저렇게 뒤집어 반대로 생각해보기를 좋아하구 또 어떤 문제든 자기 식대로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것을 재미있어하더구나. 그런 버릇이 있어서 어쩌다 쉬운 문젠 내두

고전소개

거기에 무슨 오묘한 리치가 숨어있지 않나 해서 한참씩이나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던거란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사고보다 복잡사고를 좋아하는 아이거든, 호호...》

옥희가 또다시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으나 경미는 따라웃지 못했다. 옥희의 두손을 잡아쥐고 마주서서 그의 유순하고 그윽한 두눈을 들여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옥희! 넌 정말 교육자야!》

《어마나, 그럼 넌?》

《나도 이제부터 진짜교육자가 되겠어.》

《경미!...》

옥희도 뜨겁게 경미의 손을 마주잡더니 감동에 겨워 속삭였다.

《넌 참 좋은 처녀야.》

《놀리겠니? 호호...》

《호호호...》

두 처녀는 오래간만에 가슴 후련하도록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두쌍의 가락맞는 구두소리와 함께 세련된 화음의 2중창이 은은히 울리기 시작했다.

천송이 만송이 꽃들이

아름답다해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비기랴

...

우리 나라 중세 《취전》 계열의 의인소설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인화의 수법으로 엮어진 소설도 많이 써내는것이 좋다. 우리 고전문학에는 <재판받는 쥐>와 같은 우수한 소설이 적지 않다.》

우리 나라의 민족고전문학예술유산가운데는 《재판받는 쥐》와 같이 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의인소설들도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재판받는 쥐》(《서옥설》), 《서대취전》, 《서씨전》(일명 《서동지전》)들을 들수 있다.

《재판받는 쥐》는 16세기 우리 나라의 소설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첫 고전중편의인소설의 하나로서 작가는 백호 립제이며 18세기경에 창작된것으로 보아지는 《서대취전》과 《서씨전》은 당시 우리 나라 의인소설의 발전과정을 뚜렷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며 작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우의 작품들은 《취전》 계열의 의인소설들로서

주제사상적내용과 주인공의 형상창조에서 많은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일정한 차이점도 가지고있다.

우선 《취전》 계열의 작품들은 당대 재판제도의 불공평성을 비판하면서 봉건사회의 부정적측면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공통적인 측면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작품마다 독창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심오한 사상을 밝히고있다.

우리 나라 중세 《취전》 계열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봉건사회에서 재판이 판사의 무능성과 함께 돈과 물건, 권력에 의해 판결되는 과정을 통하여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고있다.

《재판받는 쥐》에서는 늙고 간사한 큰쥐가 일가 족속을 다 데리고 나라의 쌀창고에 뽕고들어가 10여년동안 낱알을 훔쳐먹다가 창고신에게 잡히여 재판받는 과정을 생동히 그리고있다.

창고신은 큰쥐에게 죄행을 꾸짖고 사촉자를 데리고 요구하자 큰쥐는 복숭아꽃, 버들가지를 《사촉자》라고 고해바치며 그것이 거짓임이 증명되자

련이어 고양이와 누렁개, 족제비와 삶, 여우와 두더지, 범과 룡까지 무려 36종의 동물들을 《사축자》로 고해바친다. 뿐아니라 두견과 앵무, 피꼬리와 제비를 비롯한 36종의 날짐승, 지어 반디불과 같은 곤충류까지 포함하여 80여종의 동식물을 《사축자》라고 거짓증언한다.

작품은 큰쥐의 거짓증언에 의하여 창고신께 끌려와 문초를 당하는 여러 동식물의 의인적형상을 통하여 봉건사회가 빚어내는 온갖 악덕과 부정적 현상 그리고 양반들의 위선과 허위를 폭로하고 있다.

작품은 다음과 같은 작가의 평가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

《불은 당장에 꺼버리지 않으면 번지는 법이요, 옥사가 결단성없이 우유부단하면 번거로워지는 법이다. 만일 창고신이 큰쥐의 죄상을 밝게 조사하며 빨리 처단하였다면 그 화는 반드시 그렇게 범람하여지지 않았을것이다. 아! 간사하고 흉악한 성질을 가진자가 어찌 창고를 뚫는 쥐뿐이라? 아, 참 두려운 일이다.》

작가의 이 말은 소설의 기본사상을 밝힌 동시에 작가 자신의 사회정치적견해의 제한성도 드러내고 있다.

《서대쥐전》과 《서씨전》은 다같이 쥐와 다람쥐사이의 재판과정을 그리고있으므로 내용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대쥐전》은 서대쥐(성은 서, 호는 대쥐)가 다람쥐들이 부지런히 모아놓은 알밤 50석과 가장집물을 훔쳐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겨울을 앞두고 식량과 재산을 도적맞힌 평정(다람쥐)은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원에게 소송하였다. 재판이 벌어지자 서대쥐는 원에게 자기는 죄가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다람쥐가 자기에게 앙심 품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사실을 전도하여놓음으로써 원은 서대쥐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다람쥐에게는 죄를 들춰워 태형을 가하며 멀리 정배까지 보내려고 한다.

《서대쥐전》은 쥐와 다람쥐사이에서 있는 재판과정을 통하여 사령은 퇴물에 환장이 되어 도적을 두둔하고 고을원은 송사판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매하고 무능한 인간으로 형상함으로써 당시 재판제도의 문란한 모습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

《서씨전》도 쥐와 다람쥐사이의 재판과정을 보여주고있으나 《서대쥐전》과 달리 서씨는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긍정인물로서 잔치집에 온 다람쥐에게 술도 실컷 먹이고 돌아갈 때는 알밤 한섬과 잣 다섯말을 주어보낸다.

다람쥐내외는 서씨가 준 량식으로 먹고 놀다가 겨울이 닥쳐오자 또다시 서씨에게 구걸간다. 그러나 서씨가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여 다람쥐는 관가에 송사를 한다.

산중의 임금인 백호는 다람쥐의 거짓송사를 옮겨 가려보고 서씨를 놓아주고 다람쥐는 정배보내라고 한다. 마음이 착한 서씨는 다람쥐를 불쌍히 여겨 백호에게 다람쥐를 놓아달라고 애원하고 죄에서 벗어난 다람쥐에게 황금 수십냥을 주어 돌려보내는것으로 작품은 끝맺고 있다.

작품은 서씨와 다람쥐사이의 재판과정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덕을 입으려는 자들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놀고먹기 좋아하고 남을 걸고드는 자들도 덕으로 교화할수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쥐전》 계열의 작품들은 다같이 쥐를 주인공으로 하고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것이 있지만 그 형상에서는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재판받는 쥐》에서는 밥솔밑에 구멍을 뚫어놓으며 고양이목에 방울을 매달아놓는 등 교활하기 그지없는 큰쥐(주인공)가 천이 넘는 쥐족속들을 거느리고 나라의 곡식을 오래동안 탕진하고 그 죄를 남에게 넘겨쳐우려고 발악하는 과정을 통하여 봉건사회의 탐관오리들의 교활성과 악랄성을 폭로하였다면 《서대쥐전》의 주인공 서대쥐는 다람쥐의 재산을 훔쳐오는 후안무치한 도적일뿐아니라 오히려 다람쥐에게 도적의 루명을 씌우는 악랄하고 교활한 략탈자의 형상으로써 당시 착취계급의 비인간적착취행위를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서씨전》에서 주인공 서씨는 《재판받는 쥐》와 《서대쥐》의 주인공과 달리 긍정인물로서 근면하고 너그러우며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인물로 형상되어 있다. 뿐아니라 산중의 왕인 백호에게 다람쥐가 거짓송사를 하게 한것은 그가 정사를 잘하지 못한다에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정의로운 인물로 형상되어 있다.

의인대상은 민족적인 전통적관습과 생태학적특성 그리고 작가의 사상미학적관점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으로 형상될수 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쥐를 인간생활에 해를 주는 동물로서 나쁘게 인식되어왔다. 이 작품에서 쥐를 긍정인물로, 다람쥐를 부정인물로 형상한것은 작가의 미적관점으로부터 오는 제한성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 나라 중세 《쥐전》 계열의 고전의인소설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의인화의 수법으로 엮어진 소설도 많이 써내내것이 좋다고 하신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로 되고 있다.

류윤화

시조

원산목장시조

목장의 봄

강승계

햇숨 소복이 쓰고 피어난
비암천가 버들개지 이어
냉이, 꽃다지, 민들레 돌아나고
나무순들 푸르러지면
아, 저도 몰래 부풀어 설레는 내 마음

만문한 그 풀잎 뜯어 씹어도 보고
나무순 부여안고 기쁨 속삭이면
긴 수염 어미염소들
귀여운 아기염소
나를 보며 머리 기웃 좋아라 웃네

정말이지 이 봄을 그리며
풀절임, 건초, 강낭짚 나르며 흘린 땀 얼마...
뜬김 서린 우리안에서
새끼염소 받아내며 첫 젖을 물려주며
남모르게 지새운 그밤은 또 얼마...

아, 아지랑이 피어나는 발이랑에
봄씨앗 뿌려가는 그 기쁨에 비길가
흙뻘 불어난 염소떼 앞세우고
웅단같이 파란 봄들판에 나서는
방목공 나의 이 즐거움을

파랗게 물들어가는 비암풀이 그대로
하얀 염소무리로 꼭 차오르는듯싶고
휘이- 휘이- 회초리 휘두르며
봄맞은 내 조국 산등판을
훨훨 다 날아보는 이 마음

아 정말이지 목장의 봄은
두세곱 더 늘어난 염소떼 앞세우고
우리 장군님앞에 나를 세워보는 계절입니다
조국에 바치는 나의 진정이
애국의 마음에 푸르려 움트는 계절입니다

목장의 풀판

유영하

파릇파릇 봄풀 돋은 풀판아
한껏 푸른 너의 잎새들은
새 품종의 씨앗과 함께
돌격대 배낭속에 지고온
내 푸른 꿈이 아니냐

꽤불아래 한치 두치
비에 젖고 눈에 얼며 3년세월
끝끝내 펼쳐놓은 목장의 풀판은
우리 장군님의 뜻을 꽃피운
내 푸른 사랑이 아니냐

나무뿌리 뿔아내던 청춘의 열정이
먹이풀씨 뿌리던 청춘의 희망이
있이 되고 줄기 되어 설레는 풀판은
아버지장군님께 기쁨 드린
내 푸른 행복이 아니냐

아, 봄빛아래 무성하는 풀판아
내 머리 회여저도
너는 조국앞에 후대앞에
영원히 남아있을
내 푸른 젊음이 아니냐

비암땅은 멀어도

신동식

내 사는 바다가 예서
비암땅은 멀고먼 고장이어도
내 마음속엔
왜 이다지도 가까이 생각되는것일가

목장건설의 나날

내 돌격대원들과 함께
바위를 깨내고 길을 열던 그 나날이
청춘시절의 한 구간으로 남아서일가

그러하여라
비암풀에 오신 그날에

우리 장군님 하신 말씀
강원도사람들이 참으로 일을 잘한다고
영똥하다고
그토록 높이 주신 그 평가속에
내가 한 작은 일도
일생에 가장 큰 위훈으로 남아있거니

젊은날의 한순간
그 한자옥으로 하여
나의 한생은 축복받은 한생
아버이장군님 위해 바치는
위훈의 한생을 약속한 삶

하여 내 이 가슴 깊이
안고 사는 교장

에서 비암골은 마식령너머 멀어도
언제나 가까이 나의 곁에
나와 함께 사는 땅

아, 이제 비암산에 더 많은 흰 염소떼 흐르고
고기폭포 우유폭포 끊임없이 쏟아져
사람들의 얼굴마다 웃음꽃이 필 때
내 궁지높이 말하리라
우리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바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값높은것인가를

그리고 또 새기리라
인민을 위해 한평생 다 바치시는
아버이장군님께 드리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한 위훈의 자옥을!

비암천 굽이굽이

오재신

비암천 굽이굽이는 서른굽이
자랑도 많고많은 서른굽이
풍치도 멋이 있는 서른굽이라오

대치풀어귀에 들어서며는
풀안을 뒤덮은 하얀 염소떼
구름처럼 몽게몽게 떠오른다오

솔숲을 옆에 끼고 돌아오르면
산중호수 물가엔 노니는 계사니들
한쪽의 그림인양 안겨온다오

수리봉기슭에는 토끼사와 돼지우리
동화속의 궁전처럼 늘어서있고
어사덕등판에선 젖소들 거닌다오

사료폭포 쏟아지는 기계실의 동음
단백먹이서식장의 정다운 물노래
젓가공실 음향은 들을수록 좋다오

아, 장군님 펼쳐주신 선군의 한길따라
풍요한 내 나라 행복을 마중가는
비암천 굽이굽이 내 고향의 노래굽이

아 원산목장

오정로

령을 넘고
고개 넘어
깊은 골을 따라 올라
그 몇십리

구름이 휘감기는
야전복자락을 날리시며
높은 산 찬바람 헤치시고
굽이굽이 서른굽이를 오르시어
우리 장군님 찾아주신
원산목장

하늘나라에 오른듯
위대한 장군님 뜻이 꽃핀

산상의 별천지
너무도 만족하시어
환하게 지으시던 그 미소
봄빛이 되어 내리는가

쓸모없던 돌박산이
파아란 풀판이 되어
젖소떼들이 가담가담 풀을 뜯고
저 산릉선 풀밭에선
염소떼들이 구름처럼 흐르고

이골 저골
동화세계의 궁전같은 짐승우리들
하얀 담장안에선 토끼들이 뛰놀고

살찐 돼지들 보기만 해도 흐뭇하오
개울을 막아 펼쳐놓은 호수가엔
계사니때 유유히 헤엄을 치네

아, 우리 장군님
어제는 저 별의 한끝 진월에 내려서시어
바다같은 양어장 펼쳐주시더니
오늘은 산상에도 이 한끝에

수필

시대가 주는 이름

김금옥

얼마전 우리가 찾아갔던 원산목장은 산세 험한 비암골에 자리잡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목장을 다녀가셨다는 소식에 접하여 크나큰 걱정을 안고 그곳을 찾아갈 때도 그렇고 돌아볼 때에도 그리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까지도 《비암골》이라는 골짜기의 이름을 두고 줄곧 생각해보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일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목장이 위치한 골안의 이름을 《비암골》이라고 부르는 까닭과 유래에 대해 제 나름의 해석을 해본다.

예로부터 이 골안이 바람이 세차서 유명한 곳이라니 바위마저 날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을것이다. 세찬 바람에 바위마저 날아가는 골짜기.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규정을 내리기가 십상일것이다.

나역시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래서인지 모진 바람에 천년벼랑이 허물어져 내리고 집채같은 바위들도 사정없이 날아가는 불모의 땅의 옛 모습이 상상되면서 얼마나 수난에 찬 과거사가 《비암골》이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을것인가 속집작을 해보기까지 했다.

그런데 목장이 자리잡은 골짜기에 들어서는 순간 그 이름에 어울리는 세찬 바람은 느낄수 없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아늑한 안정감이 들었다.

한마디로 따스하고 포근한 기운이 맑은 물 흐르는 계곡을 따라 깊숙이 들어앉은 골안을 짝 채우고있었다.

기묘한 층암절벽과 수려한 나무들과 그지없이 맑은 내물로 하여 마치 금강산골안에 들어선듯 했다. 경치좋은 골짜기를 따라 들어가면서 아담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염소, 젖소, 토끼, 돼지, 오리, 계사니 등 각종 집짐승우리호동들이 이채로운 모양으로 전개되어있었다.

멀리 가까이 바라보이는 높고낮은 산들과 등성이들 마다에는 염소, 젖소떼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아, 황홀하구나. 걸음걸음 절경이요, 보는것마다 가 그대로 하나같이 아름다운 명화이다.

풍성한 인민의 트랙을 넓혀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시니

구름을 헤쳐오르시어
하늘의 별을 따다 주신듯
행복의 별세상을 펼친
아, 원산목장!

절로 시가 흘러나왔다.

나는 희한한 휴양지에 들어선듯 무아경에 빠져 《저 〈염소각〉 이 정말 멋있습니다.》, 《저 〈토끼각〉 은 신통히 동화책에 나오는 충충다락집같은요.》 하고 건물들과 집짐승호동들에 연방 《각》자를 붙여댔다.

함께 동행한 지배인의 얼굴에 웃음이 어렸다.

그 웃음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깊은 추억이 흐르는 그러한 웃음이었다.

염소방목공청년들과 토끼사양공청년들의 얼굴에도 그러한 웃음이 흘렀다. 바로 저 웃음은 이 골안에 아름다운 생활의 보금자리, 약동하는 투쟁의 일터, 풍요한 결실이 쏟아지는 실리가 있는 목장을 땀으로 일떠세운 위훈과 창조의 주인공들만이 지을수 있는 값비싼 웃음이라. 하다면 이들의 그 웃음이 이 골안의 세찬 바람을 휘어잡기라도 했던 말인가. 아니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된 자연기후가 《비암》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횡포한 바람을 날려보내기라도 한것일까?

나는 지배인에게 《비암》에 대한 견해며 목장을 돌아보면서 받은 이모저모의 느낌을 숨김없이 이야기하였다.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바람에 바위도 날아간다는 해서 이 골안을 비암골이라고 부르는것 같은데요?》

40대의 젊은 지배인은 나의 말을 긍정하듯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마침 목장전경도주변에서 백도라지씨를 뿌리고있는 한 로인을 나에게 소개하는것이였다.

《여기 비암골에서 제일 년세가 많은 박로인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겁니다.》

내가 인사를 하자 로인은 반색을 하며 구면지기처럼 두손을 잡았다.

로인은 여든이 넘었다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젊은이들의것처럼 눈빛이 맑았다.

《로인님, 비암골이라는 이 골안의 이름은 바람이 너무 세차서 바위도 날아간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던데 그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나의 말에 로인의 흰 장미가 꿈틀했다. 그러더니

니 손을 저었다.

《아니우다. 결코 그런 뜻만이 아니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놀라며 로인을 쳐다보았다.

《물론 그 말도 영 틀린 건 아니우다.

하지만 보다는 하늘을 나는 날새들, 지어 독수리같은 맹금도 이 땅에 끝내 발톱을 못 박아 하늘공중에서 바위가 되어 굳어졌다 해서 비암골이라고 불렀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 말은 결국 여기 이 골안이 새들도 깃을 못 들이는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뜻이지요.》

로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뇌리에는 문득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시인이 쓴 어느 한 시의 한구절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

사나운 짐승도

발길 돌리기 서슴어하고

날새도 고적에 애태우다

날아날아 떠나고야마는

...

그러니 이 골안은 단순히 《고적》과는 대비할 수 없을만큼 얼마나 바람이 세차고 고장이 척박하였으면 날새들마저 깃을 못 들이고 하늘공중에서 돌로 굳어졌겠는가.

《작가선생, 우리가 마주하고있는 저앞의 봉우리가 다름아닌 비암봉이우다. 보시우, 신통히 봉우리우에 등실 올라왔은 바위가 독수리같지 않습니까.》

나는 크나큰 충격을 안고 로인의 말을 긍정했다.

그러한 비암골이 오늘 선군시대에 얼마나 몰라보게 전변된 것인가.

로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지금도 귀전을 울린다. 《그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었지요. 지금은 별의 별 새들이 우리 비암골로 다 날아와 보금자리를 쪼는 판이지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목장을 찾아오시기 얼마 전에는 희한하게도 백로 한쌍이 날아와 마을 한복판의 소나무우에 앉았다는 것이다.

목장이 다 꾸러진 그때까지 다른 새들은 보았지만 백로가 날아들기는 처음이었다.

목장사람들은 기쁨과 놀라움을 안고 백로를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 백로들이 골안의 여기저기를 두릿두릿 살피는 품이 마치 대성인이 내리실 자리를 미리 보아 두려고 날아온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마을로인들의 말에 사람들은 기쁘면서도 한편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기웃거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꿈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암골에 자리잡은 원산목장을 찾아주신 것이었다.

목장의 곳곳을 일일이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말 일을 많이 하였다고, 큰일을 하였다고 거듭거듭 치하의 말씀을 하시었다.

사실 일을 했으면 얼마나 하였겠는가. 전사들이

해놓은 일이 그토록 대견하시어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 말씀을 받아안은 순간 비암골은 감격에 설레었고 해빛은 더더욱 따사롭게 비치고 골안의 전경은 더 환해졌다.

아버이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후로 백로들이 쌍쌍이 날아와 경사로운 원무를 펼쳐놓았다는 비암골!

따뜻한 봄이 오자 살림집들의 처마밑에는 제비들이 날아와 보금자리를 틀고 지지배배 행복을 읊조린다.

《비암》!

그 옛날 깃을 못 들이고 하늘중천에 바위가 되어 굳어졌던 날새들이 오늘은 깃을 치며 원산목장에 자리잡은 비암골로 날아든다.

머리들어 바라보면 온갖 새들의 지저귐소리 유정하고 꿀벌들의 봉봉소리와 어울려 꽃향기 넘쳐나는 비암골!

아담한 살림집들, 이채로운 집집승우리들, 희한한 젓가공실...

어느것 하나 손색없이 꾸러진 선군시대의 사회주의선경 원산목장!

《그러니 오늘날의 〈비암〉은 지난날의 〈비암〉과 너무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원산목장을 떠나면서 한마디 하자 지배인은 흥분된 어조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작가선생, 오늘날의 〈비암〉은 행복과 번영, 강성대국의 창공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선군조국의 세찬 퍼덕임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나는 비암봉을 언뜻 바라보았다.

그렇다. 이 땅에 첫 조상이 태를 물었을 때도 여기는 《비암》이었고 아버지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오늘에 와서도 역시 《비암》이다.

하지만 창조의 시대 열정의 시대, 투쟁의 시대,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오늘의 선군시대에 새롭게 변모된 비암골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 보란듯이 날아오르는 조선의 한 모습이 아닌가.

지난날엔 입밖에 내기 부끄러웠고 알려지지지도 않았던 골안이 어떻게 되어 오늘은 온 나라에 당당히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선군시대가 키워낸 새 주인들의 투쟁이 오늘의 황홀한 전변을 안아왔다.

바로 이들에게 신념과 의지를 주고 뜨거운 열정의 힘을 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롭게 빛나는 그 이름을 주시었다.

원산목장을 다녀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해 볼 것이다. 자기가 사는 고장과 자기들의 일터의 이름을 두고...

그리고 그 이름들이 오늘날 긍지높이 불리울 수 있게 빛나게 꾸러놓았는가를!

고귀한 피와 땀을 그 땅에 바칠 때, 사색과 탐구의 녀를 거기에 쏟을 때, 하여 아버지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 때 오늘의 성스러운 선군시대는 값높은 부름, 빛나는 이름을 그 땅에 안겨줄 것이다.

생활이 비긴 시적인 종자의 탐구

리동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를 내놓자면 먼저 시의 생리에 맞게 선택된 종자를 잡아줘야 한다.

시의 생명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은 서정이다. 따라서 풍만한 서정, 생활이 비긴 서정적요인을 안고있는 종자를 잡아질 때라야 인상에 남는 시를 남길수 있다.

작품의 종자는 문학작품의 생명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지만 작품의 형태와 생리에 따라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다. 같은 종자라도 소설의 종자와 극의 종자가 달라야 하며 주관적체험을 토로하는 시의 종자가 달라야 한다.

시 《45분》과 《가락지》

지난해 하반기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시들을 보면서 장시 《45분》(윤정길 작 11호)과 시 《가락지》(김명익 작 11호)를 먼저 들게 되는것은 시적인 종자를 골라잡는것이 창작을 성공으로 이끄는데서 결정적인 조건으로 된다는것을 시사하기 위해서이다.

시의 종자는 풍만한 서정이 샘솟을수 있는 서정적요인을 안고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 되어야 한다.

장시 《45분》이 비교적 성공적인 작품으로 될수 있는것은 거기에 교정에서의 45분이라는 생활이 비껴있고 45분이라는 길지 않은 수업시간이 곧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시간이라는 뜻깊은 서정적알맹이가 심어져있기때문이다. 교정에서 흘러가는 평범한 45분과 미래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기대속에 얹혀진 선군장정의 길에서의 45분. 이 엄청난 대조속에서 시인은 거기에 넘치는 뜨거운 서정을 발견하였으며 열정으로 끓어번지는 주정을 마음껏 터칠수 있었다.

시에에는 높은 산발, 험한 령을 넘어 무봉마을 작은 교정에 들리신 아버지장군님께서 아이들과 한순간 뜨거운 정을 나누신 사랑과 은정에 대한 짙막한 이야기가 펼쳐져있을뿐이다. 그밖에 어떤 과정이나 구구한 설명이 없다.

45분수업을 참관하시고 교실을 나서시였으나 그 짧은 45분이 경애하는 장군님 마음속엔 위대한 전선시간으로 안겨있었다.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 붉은 화살표를 그어가실 때에도 미끄러운 령길로 야전차를 밀고오르실 때에도 교정의 45분은 실려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평범한 45분속에서 위대한 미래, 위대한 승리를 내다보고 계시었다.

생활이 비껴있고 서정이 넘치는 사상적알맹이를 발견한것으로 하여 신심을 가지고 격동과 환희와 랑만이 사품치는 강렬한 주정을 터쳐울릴수 있었다.

...

무봉이여 말하라
너의 기슭에 새겨진 령장의 시간
배움의 시간과 시간들은
총검이 서리뿔는 최전선에서
야전복자락에 싸안으시여
장군님 가져다주시것 아니더냐

무봉이여 말하라
너의 기슭 이 교정에 우리 장군님
선군장정의 한구간을 새기시며
승리한 조국의 미래를 사멸하지 않으셨더냐
찬란한 래일의 아침해를
45분 그 시간에 들어올리지 않으셨더냐
...

오늘이 없는 래일이 없고
래일이 없는 오늘은 있대도 헛되기에
조국의 오늘과 래일을 선군기폭에 휩싸안고
혁명실록의 위대한 자욱을 교정에 남기신
절세의 애국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시간 45분
...

그렇다. 평범한 이 45분, 장군님의 전선길에서 시작되고 조국의 래일과 이어져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배움의 45분, 선군시간 45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 45분은 위대한 사랑, 위대한 미래, 필승의 확신으로 충만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시간으로 흘러흐를것이다.

창작실천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생활을 파고들어가 현상이나 사실자체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그속에서 생활이 비긴 삶의 진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서정이 짙은 사상적알맹이에 집적시켜 정서적으로 뜨겁게 뿜어올릴 때 사람들에게 감명깊은 시다운 시를 안겨줄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와는 달리 시 《가락지》 또한 시의 생리에 맞게 종자를 특색있게 잡아쥐고 감칠맛있게 서정을 펼쳐나간것으로 하여 주목을 끈다.

시에서는 사상을 직선적으로 로출시키지 않고 정서적으로 정확시켜나가면서 분별의 고통, 분별의 비극이 휘감긴가락지에 상징하여 조국의 분

렬은 결코 대대로 물려주는 《유산》으로 될수 없다는 생활의 진리를 서정이 짙은 시줄에 감아 채 치있게 펼쳐놓고있다.

지난날 가난속에서도 성례를 치를 때 정을 모아 끼워주던 옥가락지였다. 시에서는 눈에 선히 밝혀오는 생활이 감긴 가락지, 휘영청 달밤의 정서가 감긴 옥가락지를 서정적행으로 잡아쥐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상을 이끌어내는 시적인 묘술을 찾아내었다. 서정을 생명으로 하는 시의 생리에 맞게 종자를 특색있게 발견해낸것으로 하여 시는 감정의 흐름을 타고나가면서 견인력있게 안겨지고있다.

시줄을 읽어나가느라면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적인 심리체험세계가 깊이있게 펼쳐지면서 감정의 기록을 따라 감명깊은 서정이 사람들의 가슴을 휘저어놓는다.

할머니의 반지를 유물로 물려받은 너인의 시점에서 분렬의 고통과 비극이 감기고감긴 가락지를 놓고 개성적인 체험을 한폭으로 용이주도하게 깊이 파고든것으로 하여 시를 성공시킬수 있었다고 본다.

...

사뭇, 반지낀 이 손이 저려듭니다
할머니의 가락지는 유물일뿐
유산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
조국의 분렬, 분렬은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유산》이 아니기에...

언제인가 나도 백발을 없으려니
내 그날 할머니의 증손녀에게
이 반지를 유산으로 또 물려주는
후손으로 어이 될수 있으리

아 눈물속에 그러됩니다
축복속에 새 가정을 이루면서도
하나된 조국을 더 그러보는것이
이 땅 금수강산의 각시들인가 봅니다!

아아
가락지
휘영청 달밤의 가락지
삼천리너인들의 옥가락지여!

시는 끝났으나 여운은 가슴속에 그냥 젖어든다. 시는 전통적인 민족생활의 일단을 차분히 끌고 나가면서 특유한 민족적정서를 불러일으키고있는 바 바로 그것때문에 이 시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안겨지고있는지도 모른다.

혹 선군시대 너인들의 벽찬 체험세계와 다른 애잔한 정서로 시가 흘러가지 않는가 하는 위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시의 서정적알맹이와 양상적특성으로 보아 그에 어울리게 선택된 감정체험이라고 볼 때 구태여 직선적인 표현을 쓰거나 격조높게 웨치지 않아도 시대의 정서에 접근했다고

보는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고 하는것이다.

시는 그 제목자체가 말해주듯, 판통된 내용에서 우러나오는 시인의 의도가 정서적으로 명백히 안겨오도록 되어야 한다. 생활이 비낀 독창적인 서정적알맹이가 박이지 못한 시가 시다운 구실을 할수 없다는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의도와 형상의 불일치는...

우에서 본 두편의 시는 시인의 의도와 시형상이 조화롭게 일치되어있을뿐아니라 서정적행이 뚜렷하고 생활적으로 색채있게 부각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지면에는 그렇지 못한 시들도 없지 않다.

시인의 의도와 시형상은 언제나 일치되어야 한다. 의도가 새롭고 깊이있게 탐구되게 되면 형상에 나래가 돋히기마련이며 그렇지 못하면 형상에 그들이 지기마련이다. 따라서 의도는 이해되지만 형상이 미치지 못했다는 말은 할수 있어도 의도는 좋은데 형상이 따라서지 못했다는 말은 리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의도와 형상의 불일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똑똑한 종자를 잡아쥐지 못한데서 온다. 지난해 하반기잡지에 실린 일부 시들이 그를 말해주고있다.

생활을 떠난 추상적인 종자, 새것이 없는 두리몽실한 종자, 서정이 피여날수 있는 요인이 박이지 못한 종자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종자가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핵이 없는 유기체를 생각할수 없듯이 서정적핵이 없는 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시 《무산의 하늘》(김윤걸 작 7호), 《나는 왜 여기 왔는가》(리명수 작 7호), 《조선 포도》(김영애 작 7호), 《오늘이여 너를 사랑하노라》(양치성 작 9호), 《어머니의 한생》(채동규 작 9호), 시초 《내 사는 거리》(김상조 작 8호) 등은 형상에서 일정한 차이는 있으나 똑똑한 시적인 종자를 쥐지 못하고 썩여진 시들이란 점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

시 《무산의 하늘》은 지난날 광부들의 피타는 한숨과 비애의 호곡이 하늘을 가리우던 무산땅이 오늘은 수령님은덕에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로 열렸다고 노래하면서 온 한해 전선길 이어가시는 장군님 계시여 더 맑고 푸르러진 하늘아래 광성은 폭포처럼 쏟아지고 조국을 떠받드는 무쇠기둥이 솟는다고 긍지높이 웨치고있다.

그러나 비교적 긴 시인데도 쥐여짜면 씨박인 알맹이는 보이지 않고 그저 무산의 봉우리마다 강성대국의 푸른 하늘을 떠이고있다는 추상화된

사상만 보일뿐이다. 그렇다면 가령 이 나라 곳곳에 열려진 검덕의 하늘, 대흥단의 하늘은 맑고 푸르지 않단 말인가. 무산의 하늘이 더더욱 푸르다면 그것을 설득시킬만 한 서정적요인을 시인이 발견해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 탐구가 없이 상식화되고 개편화된 시술을 아무리 줄줄이 엮어놓은들 공감할 주는 시를 과연 만들어낼수 있겠는가.

...

이보다 더 푸른 하늘을
무산의 광부들은 알지 못해라
이 하늘아래서
위훈으로 지새운 밤 행복이 되고
창조의 열매는 조국의 자랑 되여라

이 하늘아래서
광석은 폭포처럼 쏟아지고
내뿜치는 조국의 무진장한 힘인양
벨트콘베아에 실려가는 광석의 흐름은 거세차다
이 하늘아래
조국의 위용을 떠받드는
억년 드물지 않을 무죄기둥이 솟는다

아, 무산이여 무산이여, 너는
치솟은 봉우리마다
강성대국의 푸른 하늘을 떠이었다
가장 넓고 푸른 하늘을
조국의 무궁할 미래를...

시는 이렇게 계속된다. 표현도 비교적 세련되고 시술도 거침없이 흘러가지만 사람들에게 딱히 안겨주는 씨박인 말은 없다. 이렇게 시인이 사색을 거쳐 찾아낸 서정의 핵을 쥐지 못하고 생활을 떠나 추상적인데로 흐르다나니 주소도 얼굴도 없는 시가 되고말았다.

붓을 댄김에 같은 7호에 실린 시 《돌격대거리》(문용철 작)를 대조시켜 들여고 한다.

이 시의 종자야말로 《돌격대거리》라는 제목이 말해주는것처럼 생활이 비낀 색갈있는 시적인 종자라고 본다.

누가 먼저 불렀던가
굴안가득 처마와 처마를 이은
돌격대의 이 보금자리를
그 이름도 멋스럽게 돌격대거리라고

이웃은 함복이요
길건너는 평복이라
온 나라 도, 시, 군이
의종게 들어앉은 돌격대거리

지붕마다
제 이름을 새겨안고
휘날리는 붉은기가
명칭없는 이 거리의
주소이며 문패라오

...

시의 첫 대목을 읽느라면 눈앞에 선히 밟혀오는 낮익은 광경이다. 수많은 눈길들이 돌격대병실을 지나쳤지만 거기에 《돌격대거리》라고 이름지은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눈에 비낀 발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시적인 종자에는 생활도 있고 정서도 있고 랑만도 있다. 종자에 시가 나올수 있는 요인이 담겨있는 발견적인것으로 하여 돌격대거리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특유한 생활과 랑만과 정서가 펼쳐지게 되는것이다.

어쩌다 휴식날이면 《차표없이》, 《온 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으로》 거니는 거리, 《얼굴 곱고 일손고운 강계처녀 맘에 둔 그날부턴/ 언제나 〈처가집〉 동네에 들어서는 기분》으로 강계대문을 지나칠수 없다는 돌격대거리에서만 볼수 있는 일화적인 생활정경과 정서적인 화폭들, 《빨찌산의 천막처럼/ 순간이면 일떠서고/ 순간이면 자릴 터는 거리이건만》 곳곳마다 행복과 기쁨을 낳는 《창조의 거리!》

...

삼수라 골도 깊은 이 산천에
푸른 호수 출렁이고
물새들 날아드는 그날이면
아 우리의 땀이 어린 추억많은 이 거리는
눈부신 발전소의 새 거리로 남으리라

이 결구야말로 얼마나 청춘의 랑만과 희열을 불러일으키는 생활적이며 정서질은 주정인가!

시의 종자는 이렇듯 참신한 생활과 질은 서정이 넘쳐나는 시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물론 소재와 양상에서 서로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산의 하늘》은 이 시와 달리 형상될수 있다고 보지만 시적인 종자를 탐구하는 측면에서 비교되는바가 있어 여기에 소감을 삽입하고 넘어간다.

생활이 비낀 시적인 종자의 탐구

지난해 하반기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시들을 보면서 좋은 시를 내놓기 위해 품을 들인 흔적을 뚜렷이 찾아볼수 있게 된것이 무엇보다 기뻐다.

특히 생활이 비낀 서정적핵을 안고있는 시적인 종자를 탐구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과 열정과 사

색을 바쳐온데 대하여 깊이 헤아릴수 있었다.

먼저 로병시인들의 짙막한 시들에 눈길이 갔다. 7호에 실린 《로인의 미소》(전찬기 작) 《로병의 고백》(문선건 작) 《숨쉬는 기둥》(권태여 작)과 같은 시들은 군말이 없고 짧으면서도 뭉이 있게 씩여지고있다는 점에서 공감에 갔다. 생활도 있고 정서가 배인 알맹이를 잡아쥐고 심장의 체험을 고백한것으로 하여 진실하게 안겨온다.

해변가에 뛰노는 아이들을 미소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살주름이 엇갈린 백발의 로인, 아이들은 로인의 가슴에 빗발치는 전승혼장을 만져도 보고 저마다 흥에 겨워하는데 로인의 얼굴에 비낀 그 미소와 혼장의 사연이야 어이 알리.

...

애무 한껏 어린 로인의 미소는
승고함이 파도쳐 넘치는 미소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줄
이제 저 아이들도 알 때 있으리

해빛은 금소나기를 붓고 바다는 넘실거리고
생각깊은 로인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하네
그 미소에 떠받들리는듯
아, 청높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웨침소리...
(시 《로인의 미소》)

로인의 미소에 담긴 의미를 설명없이 던져주는 이 시의 뒤대사를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석할것이다. 허나 행복의 웃음소리와 백발과 살주름에 얹혀진 로인의 미소에 담긴 사랑과 보람과 미래에 대한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지는 않을것이다.

시 《로병의 고백》 또한 얼마나 감정이 진실하고 절절한가. 아들딸 다섯남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 했더니 전연에 나간 막내아들이 원쑤들의 도발을 물리치고 영웅적으로 전사했다는 소식, 뜻밖의 비보앞에 백발의 로병은 피를 끓이며 고백한다.

...

군기앞에 다진 선서
다하지 못한 병사의 임무가 가슴을 친다
나는 아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사
미제와 기어이 결판을 내야 할
전쟁로병

아 전쟁로병
다 잡지 못한 원쑤가
눈앞에 있는 한
세월이 백발을 엮어주어도
차마 늙을수가 없구나

세월이 백발을 엮어주어도 늙을수가 없다는 심장의 고백을 무심히 들을수 없다. 한생의 뼈저린

체험이 가져다준 이 솔직한 진심의 고백을 생활 그대로 시에 담은것으로 하여 심금을 울린다.

우에서 본 시들과 함께 시 《숨쉬는 기둥》도 서정이 굽이치는 시적인 종자를 심은것으로 하여 짧지만 주는 여운은 크다.

불기둥이 솟구치는 도하장에 전사는 끊어진 다리를 떠메고 기둥처럼 서있다. 그우로 전사의 숨결을 안고 포차들이 굴러간다. 남으로, 남으로, 그것은 숨쉬는 기둥, 죽어도 휘지 않는 기둥이었다.

...

아, 죽어도 휘지 않는 기둥이 되여
원쑤격멸의 함성을 영생의 호흡으로 새긴
공병대대의 나의 전우
오늘도 이 가슴속에 숨쉬는 기둥이여

오늘도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기둥》, 얼마나 많은 뜻을 함축하고있는가. 시는 짧아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주는것이 있어야 한다.

시는 길지 않을수록 좋다. 이것저것 많은것을 주려는것보다 하나라도 씨가 박인 새것을 주는것이 더 좋다. 그러나 짧은 시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란 험치 않다.

이런 의미에서 8호에 실린 《강변에서》(김정곤 작), 《봄》(김선화 작)과 같은 시들에 대해 덧붙이려 한다.

시 《강변에서》는 오늘의 새 세대 청년들의 행복을 위해 바친 선대 세대들의 공지와 보람을 담담한 한쪽의 수채화에 담고있다.

지난 세월 언제인가 찬비가 잔등을 두드리던 폭우속에서 진창에 두발 번디디고 맞들어놓은 강변의 의자우에 한쌍의 젊은이가 나란히 앉아 행복을 속삭이고있다. 먼발치 소리죽여 에돌아 지나치려는데 그 모습 못 견디게 가슴을 휘저어놓는다.

...

내 젊은 시절
구슬땀 뿌린 이 의자우에
꽃잎같은 웃음이 날아올라
이 늙은 가슴에 내려와앉는듯

자리 뜨자고
슬며시 걸음 떼이니
절로 어깨가 들썩이네
한쌍의 젊은이 내 잔등에 업고와
마치도 이 의자에 내려놓은듯싶네

시는 보람찬 일터에서 맺어진 선군시대 한쌍의 젊은이들의 구김없는 행복한 모습앞에서 느끼는 체험을 오늘과 같은 미래를 내다보며 젊은 시절

의 어제를 바친 로세대의 행복한 모습과 대조시키면서 시적인 정서를 생활적으로 재치있게 감아내고있다.

시 《봄》도 백두대지의 건설장에 청춘의 열정과 보람과 희망을 다 바쳐가는 처녀돌격대원의 랑만의 세계를 밝고 청신한 정서에 담아 색깔있게 노래하고있다.

얼음을 까고 살을 에이는 산골물에 들어서 물보라를 날리며 깔깔대는 처녀의 창창한 웃음소리, 한겨울 혹한에도 빨강게 익은 중대의 막내 봄이의 두볼엔 벌써 봄이 피어나고있다. 사상을 직선적으로 드러낸 표현은 없지만 혹한의 시련도 두렵없이 백두대지에 성스런 창조의 위훈을 새겨온 돌격대원들의 값높은 정신세계가 랑만적정서에 실려 봄처럼 움터나고있다.

이렇게 시는 시구절과 함께 시출박에서 여운을 뿜겨주는 멋이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짧은 시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있다.

하반년잡지에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필체에서 기발하게 착상된 《선군령장의 명필체》(류명호 작 11호), 《내 조국의 하루》(강옥녀 작 7호)를 비롯하여 농촌주제, 통일주체의 좋은 시들이 적지 않게 실렸다.

시 《선군령장의 명필체》는 위대한 령장의 명필체에서 희세의 위인상을 묘한 비유로 감아낸 기발한 착상도 좋지만 그 명필체를 보며 조국의 창창한 미래와 선군조국의 위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펼친 독창적인 체험이 또한 귀중하다.

하늘을 날아오를듯 비스듬히 경사진 《김》자는 천하를 둘러보고 우뚝 솟은 《백두의 장군봉》같은 기운차게 옆으로 뻗은 《정》자는 우뚝치며 쏟아져내리는 《백두의 물사태》같은 눈보라를 일구듯 휘감아올린 《일》자는 높은 산을 타고 앉아 천하를 굽어보는 《백두의 호랑이》같다. 그렇다.

...

정신이 번쩍 드는 필체
저절로 탄성을 터치게 하는 필체
대번에 위인임을 직감케 하는 필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순간에 매혹케 하는 필체
아, 선군령장의 위대한 필체!

...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필체를 보며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것을 누구도 표현하지 못하였다. 한것을 한 해외동포의 심장의 목소리로 시인이 대변하였다. 이 착상, 이 기백있는 시적정서야말로 시인의 몫이며 발견이 아닐수 없다.

사회주의 내 조국의 벽찬 하루를 생활적으로 폭이 있게 투시하고 일반화한 《내 조국의 하루》

도 탐구된 흔적이 뚜렷한 시라고 본다.

아침과 낮과 저녁에 시점을 걸고 조국의 하루를 비추어본 이 시는 사실의 라렬로 엮어진듯한 인상을 주지만 여기엔 시인이 노린 의도가 배여있다.

시는 선군시대 조국의 세찬 숨결을 한몸에 안고 창조와 로동의 희열속에 총진군의 불길높이 벽찬 하루를 보내고있는 사회주의조국의 약동적인 기상을 전형적인 생활세부에 담아 폭넓게 일반화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시인의 의도와 사색적안목이 비껴있다.

특히 로동의 희열과 보답의 무게가 젖어든 땅에 저녁이 질을무렵 석탄산을 쌓아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탄부들의 얼굴에도, 발머리에서 하루일 총화짓는 농장원의 얼굴에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얼굴에도 즐거운 하루가 머물러있다고 노래하면서 《조국에 바친 하루일을 금지로이 안아보는 이 저녁/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 끝없이 끝없이 전선길을 달리고계시는 시간/ 누구나 하루일 끝낸 즐거운 휴식의 이 저녁 위해/ 우리 장군님 전선길 걸으시는 시간입니다》라고 소박하고 절절하게 아뢰인 감정토로는 극히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는 진실의 호소인것으로 하여 감동을 준다.

사회주의농촌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온 아버이 장군님은덕에 눈시울 적시며 별과 함께 살아온 농민의 체험을 개성적인 목소리로 노래한 《누런 이삭 물결치는 들》(박정애 작), 《농민의 가을》(한승길 작), 《가을》(리근지 작) 등 10호에 실린 시들은 서정적행이 뚜렷하고 체험도 진실한 참신한 시들이다.

...

흘린 땀 없이 기울인 정이 없이
그 어이 살붙이처럼 안아볼수 있으랴
정을 준 그만큼 너도 느끼는것 아니라
들이 넘치게 알찬 열매로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있으니

네가 설레여 내 마음도 설레이는
들아 내 사랑아
고난의 날 눈물겹도록 뼈저리도록
땅이 목숨같이 귀함을 깨달은 우리
그래서 너에게 바치는것은
곧 나에게 오는 행복의 무게라는것을
(시 《누런 이삭 물결치는 들》)

곡식은 바친 성실한 로력을 재여보게 하는 《량심의 열매》이기에 온 한해 땀과 정을 부어온 땅이었다. 하기에 농민은 바치는것이 곧 《행복의 무게》라는것을 체험을 통해 뜨겁게 받아안는것이다. 시인은 바로 이것을 발견하였다. 땅은 정과

로력을 기울인만큼 보답을 한다.

시 《농민의 가을》 역시 이런 체험을 진실하게 노래했다.

《손톱 박을 째도 없이/ 땅땅 여문 강냉이이삭》, 《무겁게 고개숙이고/ 논두렁에 몸을 기댄》 벼포기들은 가을이 절로 가져온것이 아니다. 그것은 눈발이 날리는 때운 날씨에도 땀흘려 쌓아놓은 거름더미에서 영근것이고 그루마다 엇갈린 강냉이이삭들도 농민의 땀을 단젖인양 빨아먹고 자란 것이다.

농민은 가을과
새롭게 상봉을 하지 않았다
가을은 농민이 안고산 모든것이기애
사시절 몸에서 떼어놓지 못하고
품을 들여 키웠노라

아, 온 한해 가을에 살며
성실하게 자래운 풍요한 그 가을을
조국에 삼가 드릴 때
가을은 농민의 한해 자서전!
가을은 농민의
삶과 같은 부름이여라

시는 짧지만 가을은 《농민의 한해 자서전》이라는 시적인 종자를 무르익혀나갔기에 인상에 남는 시로 될수 있었다.

시는 무엇을 서정적핵으로 잡아쥐고 시를 펼쳐나갔는가 하는데 따라 같은 대상을 노래하는 경우에도 서로 다르게 감수된다.

여기에 서로 비슷한 제목으로 씌여진 세편의 시가 있다. 한편은 10호에 실린 시 《가을》(리근지 작)이고 다른 두편은 12호에 실린 《가을》(김봉철 작)과 《가을날》(리영일 작)이다.

후에 든 두편의 시들도 별로 손색없는것들이지만 종자가 석연히 안겨오지 않는 아쉬움으로 하여 리근지의 《가을》과 비교된다.

...
설레이는 바람아 조심해다오
벼알 떨어지면 농장처녀들 울음 터칠라

벼단 안고 웃음짓는이 어찌 농민뿐이라
온 한해 벌 안고산 이 땅의 사람들 함께 웃는 가을
아 해 저물도록 넓어진 벌 걷고걸으시며
장군님 숫눈우에 찍어가신 자옥자옥

그 사랑의 자옥자옥이 영글인 알알이여서
벼 한이삭조차 두손에 받들기 무거운 가을이여!

한 편이 두줄(모두 6편)로 된 짧은 시이지만 우리의 가을은 벼 한이삭조차 받들기 무거운 가을이라는 발견이 있는 시적인 종자를 심은것으로

하여 인상깊은 여운을 남긴다.

이와 함께 8호에 실린 통일주제의 시들중 《우리 민족끼리》와 1편(리영삼 작), 《백두-한나행진길》(한광춘 작) 역시 눈길을 끄는 시들이다.

이 시들이 관심을 끄는것은 초점을 한곳으로 끌고들어가면서 통일열기를 강렬한 주정으로 파헤치고있다는데 있다.

《백두-한나행진길》에서는 통일행진길이란 말의 의미를 정서적체험속에 굴절시켜나가면서 그것을 뜨거운 주정으로 절절히 터치고있다.

분렬의 말뚝이 강토에 박히던 그날부터 걷고싶던 꿈에서도 걸어보던 통일의 길이였다.

...
걸어서 못 가면 기어서 가고
기어서 다 못 가면 뉘이라도 가자고
넘어넘어 열두고개
피눈물의 아리랑고개 몇몇 고개였던가
백두-한나행진길이여

가노라
긴긴세월 애타게 찾고부르던
그 손들을 잡고간다
이제 더 갈라져선
조선사람의 피가 뼘다 누구도 말할수 없는
그 가슴들을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간다
...

분렬비극사에 철추를 박고 북과 남이 처음으로 손잡고 걸어보는 통일의 길임을 격조높이 웨친 이 시는 사람들에게 통일의식을 심장깊이 절절히 체험하도록 이끌어준다.

하반년잡지에는 적지 않은 시초작품들이 실렸다. 그러나 시초의 생리를 살린 제인 시초는 그리 많지 못하다. 그중 비교적 인상에 남는 시초로서 《꽃은 태양이 피운다》(리영철 작 11호) 《향기 넘치는 산촌에서》(박경심 작 8호), 《칠보산기행시초》(리근지 작 8호), 《내 마음에 찾아오는 모습들》(변홍영 작 12호) 등을 들수 있다.

《나는 전쟁로병이다》(조태현 작 9호)가 생활이 있고 진실감이 있어 좋았다.

시초 《꽃은 태양이 피운다》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씌여졌지만 시인의 얼굴을 엿볼수 있게 반복을 피하고 매 시편의 종자를 특색있게 탐구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들을 시초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조화롭게 배열구성함으로써 시초다운 맛을 잘 살리고있다.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낯선 이국풍경이 비껴오는 비행기안에서도 더 가까이 안겨지는 조국, 떨어져 못사는 어버이품을 노래한 시 《비행기는 국경을 넘어서 가도》라든가 왕의 딸 공주의 경탄을 자아낸 거짓아닌 사실을 노래한 《공주와 공민》, 만나자 작별의 설음속에 한생을 살았다는 전설의 견우, 직녀와는 달리 경애하는 장군님 펼쳐주신

은정의 《오작교》에서 작별없는 영원한 행복의 상봉을 했다는 《은정의 〈오작교〉》, 두 대에 걸치는 모성의 체험을 각이한 시점에서 파헤친 《모성의 고백》(1, 2) 등이 모두다 색깔있게 쓰여졌다.

주제의 공통성에 의해 묶여지는 시초작품은 개개의 시편들이 독자적인 뉘를 가지고 각이한 색깔과 향기와 음색으로 시초의 면모를 돈구어주는 데 합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일부 시초작품들을 보면 시초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때 시편들이 조화롭게 배열되어있지 못하거나 독자적인 뉘를 가지고 시초를 특색있게 부각할수 있도록 맞물려지지 못하고있는가 하면 시초의 등에 업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실례로 시초 《내 사는 거리》(김상조 작 8호)와 같은것이 그러하다.

이 시초는 《불밝은 거리》, 《네쌍둥이소식 날아올 때면》, 《장수자의 봄노래》와 같은 3편의 시로 묶여져있다. 그런데 때 시편들이 《내 사는 거리》라는 시초의 특징을 부각시킬수 있게 선택되고 배열되지 못하였기때문에 시초다운 맛이 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때 시편들이 독자적인 뉘를 가지고 시초에 맞물려있지 못한것으로 하여 《내 사는 거리》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있다.

창조와 열정으로 뚫어번지는 불밝은 항구거리의 약동적인 모습과 거기 사는 보람과 궁지가 색깔있게 비껴나와야겠는데 잘 리해가 가지 않는다.

사색과 모태김이 없이 새것이 나올수 없다. 시초의 생리를 깊이 음미하지 못한채 품을 들여 쓰지못했다는것이 알린다.

이 시초와 나란히 편집된 《칠보산기행시초》를 보자. 얼마나 대조되게 안겨오는가. 칠보산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 신묘하고 아름다운 산풍치를 눈에 보는듯이 그려볼수 있도록 때 시편들이 각이한 색깔과 양상으로 칠보산정경을 특색있게 돈구어주고있다.

여기엔 아름답고 수려한 조국산천을 안고 몸부림친 뜨거운 숨결이 맥박치고있을뿐아니라 때 시편들에 기울여진 탐구와 사색과 열정의 산물이 개성적인 목소리에 실려 감명깊게 울려나오고있다.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향토와 인정과 조국애의 정서를 수놓아간 때 시편들이 구슬같이 맑고 청아한 선율을 뿜어주는가 하면 불붙는 단풍잎처럼 열정을 내뿜기도 한다.

《덕수골 쌍폭포》, 《풍금바위》, 《벽계수는 흘러가는데》, 《5천년력사우에》 등 6편의 짧은 시로 엮어진 때 시편들에는 각기 짙은 정서로 채

색된 개성적인 종자가 심어져있으며 그것이 여울을 안고 맴도는 벽계수와 같이 절묘한 일만경치를 뿜내는 봉우리마냥 환희와 격동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라새로운 정서를 물들이고있다.

벽계수는 칠보산 떠나기 아쉬워
담마다 고였다 넘쳤다 흘러가오

가다가는 그냥은 못 가
여울의 돌을 불안고 맴돌기도 하오

그래도 흐르는 물은 가는 물이어서
기암절벽 안고 쓰다듬으며 가오

생각없는 물도 정든 산천 못 떠나
저리도 맴돌며 정만은 두고 가는데

나에게 금수강산을 다 안겨준
조국아 너를 떠나 한신들 내 어찌 살리

(시 《벽계수는 흘러가는데》 전문)

얼마나 기발하고 묘리있게 착상되고 탐구된 서정인가. 맘없는 벽계수도 제 고장을 못 떠나 몸부림치는데 우리 어찌 금수강산을 통채로 안겨준 조국을 떠나 살수 있으랴.

이 시에 기울여진 이런 발견은 다른 때 시편들에서도 레외로 되지 않는다. 착상이 새롭고 기발하며 종자가 시적이어서 사상이 정서를 타고 자연스럽게 안겨올뿐아니라 감각적이고 시각적이고 음향적인 시어들로 시줄들이 엮어져 청신하고 조화로운 산풍경을 보는듯 하다.

지난 시기 풍경시의 모범작으로 내세웠던 산수시초 《칠보산》이 나온 이래 처음 보는 성공적인 선군시대의 풍경시로서 손색이 없다.

워낙 100여편이 넘는 시들을 대하면서 주로 시적인 종자를 탐구하는 과정에 기울여진 사색의 흔적을 두고 론하다나니 응당 들어야 할 시들도 다 들지 못했고 하고싶은 말도 다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덧붙이고싶은것은 생활이 비긴 시적인 종자를 쥐기 전에는 흥분에 떠서 서둘러 붓을 들거나 발견이 없이 의무감에 못이겨 붓을 들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성구, 속담 (조심성)

- 나그네 귀는 석자다
- 닭알집 다루듯(한다)
- 장님 징검다리 건너듯

- 식은 죽도 불어가며 먹어라
- 아이들 보는데선 찬물(맹물)도 못 마신다
- 한번 얹지른 물은 퍼담지 못한다

땅은 말이 없다

류항모

땅은 말없이 보고있다
새해농사차비에서
너와 나 우리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오, 가을이 오면
에누리없는 이삭으로 땅은 말하리라
누가 이 땅의
진짜주인인가를

거름

우광복

땅이 먹을 《밥》이다
땅이 기름질 《보약》이다
거름!
우리 내는 이 거름!

땅이 한껏 힘을 쓰도록
땅이 배부르게 거름을 내자
그러나 설익은 거름을 먹은 땅은
온 한해 앓는다
앓는 땅엔 익은 이삭이 없다

아이들의 말

성연일

울망줄망 손수레에
거름을 싣고온 아이들아
너희들은 제발 그만두거라
어서 가서 놀거나 하려마

떠미는 나에게
아이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
농장원 나의 가슴을 친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요!》

웃음절반 권고절반

《통장훈》을 부르자

김창호

새해 첫 진군길
거름짐 지고 미곡벌에 들어서니
기름진 포전은 장기판인가
쌓아지는 거름더미는 장기쪽인가

아무렴!
우리 수령님 미곡벌이 벼농사에서

《장훈》을 부르라 하셨거니

이 아닌가 오늘의 거름더미는
가을을 부르는 첫 《장훈》!
강성대국의 그날을 앞당기는
한해농사의 《통장훈》은
포전마다 우리 내는 거름더미에 있다

성벽을 쌓자

지흥길

쌀가마니 층층 쌓아놓으면
성벽이 방불하다
쌀이 넉넉하면 총대는 더 굳건해지고
웃음이 넘쳐나고
행복의 노래 높아지려니

오, 우리 수령님
쌀은 곧 사회주의라 하시지 않았더냐
새해공동사설 심장에 받아안고
올해농사 또 한번 본때있게 짓자
쌀가마니 하늘높이 쌓아서
사회주의수호의 성벽을 다지자!

유모아

《난 자네를 전혀 모르겠는데》

마야콥스끼의 명성이 높아지자 시짓기를 좋아하는 일부 청년들 가운데는 그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기의 《재능》을 시위해보려는 서툰짜리 시인들이 나타났다.

시짓기를 즐겨하는 한 청년이 4년동안 신고를 거듭하여 쓴 시 한편이 자그마한 신문에 발표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시가 발표된 신문과 4루블짜리 송금통지서까지 보여주면서 자랑하였다. 이따금 칭찬도 들게 되었다.

그러자 우쭐해진 그는 자기를 시문학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존재라고 자부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열차여행을 하면서 한 중년사나이의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중년사나이는

시집을 펼쳐들고 읽고있었다. 젊은이는 이 중년사나이라도 시를 좋아한다는것을 알았는지 자기 시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하였으며 송금통지서까지 내보였다.

중년사나이는 웃기만 할뿐 말은 하지 않았다.

더욱 기세가 오른 젊은이는 국내외의 유명한 시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유명한 시인 마야콥스끼를 압니까? 나는 그와 매우 가까이 지냅니다. 전번날에는 그의 집에 가서 술까지 마셨습니다.》

중년사나이는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내가 바로 마야콥스끼네. 난 자네를 전혀 모르겠는데.》